

화

이

부

동

2023 한·중·일 예술제  
2023 한·중·일 공예전  
화이부동

2023 中·日·韩艺术节  
2023 中·日·韩工艺展  
和而不同

2023 日·中·韓芸術祭  
2023 日·中·韓工芸展  
和而不同

2023 한·중·일 공예전  
화이부동

2023 中·日·韩 工艺展  
和而不同

2023 日·中·韩 工艺展  
和而不同

Korea-China-Japan's  
Crafts Exhibition\_  
Harmony amid Diversity

2023.8.30. – 09.10.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1, 2  
全北艺术会馆Gisurak第一、二展室  
全北芸術會館 ギスラック 1, 2

|                        |                      |  |
|------------------------|----------------------|--|
| 최성재<br>崔成在<br>チェ・ソンジェ  | 백명<br>白明<br>バイミン     | 하야시 카쿠<br>林香君<br>林 香君                    |
| 권대섭<br>权大燮<br>クオン・デソプ  | 원광<br>远宏<br>ユエンホン    | 카토우 레이키치<br>加藤令吉<br>加藤 令吉                |
| 이가진<br>李嘉珍<br>이·가진     | 소헌충<br>苏献忠<br>스ーシ안쵸ン | 14대 이마이즈미 이마에몬<br>十四代今泉今右卫门<br>十四代今泉今右衛門 |
| 김덕호<br>金德鎬<br>김·토크호    | 오호우<br>吴昊宇<br>우·하오유  | 츠가네 히토무<br>津金日人梦<br>津金 日人梦               |
| 김준용<br>金僑龙<br>김·쥬니ョン   | 포지강<br>鲍志强<br>바오저쵸찬  | 야마모토 아카네<br>山本茜<br>山本 茜                  |
| 이상협<br>李相协<br>이·산히ョ브   | 정유림<br>郑幼林<br>쥬온·요우린 | 미야타 료헤이<br>宮田亮平<br>宮田 亮平                 |
| 김영옥<br>金荣玉<br>김·요노옥    | 왕건중<br>王建中<br>왕젠쵸쥬ン  | 하루야마 후미노리<br>春山文典<br>春山 文典               |
| 김현주<br>金贤珠<br>김·히ョン쥬   | 황한송<br>黄汉松<br>ファン한쑤ン | 오오스미 유키에<br>大角幸枝<br>大角 幸枝                |
| 손대현<br>孙大炫<br>손·데히ョン   | 장충<br>张翀<br>장쵸쥬ン     | 아오키 코우도우<br>青木宏憧<br>青木 宏憧                |
| 정해조<br>郑解朝<br>쵸ン·헤쥬    | 종연성<br>钟连盛<br>쵸ン리엔쑤ン | 무로세 카즈미<br>室濑和美<br>室濑 和美                 |
| 권원덕<br>权元惠<br>クオン·우오드크 | 왕효흔<br>王晓昕<br>왕샤오쑤ン  | 후지누마 노보루<br>藤沼升<br>藤沼 昇                  |
| 고보경<br>高甫旻<br>코·보키ョン   | 왕극진<br>王克震<br>왕크얌쵸쑤ン | 오쿠다 사유메<br>奥田小由女<br>奥田 小由女               |
| 조하나<br>赵Hana<br>쵸·하나   | 은수운<br>殷秀云<br>인쑤운    | 타카다 카즈모리<br>高田和司<br>高田 和司                |
| 이슬기<br>李瑟己<br>이·스르기    | 감이가<br>甘而可<br>간아크얌   | 이하야 케이진<br>井隼庆人<br>井隼 慶人                 |
| 박경숙<br>朴京淑<br>박·키ョン스쿠  | 종성<br>钟声<br>쵸ン쑤ン     | 우에하라 토시마루<br>上原利丸<br>上原 利丸               |
|                        | 이홍파<br>李洪波<br>리·혼보   | 시로마 에이이치<br>城间荣市<br>城間 荣市                |

2023  
한·중·일  
공예전  
화이부동

2023  
中·日·韩  
工艺展  
和而不同

2023  
日·中·韩  
工艺展  
和而不同

# 목차

## 目录

## 目次

6 인사말  
欢迎词  
ご挨拶

10 전시서문  
展览序文  
展示序文

14 한국  
韩国  
韓国

58 중국  
中国  
中国

100 일본  
日本  
日本

140 이력  
履历  
履歴

### 일러두기

1. 이 전시도록은 <2023 한·중·일 공예전-화이부동>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2.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공용으로 표기하였다.
3. 본문과 이력의 작가 배열순서는 국가와 매체에 따라 분류하였다.
4. 수록된 사진은 작가 및 소장처에서 제공받거나, 본 전시를 위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5. 작품크기의 단위는 cm이며, 가로(l), 세로(w), 높이(h), 또는 깊이(d) 순이다.
6. 작품의 명칭과 재료는 '국문-중문-일문'으로 표기하였다.
7. 작가 약력은 작가와 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하였다.

### 温馨提示

1. 本展览图录是为了记录“2023中日·韩工艺展-和而不同”而制作的。
2. 本展览图录用中文、日文和韩文三种语言撰写。
3. 正文和个人简历中的艺术家按照国家 and 媒体顺序排列。
4. 图录中收录的照片一部分由艺术家和收藏机构提供，一部分是为本次展览而拍摄的照片。
5. 作品尺寸以厘米（cm）为单位，尺寸顺序为长、宽、高或深。
6. 作品名称和材料用“韩文-中文-日文”标记。
7. 艺术家的个人经历是在艺术家和机构提供的资料之基础上，摘取主要内容后撰写的。

### 凡例

1. この展示図録は、<2023日・中・韓工芸展-和而不同>を記録するために制作された。
2. 言語は、日本語、中国語、韓国語を共用して表記した。
3. 本文と履歴の作家名の配列は、国と媒体によって分類した。
4. 収録された写真は、作家及び収蔵先から提供または本展示のために撮影した写真を利用した。
5. 作品の大きさの単位は「cm」で、横(l)、縦(w)、高さ(h)、または、奥行(d)の順だ。
6. 作品の名称と材料は、「韓国語-中国語-日本語」で表記した。
7. 作家の略歴は、機関が提供した資料をもとに主な内容を抜粋・編集した。

## 인사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2023년 한중일 예술제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전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 준비에 열정적으로 협조해주신 중국 문화여유부와 일본 문화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품을 기꺼이 출품해주신 한·중·일 작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중·일 예술제는 3국의 문화적 자부심과 열정을 한자리에 모아 3국 문화협력을 확대하고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올해 예술제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 한·중·일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연 형식에서 전시회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예술가들의 교류 지평도 더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화이부동’입니다. ‘다양성 속 조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빼어난 공예 작품 속에서 한·중·일 3개국이 공유하는 동아시아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확인하는 한편, 각자의 빛깔로 차별화된 매력을 발전시켜온 문화적 다양성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한·중·일 3국 관계는 오랜 연륜과 지혜를 토대로 확고한 신뢰와 협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떠나 마음으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가장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이번 공예전에서 3국 작가들은 대담하고 장엄하면서 동시에 은근한 예술혼의 세계로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전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중·일 예술제가 3국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우의를 다지는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 欢迎词

文化体育观光部 长官 朴普均

大家好!我是大韩民国文化体育观光部长官朴普均。

我非常高兴能有机会在拥有千年历史的韩国全州举办2023年中日韩艺术节。借此机会,我谨向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与日本文化庁在筹备此次展览过程之中所给予的支持和帮助表示衷心的感谢,并向中日韩三国的展览出品人表示最诚挚的谢意。

中日韩艺术节汇聚了三国的文化自豪感和热情,为扩大三国文化合作、加深三国之间的理解与信任付出了巨大贡献。今年的艺术节是,中日韩三国艺术家继2019年艺术节后,时隔四年再次以面对面的形式进行交流的文化盛宴。本次艺术节还试图改变文化交流形式,从以往的表演转变为展览,大大拓展了艺术交流的广度和深度。

本次展览的主题“和而不同”指的是“多样性中的和谐”。我们将通过本次展览,可欣赏独一无二的工艺作品,加深理解中日韩三国所共享的东北亚历史文化底蕴,进而发现各国独有的文化内涵。

中日韩三国通过积累经验和智慧,不断建立互信合作的关系。艺术是能够超越语言和文化的界限,促进情感交融、实现心灵契合的最佳媒介。本次展览之中,三国作家将带领观众领略浩然雄浑、朴实无华的艺术瑰宝。

最后,我谨向参加本次展览的各位来宾表示衷心的感谢。我希望,今年的中日韩艺术节将能够开启加强合作、增进友谊的新篇章。谢谢!

## ご挨拶

文化体育観光部 長官 朴 普均

初めまして。大韓民国文化体育観光部長官朴普均です。

2023年「日・中・韓芸術祭」が、千年の歴史を持つ大韓民国全州で開かれることを嬉しく思います。この度の展示の準備のため情熱的にご協力いただいた中国文化旅游部ならびに日本文化庁の関係者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特に、作品を出品してくださいました日本・中国・韓国の作家の皆様にも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日中韓芸術祭は、三か国の文化的自負と情熱を一堂に集め、三か国文化協力を拡大し、理解と信頼の幅を広げるのに貢献してまいりました。本年の芸術祭は、2019年以降4年ぶりに対面で開催され、韓国・中国・日本の文化芸術家たちが直接会うこととなる意義深い場でございます。また、従来の公演形式から展示会へと変化を試みることで、芸術家たちの交流の地平もより広く拡張されました。

今般の展示のテーマは、「和して同ぜず（和而不同）」です。多様性のなかの調和と和合の意味を込めております。独創的で秀でた工芸作品の中で韓国・中国・日本の三か国が共有する東アジアの歴史文化的背景を確かめながら、各自の色でそれぞれ異なる魅力を発展させてきた文化的多様性を発見する意味のあるステージになることでしょう。

日中韓三か国の関係は、長年の経験と知恵を土台に確固たる信頼と協力を積み上げております。特に、芸術は言語と文化的差異を離れ、心で通じ合い触れ合う最も素晴らしい媒体であります。今般の芸術祭において、三か国の作家たちは大胆かつ荘厳で、同時にほのかな芸術魂の世界へと見る人たちの視線を引き寄せることでしょう。

展示にご尽力賜りました皆様に重ねて御礼申し上げます。本年の日中韓芸術祭が三か国の協力を固くし、友誼を結ぶ新しい飛躍の場となりますことを祈念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전시서문

전시감독 임미선

“한·중·일 공예전\_화이부동(和而不同)”은 ‘2023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인 ‘한·중·일 예술제’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 전시이다.

본전시는 전시를 구성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현대공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피고 동북아시아 삼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비교하고 감상하는데에 방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특히, 전시의 부제인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함께 경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같지는 않지만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다 함께 미래사회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균형과 화합을 이루자는 기대와 바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공예는 인간,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적 유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매개체이다. 또한,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과 유한한 자연의 가치 그리고 다양한 삶(의식주, 衣食住)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변화들을 반영해온 물질문화(物質文化)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더욱이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한국-중국-일본을 이어주는 교역의 대상물이자 문화의 가교로서 ‘한·중·일 삼국의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교류’에 중심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옷칠 같은 공예 매체는 아시아에서만 자라는 옷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으로 만든 대표적인 고급 공예품이자 천연의 소재로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크게 발달하였다. 방부 및 방습효과와 보존기능이 뛰어난 친환경 소재이자 나무, 도자기, 금속, 종이 등에 사용되는 도료로써 현재, 친환경적인 가치와 다채로운 색감표현 등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공예뿐만 아니라 건축과 디자인, 회화, 조각 등 예술과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도자기와 차(다도) 그리고 종이(제지)와 불교 문화 등은 기술과 소재, 종교와 의례를 넘어서 삼국의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매개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시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소통 부재라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전시주제를 ‘공예로 생각하기-미래, 자연, 문화’로 삼았다. 본전시에는 원로에서부터 중견 및 신진 작가까지 도자, 금속, 목질, 섬유, 유리 및 기타공예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47명 한·중·일 작가들의 수준 높은 현대공예품 50점을 선보인다. 전통적인 공예 기술과 소재 및 표현 등을 바탕으로 이를 재해석한 현대 공예가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소개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돌, 나무, 흙, 금속, 유리, 종이, 대나무 등 천연 소재를 이용해 기량 높은 한·중·일 작가들이 손(手)으로 만든 기물과 예술 장식품을 통해 현대공예의 제작기술 수준과 미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동시대 한국, 중국, 일본인들에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상현실이 주도하는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탈 감각, 소통 부재, 공감 능력 결여 등 실재의 현실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류학을 기반한 아름답고 쓸모 있는 전통 문화유산인 ‘공예(工藝)’를 통해서 동북아 삼국의 문화적 동질성과 차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 등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전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준 높은 작품들을 출품해주신 47명의 한국, 중국, 일본의 작가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중국미술관(NAMOC)과 공익사단법인 일전과 공익사단법인 일본공예회 그리고 큐레이터 이승미와 한·중·일 삼국의 문화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전시를 준비하며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화이부동’을 이루었다. 본전시를 통해 쌓은 삼국의 아름다운 교류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 展覽序文

展覽總監 林美善

《中日韩工艺展—和而不同》是为纪念2023年中日韩文化部长会议而举办的“中日韩艺术节”活动的一部分。

展覽旨在探索中国、日本和韩国当代工艺的共性和个性，比较尝试东北亚三国所共有的历史·文化·艺术价值，副题“和而不同”指的是在尊重差异的同时共同为更高的目标而努力。换言之，展覽秉承“不同而和谐”的共存共荣精神，期待探索未来三国和谐均衡发展的途径。

工艺美术既是承载人类、自然、历史和文化的精神媒介，又是传承人类社会、自然价值和生活方式（衣食住行）之不断变化的物质文化。它在中日韩三国悠久的历史交流之中，作为一种文化桥梁，链接三国的过去、现在和未来，成为了三国文化艺术交流的最核心形式。

陶瓷、茶（茶道）、纸（制纸）和佛教文化等工艺形式跨越技术、材料、宗教和仪礼的自身限制，巩固了三国的社会文化网络。尤其，“漆”这一种工艺媒介，在中日韩三国都得到广泛应用。它是由只生长于亚洲的漆树所提取的树液制成的，具有良好的防潮和防腐功能，可用作木制、陶瓷、金属和纸工艺的涂料，直到现在都备受瞩目。近年来，建筑、设计、绘画和雕塑等领域也高度重视“漆”的天然·环保价值和色彩表现形式。

展覽面对环境变化、数字化转型和缺乏沟通等现代社会问题，以“工艺思考—未来、自然和文化”为主题，展出47位中国、日本和韩国工艺界元老、中坚和新秀的50件作品，涉及到了陶瓷、金属、木漆、纤维、玻璃和其他工艺美术领域。展覽将介绍当代工艺匠人对东北亚三国传统工艺技术、材料和表现形式的重新诠释，拓宽我们对同时代三国工艺美术和物质文化的了解。技艺精湛的三国艺术家使用石头、木材、泥土、金属、玻璃、纸张和竹子等天然材料创作的器物 and 装饰品，也将让人们一窥当代工艺制作技术和美学水平。

新冠疫情暴发以来，虚拟现实所主导的数字社会发展突飞猛进，人类社会出现了种种新问题，如情感淡漠、缺乏沟通和共情能力等。我们期待将通过“工艺”这一基于科学技术和人类学的美丽而有用的传统文化遗产，能够分享东北亚三国文化的共性与个性，深入探讨可持续发展的未来价值。

最后，我谨向来自中国、日本和韩国的47位艺术家表示由衷的感谢。他们在本次展览中向公众展示出了最高水平的艺术作品。我们还要向中国美术馆（NAMOC）、公益社团法人日展、公益社团法人日本工艺会、策展人李承美以及中日韩三国文化部表示最为诚挚的谢意。我们在筹备过程中，加深了相互理解，已经实现了“和而不同”的精神价值。我衷心希望此次展览可持续带动三国之间的美好交流与合作。

## 展示序文

展示監督 イム・ミソン

「日・中・韓工藝展\_\_和して同ぜず（和而不同）」は、「2023日中韓文化大臣会合」の記念事業として実施されるイベント「日中韓芸術祭」の一環として企画された特別展示です。

今回の展示では、展示を構成する韓国と中国、日本の現代工芸の相違点と共通点を調べ、北東アジア三国が共有する歴史的、文化的、芸術的価値を比較して鑑賞することにフォーカスを当てて企画されました。特に、展示の副題である「和して同ぜず（和而不同）」は、似ているようで異なることを尊重しながらより高い次元の何かのために共に努力を傾けるとい意味を込めています。言い換えれば、韓国と中国、そして日本が「同じではないが、互いに調和して」共に未来社会の共存・共栄のための均衡と和合を成し遂げようという期待や望みを象徴的に表現しました。

工芸は、人間、自然、文化そして歴史的レガシーが調和して共存する媒体です。また、絶え間ない人間の努力と有限な自然の価値、そして多様なライフスタイル（衣食住）などについて積極的に悩み、その変化を反映させてきた物質文化の代表的な産物です。さらに、過去—現在—未来、そして韓国—中国—日本を結ぶ交易の対象物であり文化のかけ橋として、「日中韓三国の社会経済及び文化芸術交流」の中心として長い間重要な役割を担ってきました。特に、漆塗のような工芸媒体は、アジアでしか育たない漆の木から抽出した樹液で作った代表的高級工芸品であり、天然素材として韓国と中国、日本において大きく発達しました。防腐・防湿効果や保存機能に優れ、環境にやさしい素材であり、木、陶磁器、金属、紙などに使われる塗料として、現在エコフレンドリーな価値や多彩な色彩表現などで高く評価されています。最近では、工芸だけでなく、建築やデザイン、絵画、彫刻など、芸術と産業の様々な分野で広く活用されています。また、陶磁器と茶道そして紙（製紙）と仏教文化などは、技術と素材、宗教と儀礼を超えて三国の社会・文化的ネットワークをさらに強くする媒体であったことは、すでによく知られた話です。

展示では、エコフレンドリー、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不在といった時宜にかなったキーワードを考慮し、展示のテーマを「工芸で考える—未来、自然、文化」としました。本展示では、ベテランから中堅及び新人作家にいたるまで陶磁、金属、木漆、繊維、ガラス及びその他の工芸など、様々な媒体で作業する日中韓の47名の作家によるレベルの高い現代工芸品50点を展示します。伝統的な工芸の技や素材、表現などをもとにこれらを再解釈した現代工芸家たちの独創的な作品を紹介する貴重な場となることでしょう。また、石、木、土、金属、ガラス、紙、竹など、天然素材を用いて、技を持った日中韓の作家たちの手作りの器物や芸術作品を通じて現代工芸の制作技術の水準や仕上げ作業を一目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さらに、同時代の日本、中国、韓国人たちの暮らし方や態度、そしてこれを構成する物質文化に対する理解の幅をさらに広め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でしょう。

また、コロナ禍以降、バーチャル・リアリティがリードする今日のようなデジタル社会において、脱感覚、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不在、共感力の欠如など、実在の現実環境が急激に変化しています。科学技術と人類学に基づいた美しくも使いやすい伝統文化遺産である「工芸」を通じて北東アジア三国の文化的同質性や相違性、そしてサステナブルな未来価値などを共有する大切な機会が得ら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最後に、今回の展示が成功裏に開催されるようレベルの高い作品を出品してくださった47名の日本、中国、韓国の作家の皆様方々にまず感謝申し上げます。さらに、中国美術館（NAMOC）、公益社団法人日展、公益社団法人日本工芸会、そしてキュレーターのイ・スンミ並びに日中韓三国の文化省庁関係者の皆様のご尽力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展示の準備を進めるなかで、私たちは一丸となって互いに理解し協力することで、すでに「和して同ぜず」となりました。今回の展示を通じて積み重ねた三国の美しい交流協力関係がこれからも続くことを切に願います。

한국  
韩国  
韓国

024 최성재  
崔成在  
チェ・ソンジェ

026 권대섭  
权大燮  
クォン・デソプ

028 이가진  
李嘉珍  
イ・ガジン

030 김덕호  
金德镐  
キム・トクホ

032 김준용  
金僑龙  
キム・ジュニョン

034 이상협  
李相协  
イ・サンヒョプ

036 김영옥  
金荣玉  
キム・ヨン옥

038 김현주  
金贤珠  
キム・ヒョンジュ

040 손대현  
孙大炫  
ソン・데ヒョン

042 정해조  
郑解朝  
チョン・헤조

046 권원덕  
权元惠  
クォン・ウォンドク

048 고보경  
高甫旻  
코·보키ョン

050 조하나  
赵Hana  
초·하나

052 이슬기  
李瑟己  
이·스르기

056 박경숙  
朴京淑  
박·키ョン스



## 한국공예, 전통과 혁신의 멜로디

전시감독 임미선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말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응용하고 재해석하여 현대화함으로써 본래의 바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토대’와 시대 상황에 알맞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힘과 노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류’에 바탕을 이루는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특질을 살펴볼 수 있는 현대공예품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역사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소재 그리고 작가별 해석을 바탕으로 현대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서 한국공예의 **전통적이며 혁신적인 면모와 균형과 조화의 ‘미(美)’**를 선보이고자 한다.

전시는 도자, 금속, 목질, 섬유, 유리공예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15명 작가의 작품 17점으로 구성되었다. 끊임없는 기술적, 재료적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미감과 조형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들을 선별하였다. 작가들의 새로운 조형 작업이 어떤 전통공예 기술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 어떻게 자신들만의 정체성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자연과의 친화성과 조화로움 속에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구본신참’의 제작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국 공예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한 동시대 한국공예의 특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해조의 ‘흑광울 2201’**은 옻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한 옻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삼베를 여러 겹으로 태를 만들고 겹칠 하는 헝저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재료, 형태, 색채의 본질을 탐구해온 작가의 조형 세계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표면의 빛 반사를 통해 드러나는 선율, 바람, 파도를 연상시킨다. 단순하지만 화려한 형태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색감이 특징으로 감상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칠(漆)이 아니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다. 특히, 옻나무는 아시아권에서만 재배되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옻칠이 대표적으로 동북아 삼국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소재이자 매체이다.

**손대현의 ‘모란당초문함’**은 전복과 소라 등 패각을 이용해 문양을 만든 후 옻칠한 나전칠기이다. 영롱한 무지개색의 나전은 1200년 전부터 제작되어 고려 시대에 꽃을 피웠으며 조선 시대에는 소박하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이어졌다. 당초 문양은 중국에서도 즐겨 사용된 문양으로 도자, 금속 등 전통유물에서 자주 표현되며 ‘생명’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간략화된 모란 당초문을 특징으로 자개를 오리는 줄음질과 망치로 쳐서 표면에 부착하는 타발법 등을 이용해 제작한 ‘모란당초문함’은 단순한 형태에 화려한 나전장식을 붙이고 붉은색 주칠(朱漆)을 입힌 수월성이 돋보이는 명품이다.

**권대섭의 ‘백자대호’**는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비추는 밤하늘에 보름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비정형의 형태미와 백색 미감, 그리고 현대적 추상성 등이 만나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달항아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물레 성형한 후 이어 붙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형태는 과장되지 않으며 장식은 절제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공예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박경숙**은 도예가이자 공예 애호가로 일상에서 공예문화를 실천해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공예의 진정한 가치를 말한다. 지난 47년간 수집한 작가의 한·중·일 공예소장품을 활용한 ‘비 마이 게스트(초대)’는 공간구성을 통해 연출한 작품으로 삼국의 공예문화를 비교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영옥**의 ‘꽃들의 기억’은 금속 입자를 조밀하게 만들어 강도를 높이는 단조 기법으로 만든 은기이다. 작가는 술이나 차를 데우는 용도의 주전자나 화로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전통 기형과 용도를 응용, 재해석해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세련되고 품격있는 일상용 사물들을 제작한다.

**최성재**의 ‘마음 풍경’은 분청사기의 특징인 자유로운 형식과 회화적 표현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히, 화장토를 칠하고 표면이 마르기 전에 수화(手畵)로 빠르게 처리한 회화성이 돋보인다. 조선 전기 150년간 짧게 나타났다 사라진 분청자는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하던 시기, 등장했던 한국도자기의 유연한 응용력과 창의적 발상을 보여주는 전통도자기 중 하나다. 전통적 분청사기의 형식과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는 작가는 개울가의 나무와 풀, 오리 등 전통회화 및 도자기에 담긴 한국의 일상적 자연풍경을 무심한 듯 그러나 세심하게 담아내었다.

**김준용**의 ‘초록에 물들다’는 액상 유리를 파이프에 붙여 입김으로 형태를 만드는 블로잉 기법과 두꺼운 유리표면을 연마해 완성한 화려한 형태와 색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유리라는 물성의 팽창률, 용융점, 강도 등 축적된 소재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을 모티브로 완성된 형태미와 더불어 빛의 투광성을 극대화한 유리공예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슬기**는 전래 속담을 기호로 표현한 일인용 누비이불 시리즈를 본전시예 선보인다. 설치미술가인 이슬기의 개념적 해석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통영의 누비장인 조성연이 바느질한 이 협업 작품은 전통 공예기술과 현대적 미감 그리고 언어유희가 더해진 실용 사물로서 아름답고 쓸모있는 수준 높은 현대공예품이다.

**이상협**의 ‘독’은 망치 하나로 은판을 두들겨 형태를 만드는 단조와 전통 방짜기법을 혼용해 만든 작품이다. 고온의 열과 수천 번 망치질로 다듬어진 전통 옹기의 기형을 바탕으로 대형의 단순한 형태 위에 윤슬처럼 반짝이는 망치 자국들을 통해 작가의 화려한 망치질 소리와 함께 긴 작업의 과정을 상상하게 만든다.

**김현주**의 ‘원을 그리다’는 금속에 자개를 붙이고 옻칠로 마감한 한 금태 칠기이다. 이 작품은 금속판을 망치로 두들겨 둥근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나전칠기의 가장 오랜 제작기법인 끊음질로 푸른빛이 감도는 영롱한 자개 조각들을 하나씩 끊어서 기물 표면에 이어 붙였다. 고급 소재와 높은 기술력, 작가의 현대적 감각과 취향이 더해진 독창적인 금속공예품이다.

**권원덕**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조석진 소목장에게서 전통 목조기술을 배운 뒤 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에서 현대 디자인을 연구했다. 작가는 조선 목가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미감과 현대생활에 맞는 가구 및 조명 등을 나무와 한지를 이용해 만든다. 본전시에는 목조의 전통방식인 짜맞춤 구조와 한지에 옻칠을 입힌 한지 장판을 활용한 ‘법고창신 시리즈’를 선보인다.

**조하나**는 모시라는 전통소재를 이용해 천연염색과 바느질로 완성한 섬유 오브제 ‘봄 향기’를 전시한다. 작가는 전통소재의 현대적 미감을 바탕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변용시킨 섬유공예의 현대적 해석을 보여준다.

**김덕호**는 고려청자에 나타난 연리문 기법과 조선백자의 표면 장식법인 면 치기를 활용한 현대 백자, ‘흔적’을 소개한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되던 백자의 원료를 공급했던 도시, 양구에서 작업하는 작가는 소재, 기술, 표현 등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해법을 연구하는 젊은 도예가이다.

**이가진**은 재료의 물성에 대한 집요한 연구로 현대기술 수준과 감성을 자극하는 청자 ‘순간의 영원’을 선보인다. 청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전통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작가의 창조적인 힘과 노력이 돋보인다.

**고보경**의 ‘부드러운 조각’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쓰던 전통 종이인 ‘한지’로 만든 오브제이다. 정물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한지사 즉, 종이로 만든 실을 이용해 코바늘뜨기로 형태와 장식을 표현했다.

공예는 인류문명 속에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의·식·주로 대표되는 물질문화(物質文化)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매체이다. 또한, 문화의 뿌리와 함께 오늘의 현실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삶의 형식이자 도구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이 일상인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탈 감각, 소통 부재, 공감 능력 결여 등 사회적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본전시를 통해 물질성을 바탕으로 전통적 기술과 소재 그리고 작가들의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와 소통, 경험과 감각체험, 친환경 등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경험을 공유해 온 한·중·일 삼국의 공생공락(共生共樂)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韩国工艺，传统与创新之旋律

展览总监 **林美善**

朝鲜末期思想家朴趾源(1737-1805; 字仲美, 号燕岩)所提出的“法古创新”, 指温习传统的精华, 开创一个全新的文化。换言之, “创新”理应根据传统, 紧随时代日新月异, 跟进社会千变万化, 对过去进行全新诠释, 继续传承文化底蕴。由此可见, “法古创新”的本义在于“文化基础”和“创新力量”之和谐均衡。

本展览之中, 我们试图介绍可探索“韩流”所蕴含的韩国文化之历史基因的现代工艺美术品。我们选择具有历史性价值、采用传统材料、蕴含着深厚现代性和作家独有诠释的作品, 展现韩国工艺美术的**传统、创新以及均匀而和谐之美**。

本展览共展出陶瓷金属、木漆、纤维和玻璃工艺领域的17件作品。我们挑选出15位享誉国内外的艺术家。每位艺术家都在持续研究技术和材料, 深化其独创的审美性和造型性。我们期待本次展览能让我们思考、新的造型实践究竟从何而来又从何而去, 探索如何超越时空表达出永恒的个性。展览将通过基础深厚的韩国工艺家的作品, 介绍人与自然和谐相处的韩国工艺理念、富有传统性和现代性的“旧本新参”制作方法, 拓宽我们对同时代韩国工艺特征的了解。

**郑解朝**的《黑光律 2201》是“夹纻胎”漆品。“夹纻胎”是使用从漆树提取的材料“漆”, 在铺多层铺设的麻布上涂漆灰, 反复多次, 成了胎体后, 再次涂漆的漆品制作方法。作品通过表面的神秘光反射, 表现出匠人对材料、形式和色彩本质的深入探索, 并让我们联想到旋律、风和波浪等自然现象。作品形式简单、色彩迷人, 不同角度呈现不同颜色, 让我们深深体会到“漆”独有的审美体验。漆树只在亚洲地区栽培, 并且“漆”由于在中日韩三国广泛应用, 可谓是东北亚共同材料、共同媒介。

**孙大炫**的《牡丹唐草文函》是以贝壳薄片作为镶嵌纹绣的“螺钿漆器”。以绚丽彩虹色为代表的螺钿可追溯到1200多年前, 盛行于高丽王朝, 到朝鲜王朝时期则开始采用质朴写实的表现手法。“唐草纹”在中国也相当流行, 常见于陶瓷、金属等工艺品, 代表着生生不息、长寿繁荣的寓意。作品以简化的牡丹唐草纹为特征, 使用“锯纹法(用钢丝锯沿着纹样轮廓线锯出螺钿)”和“打拨法(用锤子将螺钿贴嵌入漆底)”等技艺, 在简单木器涂朱漆, 镶嵌华丽螺钿图像而成。

**权大燮**的《白瓷大壶》是形容静静夜晚照着大地的圆月, 表现出非定型的形态美、雅致漂亮的美感以及现代的抽象性。《月亮壶》是采用传统轮制法, 将泥团拉制成上下两部后, 组合而成。作品造型不夸张、装饰节制, 展现出韩国工艺美术独有的“和谐、均衡之美”。

**朴京淑**是一位陶瓷艺术家, 也是一名工艺爱好者。她根据自己在日常生活中实践工艺文化的经验, 表达工艺在提高生活质量方面的真正价值。作品《做我的客人(邀请)》利用她47年来收集的中日韩三国工艺品, 以空间构图为形式, 提供比较和欣赏三国工艺文化的机会。

**金荣玉**的《花的记忆》是一件锻造银器。锻造是因为能提高金属致密性和强度, 广泛应用于金属工艺的制造技术。匠人以用于制作加热酒或茶的水壶和火炉的传统工艺为基础, 对传统的器形和用途进行诠释, 创造出精致典雅的日常生活用具。

**崔成在**的《心景》采用别具一格的绘画形式, 在瓷胎上涂一层“化妆土”后, 涂层尚未干燥时手画处理, 最大限度地展现粉青瓷器特有的自由形式和绘画风格。粉青瓷出现于朝鲜王朝前150年, 作为从青瓷到白瓷的过渡形式, 展现出韩国陶瓷工艺的灵活性和创新性。匠人大胆地摆脱传统粉青瓷器的形式和表现手法, 尝试富有创新性的表现技艺, 自若而细致地描绘着常见于传统绘画和陶瓷作品的自然景象, 如溪边的树木、草丛和鸭子等。

**金僞龍**の《染于草绿》是通过玻璃吹制技法（用一个罐子插入加热融化的玻璃，不停地吹气使材料膨胀而成型）成型后，打磨厚玻璃表面而成。作品根据对玻璃物性（膨胀率、熔点和强度等）的了解，以自然为主旨，实现其独有的形态美，展现出玻璃工艺独有的透光性、色彩感和造型性。

**李瑟己**作为装置艺术家，对传统谚语进行全面的诠释，以谚语为符号进行设计，与统营市拼布大师趙盛然合作，创作出拼布被子系列。此现代工艺作品展现出传统工艺、现代美学和语言游戏相结合的独特风格。

**李相协**的《瓮》采用现代和传统的锻造技术，由一片银打制而成。匠人在高温之下用心捶打而制的瓮器，表面带有神秘锤纹，似乎响着叮叮当当的锤击声，让我们自然而然地融入到漫长的工作过程。

**金贤珠**的《画圆》是将螺钿贴入铜器后，涂漆而成的铜胎螺钿漆器。匠人将铜片捶打成圆形，再用螺钿漆器最古老的制作技术“割切法”，割切稍带神秘蓝色的螺钿片，粘贴于表面而创作出作品。优质材料、高超技艺、匠人的现代感和品味融为一体，展现出别具一格的风格。

**权元憲**师从全罗北道第19号“无形文化财”小木匠趙錫珍，学习传统木造技术，后在弘益大学研究生院木造型家具系深入研究现代设计。他基于对朝鲜木家具的深入研究和诠释，以木材和韩纸等为材料，创作出具有自己独特美学的现代生活家具和灯具。本展览展示的《法古创新系列》均采用传统榫卯结构，以韩纸上面涂漆的油纸为材料而成。

**赵Hana**的纤维工艺品《春香》，是将传统材料苧麻布用天然植物染色后缝制而成。匠人以现代审美为基础，将传统材料从平面转向立体，展现纤维工艺的当代诠释。

**金德鎬**创作出现代白瓷《痕迹》，采用高丽青瓷的“练理纹”技法和朝鲜白瓷的“削面成角”装饰技法。这位年轻艺术家在曾为朝鲜王朝贡窑生产原料的江原道杨口郡，持续探索在材料、技术和表现等领域传统和现代可融为一体的解决方案。

**李嘉珍**根据对材料物性的深入了解，创作出展现富有现代技术内涵和感性的青瓷作品。《瞬间的永恒》通过匠人富有现代性的诠释，体现传统文化的创造性转化。

**高甫旻**的《柔软的碎片》是将用于书写或绘画的“韩纸”制作成纸绳后，用钩针编织而成。本作品的独特风格，让人联想到一副写实的静物画。

工艺美术在人类文明发展的进程之中，作为一个重要的精神媒介，体现“衣食住行”所代表的物质文化。它既是生活形式，又是生活工具，让我们深入观察到现实世界和文化根源。新冠病毒爆发以来，远程交流成为社会新常态，导致种种新问题，如情感淡漠、缺乏沟通能力和缺乏共情能力等。

我们希望本次展览能够让我们根据“物质性”，在传统技术和材料、作品所蕴含的诠释等领域进行沟通交流，分享各自经验与情感，摸索文化价值和未来愿景。此外，我们衷心希望本次展览能够为在悠久交流历史之中已分享到不少文化艺术经验的中日韩三国，提供对话和交流的机会。

## 韓国工芸、 伝統と革新のメロディー

展示監督 イム・ミソン(林美善)

「**法古創新**」は、パク・ジウォン（朴趾源、号は燕巖:1737-1805)の言葉で、昔の物事に倣い新しい物事を創造するという意味だ。言い換えれば、伝統に基づいているので、時代的そして社会的変化に合わせて応用し、再解釈し、現代化することになっても、本来のペースを失わないという意味だ。従って、過去から現在に続く、「**文化的土台**」と時代の状況に適した新しいモノを作り出す「**クリエイティブな力と努力**」がバランスと調和をなすという意味を象徴的に表している。

今回の展示では、「韓流」に基づいた韓国文化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特質を見ることができ、現代工芸品を紹介することに努めた。特に、歴史的価値と伝統的な素材、そして作家別解釈を基に、現代性を示す作品を通じて、韓国工芸の**伝統的であり、革新的な面と均衡と調和の「美**」を展示しようとした。

展示は、陶磁、金属、木漆、繊維、ガラス工芸分野において国内外で評価されている15人の作家の作品17点で構成された。絶え間ない技術的、材料的研究を基に自分だけの独創的な美感和造形力を示す代表的な作家を選りすぐった。作家たちの新しい造形作業がどんな伝統工芸技術から出発したのか、そして、時間を超越してどのように自分だ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して現わすのかを見ることができる貴重な場となるだろう。また、自然との親和性と調和の中で伝統的でありながら現代的な「**旧本新参**」（古い制度を基に新しい物事を加味する）の製作方法論にこだわる韓国工芸家らの作品を通じてその根が深く硬い同時代の韓国工芸の特質を確認する機会となることだろう。

**チョン・ヘジョ（鄭解朝）**の「黒光律 2201」は、漆の木から樹液を採取した漆という材料を利用し、麻布を何層にも胎を作り、重ね塗りする夾紵胎方式で製作された。材料、形態、色彩の本質を探究してきた作家の造形世界を示すこの作品は、表面の光の反射を通じて現れる旋律、風、波を連想させる。単純だが、華麗な形態と深みの知れない色合いが特徴で、鑑賞者の位置や角度によって異なって見える。漆でなければ到底経験できないことだ。特に、漆はアジア圏でしか栽培されず、韓国と中国、日本の漆塗りが代表的で、北東アジアの三国が共有する代表的な素材であり媒体である。

**ソン・デヒョン（孫大炫）**の「牡丹唐草文箱」は、アワビやサザエなどの貝片を利用して文様を作った後、漆塗りの螺鈿漆器である。玉のように美しい虹色の螺鈿は、1200年前から製作され、韓国の高麗時代に開花し、朝鮮時代には素朴で写実的な表現になった。唐草文様は、中国でも好んで使われた文様で陶磁、金属など、伝統遺物を見るとよく表現されており「生命と繁栄」を祈願する意味を持つ。簡略化された牡丹唐草文を特徴としており、貝片を切る切抜法とハンマーで叩いて表面に装着させる打抜法などを利用して製作した「牡丹唐草文箱」は、シンプルな形態に煌びやかな螺鈿装飾で飾り付け、赤い朱塗りを塗った秀逸さが際立つ逸品だ。

**クォン・デソプ（權大燮）**の「白磁大壺」は、世界中のどこでも誰にでも照らす夜空の満月を象徴的に表した作品だ。不定形の形態美と白的美感、そして現代的抽象性が出会い、世界の人々から愛される「タルハンアリ（丸壺）」は、上部と下部を別々にロクロ成形してから後でくっつける伝統的な方法で作られた。形態は誇張されず、装飾は節制するという、バランスと調和を重視する韓国工芸のユニークな美しさを示す代表作である。

**パク・キョンスク (朴京淑)** は、陶芸家であり工芸愛好家として日常的に工芸文化を実践してきた自分の経験を踏まえ、暮らしの品格を高める工芸の真の価値を話す。これまで47年間収集した作家の日中韓の工芸所蔵品を活用した「ピーマイゲスト(招待)」は、空間構成を通じて演出した作品で、三国の工芸文化を比較鑑賞するチャンスを提供する。

**キム・ヨンオク (金榮玉)** の「花々の記憶」は、金属の粒子を細かく作って強度を高める鍛造技法で作られた銀器だ。作家は、酒や茶を温める用途のヤカンや火鉢を作る時に主に使われる伝統技法を基に伝統器形と用途を応用し、再解釈して暮らしの中で活用される洗練されていて品のある日用品を製作する。

**チュ・ソンジェ (崔成在)** の「心の風景」は、粉青沙器の特徴である自由な形式と絵画的な表現を最大化した作品だ。特に、化粧土を塗り、表面が乾く前に手書きで素早く処理した絵画性が際立つ。朝鮮前期の150年間という短期間で消えてしまった粉青磁は、青磁から白磁にシフトしていた時期に登場した韓国陶磁器の柔軟な応用力と創意的な発想を示す伝統陶磁器の一つだ。伝統的な粉青沙器の形式と表現を果敢に脱ぎ捨て新しい表現を試みる作家は、小川のほとりの木や草、アヒルなど、伝統絵画や陶磁器に込められた韓国の日常的な自然の風景を無頓着なように繊細に書き表した。

**キム・ジュニョン (金偶龍)** の「緑に染まる」は、液状ガラスを吹き竿に巻き取り、息を吹き込んで形を作るブローイング技法と、厚いガラス表面を研磨して完成させた華麗な形態と色合いを見せてくれる作品だ。ガラスという物性の膨張率、溶融点、強度など、蓄積された素材や技術に対する高い理解力をもとに自然をモチーフとして完成された形態美と共に光の透過性を最大化させたガラス工芸の真髄を示してくれる。

**イ・スルギ (李瑟己)** は、伝来の格言を記号として表現した一人用の「ヌビ(刺し子)」布団シリーズを本展示において披露する。インスタレーション・アーティストであるイ・スルギの概念的解釈とデザインをもとにトンヨンの「ヌビ(刺し子)」職人であるチョ・ソンヨン(趙盛然)が縫ったこのコラボ作品は、伝統工芸技術と現代的美感そして言語遊戯が加わった実用のモノとして美しくも使いやすいレベルの高い現代工芸品である。

**イ・サンヒョプ (李相協)** の「壺」は、ハンマー1つで銀板を叩いて形を作る鍛造と伝統の方字鋳器技法を混用して作った作品だ。高温の熱と数千回のハンマー叩きで整えられた伝統甕器の器形をもとに大型のシンプルな形態の上に波打つ水面のように輝くハンマー跡を通じて作家の華麗なハンマー捌きの音と共に長い作業過程を想像させる。

**キム・ヒョンジュ (金賢珠)** の「円を描く」は、金属に貝片を装着させて漆で仕上げた金胎漆器である。この作品は、金属板をハンマーで叩いて丸い形を作り、その上に螺鈿漆器の最も古い製作技法である切削法で青みがかかった玲瓏な貝片を1枚ずつ切って器物の表面に装着させた。高級素材と高い技術力、作家の現代的な感覚と趣向が加えられたオリジナリティ豊かな金属工芸品だ。

**クォン・ウォンドク (權元憲)** は、全羅北道無形文化財第19号チョ・ソクジン(趙錫珍) 小木匠(木の職人)から伝統の木造技術を学んだ後、大学院コースの木造型家具学科で、現代デザインを研究した。作家は、朝鮮時代の木家具について深く研究したことで解釈をもとに自分だけの固有の美感和現代の暮らしに合った家具や照明器具などを木や韓紙を利用してつくる。本展示では、木造の伝統方式である木組み構造と韓紙に漆を塗った韓紙床シートを活用した「法古創新シリーズ」をお披露目する。

**チョ・ハナ (趙 Hana)** は、麻という伝統素材を利用して、天然染色と裁縫で完成させた繊維オブジェ「春の香り」を展示する。作家は、伝統素材の現代的な美感和もに平面から立体に変容させた繊維工芸の現代的な解釈を示してくれる。

**キム・トクホ (金徳鎬)** は、高麗青磁に現れた練理文技法と朝鮮白磁の表面装飾法である面取りを活用した現代の白磁、「痕跡」を紹介する。朝鮮王室で使われていた白磁の原料を供給していた都市、ヤングで作業している作家は、素材、技術、表現など、伝統的でありながら現代的な解決法を研究する若い陶芸家だ。

**イ・ガジン (李嘉珍)** は、材料の物性に対するこだわりの研究で現代技術の水準と感性を刺激する青磁「瞬間の永遠」をお披露目する。青磁の現代的解釈を通じて、伝統を新しく変化させていく作家のクリエイティブな力と努力が際立つ。

**コ・ボキョン (高甫昶)** の「柔らかな彫刻」は、文章を書いたり絵を描くのに使われていた伝統紙である「韓紙」で作ったオブジェである。静物画を連想させる作品で、韓紙糸、つまり紙で撚った糸を利用してかぎ針編みの形態と装飾を表現した。

工芸は、人類文明のなかで人間の暮らしを構成する衣食住に代表される物質文化を最もよく表している媒体だ。また、文化のルーツと共に今日の現実世界を深く調べてみる事ができる暮らしの形式であり、ツールでもある。特に、最近コロナ禍以降、非対面が日常となったデジタル化社会において、脱感覚、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不在、共感力の欠如など、社会的葛藤や悩みが多くなる時期である。

本展示を通じて物質性をもとに伝統的技術や素材、そして作家たちの新しい解釈や表現を通じて今日私たちに必要な対話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経験や感覚体験、エコフレンドリーなど、社会的そして文化的価値や未来を共有する大切な機会になることを願う。これと共に長い歴史の中で、多様な文化的・芸術的経験を共有してきた日中韓三国の共生共楽のための対話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になることを切に願う。

최성재  
崔成在  
チェ・ソンジェ

1962년생.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성재는 조선 초에 제작되었던 분청사기 양식에 현대적 시각을 가미하여 자유분방하고 속도감 있는 드로잉을 선보여온 작가이다. 중국,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등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해 한국 분청사기의 미감을 알렸고 미국 알프레드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30회가 넘는 개인전을 열었으며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중국 국제도자예술센터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62年生まれ。弘益大学と同大学院で陶芸を専攻し、現在韓国传统文化大学伝統美術工芸学科で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る。チェ・ソンジェは、朝鮮時代初期に制作されていた粉青沙器様式に現代の視点を取り入れ、自由奔放で、スピード感のあるドローイングを披露してきた作家だ。中国、日本、イタリア、アイルランド、フランス、米国などで開かれた展示に出展し、韓国の粉青沙器の美感を発信し、米国のアルフレッド大学では招へい教授として学生を指導した。30回を超える個展を開き、ソウル国立現代美術館、フィラデルフィア美術館、中国陶器芸術センター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마음풍경  
心景  
心の風景  
자토  
瓷土  
左: 52×15×70(h)cm  
右: 52×18×65(h)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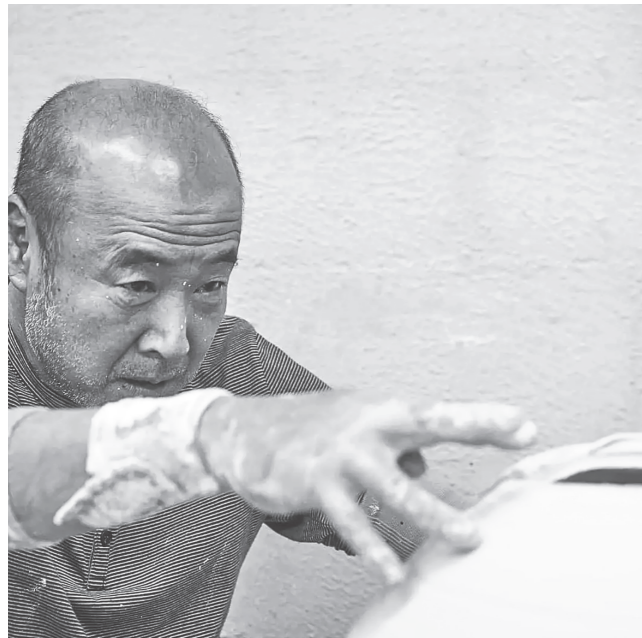


권대섭  
权大燮  
クオン・デソプ

1953년 대전에서 태어난 권대섭은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후 일본 규슈로 건너가 도자를 배웠다. 형태가 보름달을 닮아 ‘달항아리’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백자를 주로 제작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도예가이다. 1995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도쿄, 베이징, 뉴욕, 프랑스 등에서 다수의 달항아리를 선보였다. 권대섭의 작품은 2013년 밀라노, 2015년 파리장식미술관 등에서 한국 공예를 세계에 알리는 전시에 주요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벨기에와 국내 여러 기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영박물관, 러시아 국립박물관, 멕시코 국립박물관, 리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53年出生于大田，毕业于弘益大学绘画系，后前往日本九州学习陶瓷艺术。他是韩国当代著名陶瓷艺术家，主要创作形似满月而被称为“月亮罐”的朝鲜时代白瓷。自1995年首次举办个展以来，他已在东京、北京、纽约和法国展出了许多“月亮罐”。他曾多次参加工艺美术展览，向世界推广韩国工艺美术，如2013年意大利米兰和2015年巴黎装饰艺术博物馆的展览。权大燮曾在比利时和韩国的多家机构举办个展，其作品被大英博物馆、俄罗斯国家博物馆、墨西哥国立博物馆和韩国Leeum美术馆收藏。

1953年韩国大田(テジョン)で生まれたクオン・デソプは、弘益(ホンイク)大学の絵画科を卒業後、九州に渡り陶磁を学んだ。形が満月に似ており、「タルハンアリ(月壺丸壺)」と呼ばれる朝鮮時代の白磁を主に制作する韓国の代表的な現代陶芸家である。1995年をはじめて個展を開き、東京、北京、ニューヨーク、フランスなどで多数の月壺を出展した。クオン・デソプの作品は、2013年ミラノ、2015年パリ装飾芸術美術館などで韓国工芸を発信する展示では、主要作品として紹介された。ベルギーや韓国の様々な機関で個展を開き、大英博物館、ロシア国立博物館、ロシア国立博物館、メキシコ国立博物館、リウム美術館など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백자대호(달항아리)  
白磁大壺  
자토  
瓷土  
42×47×59(h)cm  
2022



이가진  
李嘉珍  
イ・ガジン



순간의 영원  
瞬间的永恒  
瞬間の永遠

자토  
瓷土  
左: 141×4×56.5(h)cm  
右: 141×4×57(h)cm  
2021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가진은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하였다. 특유의 맑은 푸른빛이 담긴 도자기를 제작하는 이가진은 201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예술 공예 비엔날레 <헤벨라시옹>, 201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021 밀라노 디자인위크 <한국공예전: 사물을 대하는 태도> 등 국내외 전시에서 활발히 참여 중이다. 2021 서울 조은속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파엔차 국제도자박물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경기도 세계도자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85年出生于首尔，曾在首尔大学本科、研究生院就读陶瓷专业。她主要创作青色陶瓷作品，曾参加过2017年法国巴黎国际工艺创新双年展《Révélations》、2019年清州国际工艺双年展和2021年意大利米兰设计周《韩国工艺展：对待事物的态度》。2021年，她在首尔Choeunsook画廊举办了个展，其作品被法恩扎国际陶瓷博物馆、爱茉莉太平洋美术馆和京畿道世界陶瓷博物馆收藏。

1985年ソウルで生まれたイ・ガジンは、ソウル大学と同大学院で陶芸を専攻した。特有の澄んだ青みがかった光沢のある陶磁器を制作するイ・ガジンは、2017年フランス・パリで開催された芸術工芸ビエンナーレ<レベレーション>、2019清州(チョンジュ)国際工芸ビエンナーレ、2021ミラノデザインウィーク<韓国工芸展：モノに接する態度>など、国内外の展示に活発に出展している。2021ソウル・チョウンスク・ギャラリーで個展を開き、ファエンツァ国際陶磁博物館、アモーレパシフィック美術館、京畿道(キョンギド)世界陶磁博物館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 김덕호 金德鎬 キム・トクホ

1985년생.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김덕호는 한국 도자의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 백자의 장식적 표현을 실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구백자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부임하였으며 질 좋은 백토 생산지인 양구에서 활동 중이다. 2014년 런던 콜렉트, 2016년 뮌헨 한국공예디자인전, 2017년 일본 코게이 아트페어 등 여러 국가의 전시와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알렸으며, 서울공예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 한국공예관 등 공예 관련 기관에서 개최하는 여러 전시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덕궁 규장각, 런던 빅토리아 앤앨버트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85年出生, 曾在首尔大学本科、研究生院就读陶瓷专业, 现任杨口白瓷研究所首席研究员。他尝试着韩国传统陶瓷制作技术和现代白瓷装饰表现形式。金德鎬曾参加过多次海外展览, 如2014年London Collect工艺设计博览会、2016年慕尼黑韩国工艺设计展和2017年日本工艺展览 (Kogei Art Fair) 等。此外, 他还参加首尔工艺博物馆、杨口白瓷博物馆、韩国工艺馆等国内机构举办的国内展览。他的作品被韩国国立现代美术馆、昌德宫奎章阁、伦敦维多利亚与艾尔伯特博物馆收藏。

1985年生まれ。ソウル大学と同大学院で陶芸を専攻したキム・トクホは、韓国陶磁の伝統技法や現代白磁の装飾的表現を実験する作業をしている。楊口白磁研究所の主任研究員として赴任し、質の良い白土生産地である楊口で活動している。2014年ロンドン『コレクト』、2016年ミュンヘン『韓国工芸デザイン展』、2017年『日本工芸アートフェア』など、さまざまな国の展示やアートフェアに作品を出展し、ソウル工芸博物館、楊口(ヤング)白磁博物館、韓国工芸館など、工芸関連機関で開催する多くの展示に出展している。国立現代美術館、昌徳宮奎章閣、ロンドン・ビクトリア&アルバート博物館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흔적  
痕迹  
痕跡  
자토  
瓷土  
31.5×31.5×39.5(h)cm  
2023





김준용  
金僑龍  
キム・ジュニョン

1972년생. 국민대학교 공예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교에서 유리조형을 전공한 김준용은 현재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 최초 블로잉 스튜디오를 만들어 한국 유리공예 발전에 이바지한 김준용은 2021년 KCDF 주관 ‘올해의 공예상’ 창작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2021 <상하이 국제 전통예술 초청전>, 2017 런던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로에베 공예전>에 참여하였고 서울의 노블레스컬렉션, 갤러리 마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작품은 미국 크라이슬러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1972年出生, 毕业于国民大学工艺系, 后在美国罗切斯特理工学院攻读玻璃雕塑专业, 现任清州大学工艺设计系教授. 他在韩国创建第一家玻璃吹制工作室, 为韩国玻璃艺术的发展做出了重大贡献, 到2021年获得韩国工艺设计文化振兴院 (KCDF) 的“年度工艺奖”. 金僑龙参加过多次海外展览, 如2021年上海国际传统艺术邀请展、2017年英国伦敦设计博物馆罗意威 (Loewe) 工艺展等. 此外, 他还在首尔 Noblesse Collection画廊、Gallery Mano举办过个人展览. 他的作品被美国克莱斯勒艺术博物馆和韩国国立现代美术馆收藏.

1972年生まれ. 国民(クグミン)大学工芸科を卒業し、米国立ロチェスター工科大学でガラス造形を専攻したキム・ジュニョンは、現在清州(チョンジュ)大学工芸デザイン科の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る. 韓国初のブローイング・スタジオを作り、韓国のガラス工芸発展に貢献したキム・ジュニョンは、2021年 KCDF 主管「今年の工芸賞」創作部門で受賞した. 2021 <上海国際伝統芸術招待展>、2017 ロンドン・デザインミュージアムで開かれた<ロエベ工芸展>に出展し、ソウルのノブレス・コレクション、ギャラリーマノで個展を開いた. 彼の作品は、米国のクライスラー美術館と国立現代美術館に收藏されている.



초록에 물들이다  
染于草綠  
綠に染まる  
유리  
玻璃  
ガラス  
47×47×31(h)cm  
2023



# 이상협 李相協 イ・サンヒョプ

1973년에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상협은 엑서터 예술대학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수료하고 런던예술대학교 켈버웰 컬리지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다. 주로 은을 망치로 두드려 기(器)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이상협은 영국 골드스미스 컴퍼니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8년 뮌헨 <실버트리엔날레>, 2019년 도쿄 <한국 공예의 법고창신 - 수묵의 독백> 그리고 2021 <서울국제조각페스타>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런던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 에버딘박물관, 필라델피아 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73年出生，曾在埃克塞特艺术学院就读预科课程，后在伦敦艺术大学坎伯韦尔学院攻读金属工艺专业。他创作主要采用将银片捶打成器型物的形式，在英国金匠公司主办的大赛获得大奖，并曾参加过多次国际展览，如2018年慕尼黑黑银器三年展、2019年东京《韩国工艺的法古创新-水墨的独白》和2021年首尔国际雕塑节。他的作品被英国伦敦维多利亚与艾尔伯特博物馆收藏。

1973年に生まれ、英国で活動をはじめたイ・サンヒョプは、エクスター芸術大学でファンデーション課程を修了し、ロンドン芸術大学カンバーウェル・カレッジで金属工芸を専攻した。主に銀をハンマーで叩いて器をつくるイ・サンヒョプは、英国ゴールドスミス・カンパニーが主催する大会で受賞したことで名を知られた。2018年ミュンヘン<シルバー・トリエンナーレ>、2019年東京<韓国工芸の法古創新～水墨の独白>、そして2021<ソウル国際彫刻フェスタ>に出品し、ロンドン・ビクトリア&アルバート博物館、アバディーン博物館、フィラデルフィア博物館など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동  
금  
壺  
순은  
純銀  
純銀  
31×31×41.5(h)cm  
2022



김영옥  
金榮玉  
キム・ヨンオク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김영옥은 현재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단아하고 정교한 은기 작업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옥은 2021년 청주공예비엔날레 본 전시와 같은 해 서울 스페이스 금채에서 열린 <색다름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기념 한국공예전 <기량의 예술>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서울 가나아트센터와 노블레스 컬렉션 등 여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진주시립미술관과 한국화장품 박물관, 대구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59年出生于首尔，曾在弘益大学本科和研究生院就读金属工艺，现任弘益大学金属雕塑设计系教授。她以典雅精致的银器风格而闻名，曾参加过2021年清州工艺双年展的主要展览、同年首尔Space KeumChae的展览《色·别样展》，并在首尔Gana艺术中心和Noblesse Collection等多家画廊举办个展。她的作品被晋州市立美术馆、韩国化妆品博物馆和大邱银行收藏。

1959年ソウルに生まれ、弘益大学と同大学院で工芸を専攻したキム・ヨンオクは、現在弘益大学金属造形デザイン科の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る。優美で精巧な銀器作業で有名になったキム・ヨンオクは、2021年清州(チョンジュ)工芸ビエンナーレ本展示と、同年ソウル・スペース・クムチェで開かれた<色違い展>に出展した。2018年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記念韓国工芸展<技の芸術>に出展し、ソウル・ガナアートセンターとノブレス・コレクションなど、さまざまなギャラリーで個展を開いた。晋州(チンジュ)市立美術館や韓国化粧品博物館、大邱銀行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꽃들의 기억  
花的记忆  
花々の記憶  
순은, 정은, 금  
纯银、丁银、金  
純銀、丁銀、金  
크기 다양  
大小多样  
サイズ多样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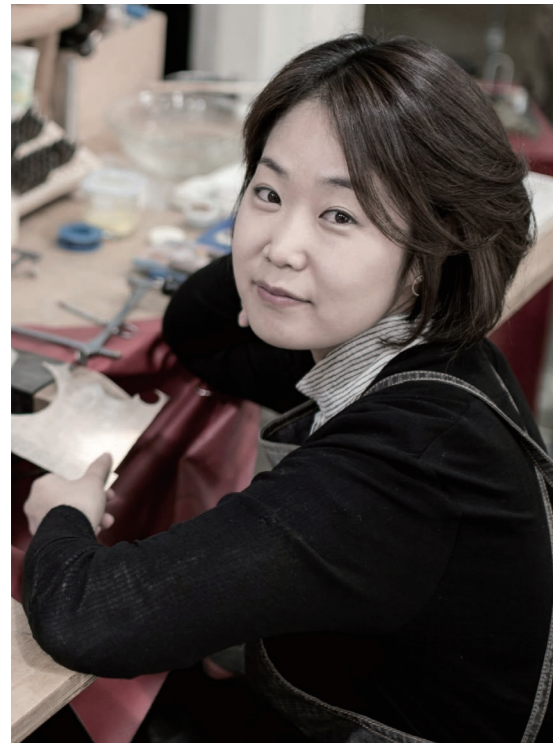


# 김현주 金贤珠 キム・ヒョンジュ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현주는 전남대학교에서 금속공예를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금태 칠기와 나전 기법을 배웠다. 현재는 전남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예술공예 비엔날레 <헤벨라시옹>에 초청되어 주목을 받았고 2017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현대공예페어 <트레저>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2016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실버국제트리엔날레 공모전에서 입상하였다. 최근에는 2022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2023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나전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런던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79年出生于首尔，曾在全南大学学习金属工艺，后在首尔大学研究生院攻读金属胎漆器和螺钿工艺，现任全南大学教授。她曾参加过2015年法国巴黎国际工艺创新双年展《Révélations》，2017年瑞士巴塞尔现代工艺展，并在2016年德国银器三年节竞赛中获奖。2022年，她在巴黎联合国教科文组织总部展示作品，到2023年在京畿道坡州市国立民俗博物馆螺钿展览展示作品。她的作品被纽约大都会艺术博物馆和英国伦敦维多利亚与艾尔伯特博物馆收藏。

1979年ソウルで生まれたキム・ヒョンジュは、全南(チョンナム)大学で金属工芸を勉強し、ソウル大学大学院で金胎漆器と螺鈿技法を学んだ。現在は全南大学の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る。2015年フランス・パリで開催された芸術工芸ビエンナーレ<レベレーション>に招待されてから注目を浴び、2017年スイス・バーゼルで開かれた現代工芸フェア<トレジャー>に出展した。2016年ドイツで開催された<シルバー国際トリエンナーレ>公募展で入賞した。最近2022年にはパリ・ユネスコ本部と2023韓国パジュ国立民俗博物館で開かれた螺鈿展示に出展し、ニューヨーク・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やロンドン・ビクトリア&アルバート博物館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원을 그리다  
画圓  
円を描く  
구리, 나전  
銅、螺鈿  
銅、螺鈿  
42×42×27(h)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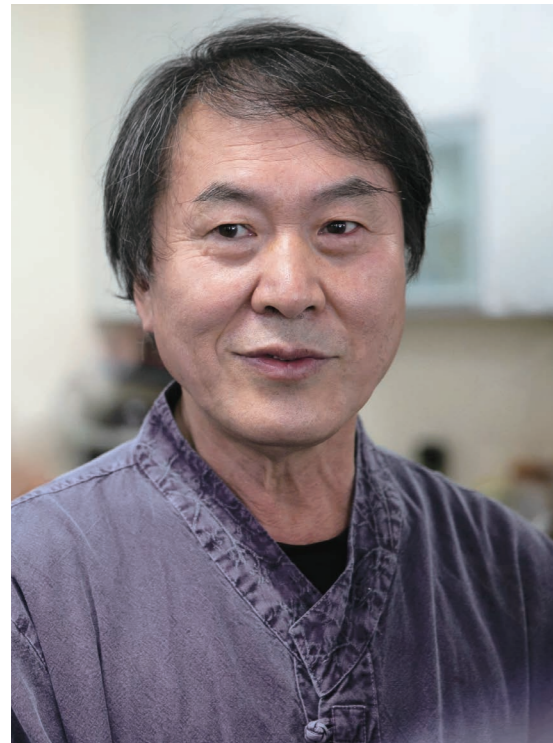


# 손대현 孙大炫 ソン・デヒョン

1950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손대현은 1968년 나전칠기 명장인 故수곡(守谷) 민종태 선생 아래서 각종 기술을 수련하며 나전칠기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제1호 나전칠기 명장, 서울시 무형문화재 1호 옷칠장으로 선정되었다. 2002년 나전칠기와 옷칠공예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고 2008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기념하여 응정 예술치유박물관 천정에 나전 칠화를 제작했다. 프랑스,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등 각국의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전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한국의 나전칠기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 그의 작품은 로마 교황청, 국립민속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50年出生于黄海道, 1968年师从已故的螺钿漆器大师闵钟泰先生(号守谷), 继承朝鲜螺钿技艺, 后被选为第一号螺钿漆器名匠、首尔市无形文化财第一号漆匠。2002年他因螺钿漆器和漆器工艺贡献于国家产业, 被授予“铁塔产业勋章”, 到2008年为纪念教皇方济各访韩而创作螺钿漆画, 赠予瓮青艺术博物馆。他多次参加驻多国韩国文化院举办的国际展览, 在法国、日本、美国、俄罗斯、德国和英国等地推广韩国螺钿漆器的美学。他的作品被罗马教皇厅和韩国国立民俗博物馆收藏。

1950年黄海道(ファンヘッド)で生まれたソン・デヒョンは、1968年螺鈿漆器の職人である故ミン・ジョンテ(号は守谷)先生のもとで各種の技を修練し、螺鈿漆器の伝統を継承し、第1号螺鈿漆器名匠、ソウル市無形文化財第1号漆塗匠に選定された。2002年螺鈿漆器と漆塗工芸で国家産業発展に寄与した功績で鉄塔産業勲章を受章し、2008年フランシスコ教皇の韓国訪問を記念し、「オンチョン芸術癒し博物館」の天井に螺鈿漆画を制作した。フランス、日本、米国、ロシア、ドイツ、英国など、各国の韓国文化院が開催する展示に地道に出展し、韓国の螺鈿漆器を世界に発信する役割をした彼の作品は、ローマ教皇庁、国立民俗博物館などに収蔵されている。



모란당초문함  
牡丹唐草文函  
牡丹唐草文箱  
나무, 나전  
木、螺鈿  
木、螺鈿  
中: 40×27×22(h)cm  
大: 58×34×32(h)cm  
2023



# 정해조 郑解朝 チョン・ヘジョ

194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난 정해조는 홍익대학교에서 목칠공예를 전공하였고 현재 배재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옥천에 옷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옷 산업 지역 특구’로 지정 되는데 일조하는 등 한국의 옷칠 공예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5년 파리장 식미술관에서 개최된 한불수교기념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 등 한국 공예를 세계에 알 리는 주요 전시에 참가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훈장(옥관)을 받았다. 2016년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국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한국공예디자인전>에 참여하 였고, 바이에른 디자인에서 수여하는 ‘바이에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1 국립중앙박물 관, 2022 리움미술관 등 국내에서도 활발히 신작을 선보이는 정해조의 작품은 메트로폴리 탄미술관, 대영박물관,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45年出生于忠清北道沃川郡，曾在弘益大学就读木漆工艺，现为培材大学名誉教授。他在沃川建立漆树种植园，帮助沃川郡被指定为“漆器产业特区”，并为韩国漆器 工艺的发展奠定了基础。2015年他参加巴黎装饰艺术博物馆举办的韩法建交纪念展 《Korea Now》，向世界推广韩国工艺美术，并获得国家认可，被授予韩国文化勋章 玉冠。2016年他参加德国慕尼黑巴伐利亚国家美术馆《韩国工艺设计展》，获得巴 伐利亚设计所授予的“巴伐利亚大奖”。最近，他还积极展出新作品，如2021年在国 立中央博物馆和2022年在Leeum美术馆等，其作品被大都会美术馆、大英博物馆和 维多利亚与艾尔伯特博物馆等收藏。

1945年忠清北道(チュンチョンブクド)沃川(オクチョン)に生まれたチョン・ヘジョ は、弘益大学で木漆工芸を専攻し、現在ペジュ大学の名誉教授だ。沃川に漆の木栽 培団地を造成し、「漆産業地域特区」として指定されるのに一助するなど、韓国の漆 塗工芸が発展できる基盤づくりをした。2015年パリ装飾芸術美術館で開催された 韓仏修交記念韓国工芸展<コリア・ナウ!>など、韓国工芸を世界に発信する主な展 示に出展し、これらの功労が認められ、大韓民国文化勲章(玉冠)を受章した。2016 年ドイツ・ミュンヘンのバイエルン国立美術館で開催された<韓国工芸デザイン展 >に出展し、バイエルン・デザインが授与する「バイエルン大賞」を受賞した。2021 国立中央博物館、2022 リウム美術館など、韓国でも活発に新作を披露するチョン・ ヘジョの作品は、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大英博物館、ビクトリア&アルバート博物 館などに収蔵されている。



나전광을 2203  
螺鈿光律 2203  
螺鈿光律 2203  
삼베, 나전  
麻布、螺鈿  
麻布、螺鈿  
71×71×70.5(h)cm  
2023



흑광울 2201  
黒光律 2201  
삼베, 옷질  
麻布、大漆  
麻布、漆  
75×15×179(h)cm, each  
2022



권원덕  
权元惠  
クオン・ウオンドク

권원덕은 1979년생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故조석진 소목장의 제자로 들어가 기술을 익히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8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마닐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개최된 <생활미학: 한-필 수교 70주년 기념 한국공예전>에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목가구를 알렸다. 전라북도 완주에 '농방'이라는 이름의 작업실과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권원덕은 2017 예올의 '젊은 공예인'에 선정되었고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부산 국가기록원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79年出生，曾师从已故的全罗北道无形文化财第19号小木匠趙錫珍先生，后在弘益大学研究生院获得木造型家具专业硕士学位。2018年，他在意大利米兰三年展中设计博物馆举办的《韩国工艺的法古创新》、马尼拉大都会艺术美术馆《生活美学：韩菲建交70周年纪念韩国工艺展》展示作品，推广韩国木家具的美学。2017年被选为“年度青年工艺家”的权元惠在全罗北道完州郡运营名为“农房”的工作室，其作品被金海木材文化博物馆和釜山国家记录院收藏。

クオン・ウオンドクは、1979年生まれで全羅北道(チョルラブド)の無形文化財第19号故チョ・ソクジン匠に弟子入りし、技を学び弘益大学大学院木造形家具学科で修士号を取得した。2018 ミラノ・トリエンナーレのデザインミュージアムで開かれた<韓国工芸の法古創新>、マニラ・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で開催された<生活美学：韓・フィリピン修交70周年記念韓国工芸展>に出展し、韓国の木家具を知らしめた。全羅北道完州(ワンジュ)に「ノンバン」という名のアトリエと展示スペースを運営しているクオン・ウオンドクは、2017 イェオルの「若い工芸人」に選ばれ、金海(キムヘ)木材文化博物館、釜山(プサン)国家記録院に作品が收藏されている。



법고창신 등 23-1, 23-2, 23-3  
法古創新 燈 23-1, 23-2, 23-3  
法古創新 燈 23-1, 23-2, 23-3  
벚나무, 단풍나무, 한지(한지장판지)에 옷칠  
櫻桃木、楓木、韓紙、大漆  
山桜、楓、韓紙に漆塗  
左: 47.5×47.5×140.5(h)cm, 2023  
右: 47.5×47.5×127(h)cm, 2021  
上: 34×34×34(h)cm, 2023





# 고보경 高甫晔 コ・ボキョン

1989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고보경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조선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 한지로 만든 실을 촘촘히 엮어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 2019년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서 공동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2년 한국문화재단 주최로 사직단 전사청(典祀廳) 권역을 복원하는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2022년 파리 예술공예 비엔날레 <헤벨라시옹>과 베네치아 국립 마르차나도서관 산소비노전시관에서 열린 <That's Korea - 한지>에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89年出生于光州广域市，曾在朝鲜大学美术学院攻读硕士博士学位，现任朝鲜大学客座教授。她主要以用韩纸作的纸绳为材料编织作品。2019年，她在清州国际工艺大赛获得联合大奖，到2022年参加韩国文化财团为修复社稷坛典祀厅区域而举办的展览、巴黎国际工艺创新双年展《Révélations》、威尼斯圣马可国立图书馆圣索维诺展厅《这是韩国-韩纸》，推广韩国韩纸的优秀性。

1989年光州(クァンジュ)市に生まれたコ・ボキョンは、朝鮮大学美術学部で修士・博士課程を修了し、現在朝鮮大学外来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る。韓紙を撚って作った糸で、細かく編んで形を作る作業を通じて、2019年清州(チョンジュ)国際工芸公募展で共同大賞を受賞した。2022年韓国文化財財団主催で社稷壇典祀廳圈域を復元させる展示に出展したこともある。2022年バリ芸術工芸ビエンナーレ<レベラシオン>とベニスの国立マルチャーナ図書館サンソヴィーノ展示館で開かれた<That's Korea-韓紙>に出展し、韓国韓紙の優秀さを発信している。清州工芸ビエンナーレ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부드러운 조각  
柔軟的碎片  
柔らかな彫刻  
한지, 옷질  
韩紙、大漆  
韓紙、漆  
크기 다양  
大小多样  
サイズ多样  
2023



# 조하나 赵Hana チョ・ハナ

1980년 세종에서 태어난 조하나는 충남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섬유공예를 전공하였다. 한국 규방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미감을 담은 구조적인 공예품과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주름장신구』(2015)의 저자이기도 하다. 2019년 세종시 공예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 넥스트크리에이터스 올해의 스타디자이너상을 수상한 바 있다.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2019년 소파 시카고 박람회, 2022년 예술북촌가에서 열린 20주년 전시 <치유와 다독임>, 같은해 싱가포르 글로벌 아트페어에 참여하였다. 청주 한국공예관과 런던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80年出生于世宗市，曾在忠南国立大学本科和研究生院就读纤维工艺，以韩国闺房文化为基础，创造出富有现代审美感的结构工艺品和装饰艺术品，著有《皱褶装饰（2015）》。2019年，她在世宗市工艺博览会上获得大奖，到2022年获得Next Creators“年度明星设计师奖”。她曾举办过12次个展，并参加2019年的芝加哥沙发展、2022年Yeolb北村家举办的20周年纪念展《治愈·安慰》以及同年新加坡全球艺术博览会。她的作品被清州韩国工艺馆和伦敦维多利亚与艾尔伯特博物馆收藏。

1980年世宗(セジョン)で生まれたチョ・ハナは、忠南大学と同大学院で繊維工芸を専攻した。韓国の閨房文化をもとに現代的な美感を織り込んだ構造的な工艺品とインスタレーション作品を披露しており、『チュルム(つまみ細工)装身具』(2015)の著者でもある。2019年世宗市工芸品大展で大賞を受賞し、2022年ネクスト・クリエイターズで今年のスターデザイナー賞を受賞したことがある。第12回の個展を開催し、2019年SOFAシカゴ博覧会、2022年イエオル北村家で開かれた20周年展示<癒しと励み>、同年シンガポールのグローバル・アートフェアに出展した。清州(チョンジュ)韓国工芸館とロンドンのピクトリア&アルバート博物館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봄향기  
春香  
春の香り  
모시  
苧麻布  
苧麻布  
80×100×20(d)cm  
2023



# 이슬기 李瑟己 イ・スルギ

1972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1990년대 이후 프랑스 파리에 거주해온 이슬기는 시카고 예술대학과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민속적인 소재들을 매체를 이용해 공예 뿐 아니라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이슬기는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에 선정되었다. 한국 뿐 아니라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달의 이면>전, 2023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개최한 <매일, 예술>전 등 여러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파리 국립 조형예술 및 그래픽예술 재단,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서울 리움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72年出生于首尔, 自上世纪90年代以来一直居住于法国巴黎, 曾就读于芝加哥艺术学院和巴黎国立高等美术学院。她采用民俗材料, 跨越艺术门类进行创作活动, 作品涉及到绘画、雕塑、装置艺术和工艺等领域。2020年, 她被韩国国立现代美术馆选为“年度艺术家”。李瑟己在韩国、法国、葡萄牙和比利时等地举办过多次个展, 并参加2014年光州双年展、2017年韩国国立亚洲文化殿堂《月之暗面》和2023年南首尔美术馆《每日·艺术》等展览。她的作品被法国国家图形与造型艺术组织、澳大利亚维多利亚国立美术馆和首尔Leeum美术馆收藏。

1972年生まれ。ソウルで生まれたが、1990年代以降はフランス・パリで暮らしているイ・スルギは、シカゴ美術館付属美術大学とパリ国立高等美術学校で修学した。民俗的な素材を媒体を利用し、工芸だけでなく絵画、彫刻、インスタレーション美術など、多岐のジャンルを駆けめぐるイ・スルギは、2020年国立現代美術館の「今年の作家賞」を受賞した。韓国だけでなくフランス、ポルトガル、ベルギーなどで多数の個展を開き、2014年光州ビエンナーレ、2017年国立アジア文化殿堂<月の裏面>展、2023年ソウル市立南ソウル美術館で開催した<毎日、芸術>展など、各グループ展に出展した。パリ国立造形芸術やグラフィック芸術財団、豪州ビクトリア国立美術館、ソウル・リウム美術館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U: 움츠리는 개구리**  
**U: 蹲着的青蛙**  
**U: うずくまる蛙**  
진주명주, 통영 누비장인과의 협업  
韩国絹、与統營紬縫匠人的合作  
韓国絹、統營刺縫い職人との協業  
155×195×1.0(d)cm  
2023



Seungi Lee © Adagp Paris, Courtesy Artist & Gallery Hyundai 2023



**U: 학수고대**  
**U: 鶴首苦待**  
**U: 一日千秋**  
 진주명주, 통영 누비장인과의 협업  
 韩国絹、与統營紵縫匠人的合作  
 韓国絹、統營刺縫い職人との協業  
 155×195×1.0(d)cm  
 2023

# 박경숙 朴京淑 パク・キョンスク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경숙은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일본 오사카예술대학교 문화예술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일본과 핀란드, 한국에서 15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박경숙은 2021년 청주공예비엔날레 본전시 및 전시연계 참여 프로그램인 '공예연회'를 진행하였다. 2014년 아일랜드에서 열린 <한국 현대도예특별전>,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메이드 인 코리아 순회전>, 2018년 중국대만 잉거도자미술관 <뉴 오리엔탈리아>전 등 국내외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아일랜드 체스터비티도서관, 중국 경덕진도자학원, 일본 규슈산업대학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1955年出生于釜山，曾在弘益大学本科和研究生院攻读陶艺专业，后在日本大阪艺术文化大学获得文化艺术系博士学位。她在日本、芬兰和韩国举办15次个展，并担任2021年清州工艺双年展主要展览活动及其后续活动《工艺宴会》的策展人。她曾参加多次国际展览，如2014年爱尔兰《韩国当代陶瓷特别展》、2016年《韩法建交130周年纪念展韩国制造巡回展》和2018年中国台湾莺歌陶瓷博物馆《新东方》等。

1955年釜山(부산)で生まれたパク・キョンスクは、弘益大学と同大学院で陶芸を専攻し、日本の大阪芸術大学文化芸術科で、博士課程を修了した。日本やフィンランド、韓国で15回の個展を開いたパク・キョンスクは、2021年清州(チョンジュ)工芸ビエンナーレ本展示及び展示連携参加プログラムである「工芸宴会」を行った。2014年アイルランドで開かれた<韓国現代陶芸特別展>、2016年<韓仏修交130周年記念 Made in Korea 巡回展>、2018年中国台湾鶯歌陶磁美術館<ニューオリエンタリア>展など、国内外の様々なグループ展に出展した。アイルランドのチェスター・ビーティ図書館、中国景德镇陶磁学院、九州産業大学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비 마이 게스트  
做我的客人(邀请)  
ビーマイゲスト(招待)  
자토, 유리, 대나무  
瓷器、玻璃、竹  
瓷器、ガラス、竹  
크기 다양  
大小多样  
サイズ多样  
2023



중국  
中国  
中国

066 백명  
白明  
バイミン

070 원굉  
远宏  
ユェンホン

072 소헌충  
苏献忠  
스ー시아unchon

074 오호우  
吴昊宇  
우어호우

076 포지강  
鲍志强  
바오지창

078 정유림  
郑幼林  
조안·요우린

080 왕건중  
王建中  
완젠중

082 황한송  
黄汉松  
판한송

084 장충  
张狮  
장쑤쑤

086 종연성  
钟连盛  
조안리엔쑤

088 왕효흔  
王晓昕  
완샤오신

090 왕극진  
王克震  
완크아쑤

092 은수운  
殷秀云  
인쑤운

094 감이가  
甘而可  
간아크아

096 종성  
钟声  
조안쑤

098 이홍파  
李洪波  
리홍보

## 중국공예: 전통에 기반한 현대적인 표현

중국큐레이터 양징

글로벌 시대 속에서 아시아 공예미술 강국인 중국과 일본, 한국은 공예미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국제 교류를 이어왔으며, 동일한 주제를 두고 각 국가의 관점으로 빚어낸 예술작품을 한자리에서 함께 감상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화이부동’이라는 전시 주제를 보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공예미술이란 무엇이고, 현 시대에서 어떠한 우수성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지를 고민하였다. 이에 중국 문화의 정신을 잘 구현함과 동시에 공예창작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인 도자, 옷칠, 금속, 유리, 종이, 수산석조 공예 등 6개를 선정하여 중국 현대 공예미술의 창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 선정된 16명의 우수한 작가 중 일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공예미술대가’로 인정 받은 전통 수공예 보존자이자 전승자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대국의 장인’으로서 전수 받은 걸출한 창작을 통해 전통적 창조 미학이 갖는 섬세함과 우아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전통 수공예의 현대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정유림(鄭幼林) 작가의 <원산근수(遙山近水)>는 ‘돌 속에 영혼을 불어넣는’ 수산석조(壽山石雕) 작품으로, 자연적인 돌의 색채와 형상을 절묘하게 이용하여 중국 전통 회화인 산수 경치가 작품 사이에 있는 여백에 고스란히 남아 단순한 기물에서 벗어나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다. 포지강(鮑志强) 작가의 <시운류향호(詩韻留香壺)>는 고대 죽간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으며 차와 관련된 유명한 글귀를 새겨 넣어 고풍스러움을 자아냈다. 또한, 공간과 척도, 조형과 조각, 관상과 활용 등 다양한 면에서 이싱(宜興) 자사호의 예술성과 고전미를 선보였다. 두 작품 모두 장인정신과 문인의 미적 감각이 녹아있다. 감이가(甘而可) 작가의 <홍금반서피칠규판형찬합(紅金斑犀皮漆葵瓣形攢盒)>과 은수운(殷秀雲) 작가의 <단풍문봉합(楓葉紋捧盒)>은 각각 후이저우(徽州) 서피칠(犀皮漆)의 전통 기법과 베이징 전통 조칠(雕漆) 기법을 사용한 옷칠기이다. 감이가(甘而可) 작가는 전통적인 찬합을 세련된 선형 모양으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서피칠에 금박과 주사(朱砂) 등을 붙이는 창의적인 기법으로 훔날리는 구름과 같은 무늬를 자아냈으며 옛 서피칠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채와 빛깔을 표현해냈다. 은수운(殷秀雲) 작가는 120번의 덧칠을 한 표면에 무늬를 새겼고, 다만 복잡하고 정교한 궁중풍의 전통 주철이 아닌 순백의 흰색과 간결한 자연의 무늬로 절제된 소박함을 추구하였다. 종연성(鍾連盛) 작가의 칠보 작품에서는 둔황(敦煌) 예술의 중후함과 우아함의 새로운 표현방식을 엿볼 수 있다. 대칭을 강조하는 전통적 장식에서 벗어난 하늘을 나는 장식에서 리듬감이 느껴지며 전통적인 칠보 예술에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

현대 공예미술의 혁신을 이끄는 주력인 아카데미즘 작가들은 국제적인 시선으로 중국의 전통을 바라보며 전통적 문화 DNA와 공예 지혜에서 에너지와 영감을 받아 새로운 언어와 기법, 소재, 개념을 창작활동에 도입하여 전통과 현대를 이어가면서 공예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해당 분야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문화로 이야기하다’이다. 서로 다른 소재와 공예 기법을 토대로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부호와 요소인 ‘자기’, ‘종이’, ‘물’, ‘돌’ 등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며 미묘한 연관성 속에서 심오하고 강력한 문화의 힘을 담아내고 창작자의 문화적 감성과 자신감을 표현한다. 백명(白明)의 <선석수(線釋水)>는 물의 다양한 상태 변화를 단순하면서도 통일된 청화선(靑花線)으로 구현했으며 거대한 자태(瓷胎)에 추상적이면서도 자유로우며 중국 문인의 품격이 담긴 시각적 도형을 만들어냈다. 원굉(遠宏) 작가의 현대식 흑도(黑陶) 작품은 그 역사가 신석기시대의 용산문화흑도(龍山文化黑陶)로 거슬러올라간다. 그의 작품 <성·적(城·迹)>은 흑도의 에스려운 정취로 문명의 깊이를 담아내며 자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다. 오호우(吳昊宇) 작가의 <신석기(新石器)>는 도자기의 주입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종이’를 견고한 ‘돌’에 감입하였다. 이런 감입 방식은 속박과 모순 속에서 몸부림과 성장을 거쳐 기물에 담아내는 것과 같다. 소현충(蘇獻忠) 작가의 자기 인형 작품인 <종이(紙)>와 이홍파(李洪波) 작가의 종이조각 설치작품은 각각 덕화(德化) 자기 인형 공예와 전통 공예인 ‘종이 조롱박’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우연한 기회에 자기와 종이의 쌍방향으로의 전환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전통 소재와 공예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시각적인 충격과 사고의 연장을 일으켰다. 우리는 시간을 멈추는 아름다움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기능을 두루 갖춘 순수 물질이다. 왕건중(王建中) 작가의 <도달(抵達)>은 영롱한 고순도의 색채와 면의 절삭 그리고 선의 교차를 통해 철학적 의미가 담긴 입체적 모양을 만들어냈다. 황한송(黃漢松) 작가는 상징주의 기법과 다양한 유리의 활용을 통해 역사를 응시하며 시공간적 예술과 역사의 온도가 담긴 실�크로드의 흔적을 재현하였다. 장충(張擘) 작가 또한 유리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물 속에 비친 달’이라는 시적인 공간과 고요하면서 심원한 동양 미학의 의미를 살려냈다. ‘화려함 속 고요함’은 종성(鍾聲) 작가가 그의 작품 <운·애(雲·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옷칠공예의 창작관으로서 고대 칠기의 나전 상감을 추상적인 예술적 언어로 변환시켜 칠화와 입체 조형물 사이에서 실험적인 탐색을 하였다. 왕극진(王克震) 작가의 <관기(管器)>는 100% 수공 단조 기법을 사용하여 현대 생활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적 산물을 섬세하게 복각(復刻)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적 전환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성찰을 유도하고자 한다. 왕효흔(王曉昕) 작가의 <모이다(萃聚)>는 3D 프린팅 기술과 전통 주조공예,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 철학관을 융합시켜 정보화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사람의 마음과 문화를 한데 모으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통해 중국 현대 공예미술의 모든 면면을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통 수공예의 전승과 발전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관람객과 참가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융합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인식의 장벽을 넘어 아시아 현대 공예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길 기원한다.

## 中国工艺： 立足于传统的 当代表达

中国策展人 杨婧

全球化语境下,中、日、韩三个亚洲工艺美术强国在工艺美术层面开展的国际交流和专业互动从未停止,而在同一命题下以各自视角提名本国作品,构成同场域的“互观”和“对话”,为首开先河。面对“和而不同”的展览主题,我们要思考的是,何以代表中国当代工艺美术?她在当下的优秀和不同有何表现?中方遂择选陶瓷艺术、漆艺、金属工艺、玻璃艺术、纸艺术、寿山石雕此六个可以充分诠释中国文化精神,且在当代创作领域十分活跃的艺术类项,切入我们对于中国当代工艺美术创作现状的观察。

提名的16位优秀艺术家主要来自于两个重要创作群体,其一是被国家授予“中国工艺美术大师”称号的传统手工艺的守护者和传承者,身为新时代的“大国工匠”,他们以传承中的杰出创造接续传统,为传统造物美学的精致和典雅附加新的涵义,为传统手工艺的当代价值延伸做出重要贡献。

郑幼林所作《遥山近水》展现了“赋石以灵性”的寿山石雕技艺,作品巧藉自然,因形造势,主体塑造之间的空间留白巧妙生成中国传统绘画之中的山水意境,实现由“造器”至“造境”的跨越。鲍志强作品《诗韵留香壶》构形自古代竹筒,壶体镌刻咏茶名赋,有古韵遗风,在空间与尺度、造型与雕刻、赏与用的几重关系上全面诠释着宜兴紫砂艺术的经典性,二人作品皆融涵了工匠精神与文人审美。甘而可的《红金斑犀皮漆葵瓣形攒盒》和殷秀云的《枫叶纹捧盒》是分别以徽州犀皮漆工艺和北京雕漆技艺制作的漆器皿。甘而可不仅将传统攒盒造型提炼至线条洗练,还创造性地在犀皮漆中添加金箔、朱砂等物,使漆面不仅纹理如行云舒卷,还焕发出古犀皮漆器不曾有的色彩和光泽。殷秀云在髹漆120多道的漆层上雕刻图案,却并未全力展现传统朱色雕漆繁缛精细的宫廷风格,而是以素雅的白色和去繁从简的自然图案,追求朴素自然的造物理想。敦煌艺术的雍容典雅通过钟连盛的景泰蓝作品找到另一种高度契合的呈现方式,飞天装饰的韵律感突破了工整对称的传统装饰范式,为传统景泰蓝艺术带来清新之貌。

作为当代工艺创新主力的学院派群体则以国际视野反观本土,从传统文化基因和工艺智慧中获得能量和启示,将新的语言、材料、工艺、技术和观念代入创作,从而建立起传统与当代的链接,也拓宽着工艺美术的界域。“以文化叙事”是贯穿于这一部分作品的重要特征,在不同材质和工艺的承载下,“瓷”“纸”“水”“石”等中国文化表征符号和元素反复出现,于微妙关联中隐含着深沉、强大的文化力量,也溢出创作者的文化情怀和文化自信。

白明的《线释水》将水的万化之态抽离成单纯统一的青花线条,在硕大的瓷胎上生成抽象、自由,又极具中国文人品格的视觉图像。远宏的现代黑陶创作可溯源至新石器时代的龙山文化黑陶,《城·迹》以黑陶之古朴隐喻文明之厚重,以示对本土历史文化的敬畏和尊重。吴昊宇的《新石器》借助翻模注浆工艺将柔韧的“纸”嵌入坚硬的“石”,而这种嵌入如同束缚和矛盾中的挣扎与生长,最终承载于器。苏献忠的《纸》与李洪波的纸媒雕塑装置分别以德化瓷塑工艺和传统“纸葫芦”工艺作为启示和手段,在传统材料和工艺的当代表达中实现了瓷与纸的双向转换,亦带来视觉的震撼和观念的延伸。玻璃作为一种纯粹的物质性材料,兼有凝固时间的美感和空间叙事功能,王建中的《抵达》以通透的高纯度色彩、面的切割以及线的交汇,构成一种有哲学意味的立体形式;黄汉松则用象征主义手法和多层次的玻璃铸造,还原了极具时空感和历史温度的丝路印记;张翀同样利用玻璃特性,营造“水中月”的诗意化空间和静谧深沉的东方美学意境。钟声作品《云·霭》将古代漆器中的螺钿镶嵌转化为抽象的艺术语言,进行着介于漆画和立体造型之间的实验性探索。王克震的《管器》用纯手工锻造的方式精致“复刻”了一种现代生活空间中不可或缺的工业产物,以观看视角的切换引发观者对生存环境的关注和反思。王晓昕作品《萃聚》以3D打印技术、传统铸造工艺和中国传统哲学观的集合,探讨信息化、数字化时代下,人与人之间由分离至聚合的状态,表达汇聚人心、萃聚文明的愿景。

以上作品虽为全景观察的一个局部,但基本可以管窥中国当代工艺美术的整体特征,和传统手工艺传承与发展的蔚然大观。希望每一位观众和参与者得以在新一次的艺术汇聚中获得文化共鸣和心灵关照,从而跨越认知的藩篱,共筑亚洲工艺的新景观!



## 中国工芸： 伝統に基づいた 現代的な表現

中国キュレーター 楊婧

グローバル化の環境において、中国、日本、韓国というアジアの工芸美術大国の3か国は、工芸美術分野において専門的かつ深層的な国際交流を続けており、同じテーマのもとに、それぞれの国の観点から作り出した芸術作品を一堂に集め、鑑賞し対話する時間を持つというこれまでにない新しい試みをいたします。

展示のテーマ「和而不同」に直面して、私たちは現代中国の工芸美術をどのように表現するか、現代においてどんな優秀性と差別性を示すことができるのかを悩みました。これに中国文化の精神をうまく具現化すると同時に工芸創作分野において、もっとも活発な分野である陶芸、漆塗、メタルアート、ガラス細工、紙細工、寿山石彫刻の6つ分野を選び、中国現代工芸美術の創作現状を観察してみようとおもいます。

今回の展示に指名された16人の優秀な作家のうち一部は、中国政府によって「中国工芸美術大家」として認められた伝統工芸技術保持者であり伝承者です。新しい時代に合った「大国の匠」として、伝授された傑出した創作を通じて伝統的な創造美学を持つ繊細さと優雅さに新しい意味を与え、伝統工芸の現代的価値を見出しています。鄭幼林作家の「通山近水」は、「石の中に魂を吹き込む」寿山石彫刻技術が使われた作品であり、自然の石の色彩と形状を絶妙に利用して中国伝統絵画である山水の景色が作品の間にある余白にそのまま残り単純な「器」づくりから「環境」づくりの境地に達しています。鮑志強作家の「詩韻留香壺」は古代の竹簡の形状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て制作しており、壺本体にはお茶に関する有名な詩が刻まれており古風な感じを与えています。また、空間と尺度、造型と彫刻、鑑賞と使用の間のいくつかの関係の観点から宜興紫砂芸術の芸術性と古典的な美を示しています。両作品ともに職人魂と文人美学が体現されています。甘而可作家の「紅金斑犀皮漆葵瓣形攢盒」と殷秀云作家の「楓葉文捧盒」は、それぞれ徽州の伝統工芸である犀皮漆と北京の伝統技法である彫漆で作られた漆器です。甘而可作家は、伝統的な箱の形をすっきりとしたラインに改良しただけでなく、犀皮漆に金箔や朱砂などを付着させる創意的な技法で、漆の表面の質感が流れる雲のような模様を作り出し、古来の犀皮漆では見られなかった色彩の光沢を表現しました。殷秀云作家は120層以上重ね塗りの漆の上に文様を彫りましたが、伝統的な朱塗り漆の複雑で繊細な宮殿の装飾スタイルではなく、シンプルでエレガントな白と自然な模様で節制された素朴さを追求しました。鍾連盛作家の七宝焼き作品では、敦煌美術の重厚さや優美さの新しい表現方法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対称を強調する伝統的な装飾から脱却した飛天装飾のリズミカルな感覚が感じられ、伝統的な七宝芸術に新鮮な外観をもたらしました。

現代工芸美術の革新の主力であるアカデミズム作家たちは、国際的な視点から中国の伝統をみつめ、伝統的な文化の遺伝子や工芸の知恵からエネルギーと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て、新しい言語、技術、素材、概念を創作に置き換え、伝統と現代をリンクさせながら、工芸美術の裾野を広げています。該当分野作品の最も重要な特徴は、まさに「文化の語り」となっており、互いに異なる素材と工芸技法を土台に中国文化を代表する象徴や要素である「磁器」、「紙」、「水」、「石」が繰り返し登場し、微妙な関連性の中で深く強力な文化的パワーを暗示し、創作者の文化的感性と文化的自信を表現する。バイミン（白明）作家の「線积水」は、刻々と変化する水の状態を青と白のシンプルで統一された線として抽象化し、巨大な磁器の本体に中国の文人らしさを表現した抽象的で自由な視覚イメージを生み出しています。遠宏作家の現代的な「黒陶」作品は、新石器時代の「龍山文化の黒陶」にまで遡ることができ、「城・痕跡」では黒陶の古めかしさを文明の奥深さの比喩として用い、自国の歴史と文化への畏敬と尊敬の念を表現しています。吳昊宇の「新石器」は、陶磁器の注入成形技法を利用して柔らかい「紙」を固い「石」に埋め込みました。このような埋め込みは束縛と矛盾の中で抗い・成長を経て器物になるのと同じです。蘇獻忠作家の磁器人形作品である「紙」と李洪波作家の紙彫刻インスタレーション作品は、それぞれ徳化磁器人形工芸と伝統的な「紙瓢箪」工芸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たもので、偶然な機会に磁器と紙の両方向転換と調和を実現しており、同時に、伝統的な素材と工芸の可能性を拡張させ、視覚的な衝撃と思考の拡張を形成しました。純粋な物質としてのガラスは、凍てつく時間の美しさと空間を物語る機能を兼ね備えています。王建中の「到着」は、透明で純度の高い色彩、表面のカットと線の交差を用いて、哲学的な三次元のフォルムを形成しています。黄漢松作家は、象徴主義の技法と多層ガラスの鑄造を使用して、歴史の視線の中で時空間の感覚と歴史的な温度の感覚を持つシルクロードの痕跡を復元しました。張翀作家もまた、ガラスの材料特性を使用して「水の中に映る月」という詩的な空間と静かで奥深い東洋の美意識の意味を活かしました。「華麗な静けさ」は、鍾聲作家の作品「云・靄」を通して伝えようとする漆芸術の創作に対する個人的な見解として、彼は古代漆器の螺鈿象嵌を抽象的な芸術言語に変換し、漆絵と立体造形物の間で実験的な探索を行った。王克震作家の「管器」は、100%手工鍛造技法を使って、現代の生活空間に欠かせない工業製品を精巧に「復元」し、見る角度の切り替えを通じて環境問題への関心と考察を呼び起こそうとしました。王曉昕作家の「萃聚（訳：集める）」は、3Dプリント技術と伝統的な鑄造工芸、そして伝統的な中国哲学を融合させ、情報化とデジタル時代における人々の分離と集合の状態を探求し、人々の心と文化を集めようとする願いを表現しています。

今回出品された作品を通じて中国現代工芸美術のすべてを知る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が、全般的な特徴を伺え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でしょう。さらに、伝統工芸の伝承と発展の明るい未来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でしょう。すべての来場者と参加者が新しい文化融合と芸術の集合を通じて文化的に共鳴し、心が癒されることを願いながら、さらには認識の壁を乗り越えて、アジアの現代美術と工芸の新たな地平を開いていく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백명  
白明  
バイミン

1965년 장시성 위간에서 태어나 중앙공예미술학원을 졸업했으며 칭화대학교 미술대학 도자기 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미술가협회 도자기 예술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고 중국 국가 화원 연구원, 《중국 도예가》잡지 편집장, “상위칭” 현대 국제 도예 센터 주임, 덕화 현대 도예 연구소 소장을 임하고 있다. 중국, 프랑스, 한국,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에서 총 20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중국 현대 도예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12종 20권 이상의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대영박물관과 파리 아시아예술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65年出生于江西余干, 清华大学美术学院陶瓷艺术系主任、教授、博士生导师, 中国美术家协会陶瓷艺术委员会主任, 中国国家画院研究员, 联合国教科文组织国际陶协IAC会员, 《中国陶艺家》杂志主编, 清华大学美术学院现代陶艺研究所所长, “上虞青”现代国际陶艺中心主任, 德化当代陶艺研究所所长。在中国、法国、韩国、美国、葡萄牙、意大利、比利时举办个展共计20余次。建立了中国现当代陶艺理论基础, 出版著作12种20卷, 个人作品集20余种。

1965年江西省余干生まれ, 清华大学美术学院陶磁器芸術学部主任、教授、博士指導教官、中国美術家協会陶磁器芸術委員会主任、中国絵画アカデミー研究員、ユネスコ国際陶磁協会IAC会員、『中国陶芸』雑誌の編集長、清华大学美術院現代陶磁研究所所長、「上虞青」現代国際陶磁センター主任、徳化現代陶芸研究所所長。中国、フランス、韓国、米国、ポルトガル、イタリア、ベルギーで20回以上の個展を開催。中国の近現代陶芸の理論的基礎を確立し、12種20冊を出版し、個人作品集は20種以上だ。



생생불식  
生生不息  
자토  
瓷器  
45×45×46(h)cm  
2013



선석수  
线释水  
線积水  
자토  
瓷土  
57×57×56(h)cm  
2016



원굉  
远宏  
ユェンホン

1964년 9월 산둥성 주청시에서 태어나 1988년도에 중앙공예미술학원(현 칭화대 미술학원)을 졸업하고 2009년 7월에 중국 예술 연구원을 졸업하여 디자인 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산둥예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경덕진 도자기 대학교 박사과정 지도 교수, 한국 단국대학교 석박사 과정 지도 교수를 임하고 있다. 중국, 한국, 프랑스 등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에 참여했으며 중국 국가 박물관, 산둥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远宏, 1964年9月出生於山东省诸城市, 1988年7月毕业于中央工艺美术学院(现清华大学美术学院), 2009年7月毕业于中国艺术研究院, 获设计艺术学博士学位。现为山东艺术学院设计学院院长、教授, 硕士生导师, 景德镇陶瓷大学博士生导师, 韩国檀国大学硕士、博士生导师。中国美术家协会陶瓷艺术委员会秘书长, 山东美术家协会陶瓷艺术委员会主任, 山东美术家协会主席团委员。

1964年9月に山東省諸城市に生まれ、1988年7月に中央工芸美術学院(現清華大学美術学院)を卒業し、2009年7月に中国芸術研究院を卒業し、デザイン芸術学の博士号を取得。現在、山東芸術学院デザイン学部の学部長、教授、修士指導教官、景德镇陶磁大学博士指導教官、そして韓国檀国大学の修士及び博士指導教官を務めている。中国美術家協会陶磁芸術委員会事務局長、山東美術家協会陶磁芸術委员会主任、山東美術家協会主席団委員。



성·적  
城·迹  
城·痕跡  
도토  
陶土  
25×25×20(h)cm  
2020



소헌충  
苏献忠  
スーシアンチョン

1969년 푸젠성 덕화에서 태어난 소헌충은 중국 도예의 대가이자 덕화 은육자장의 제4대 계승자이다. 소헌충의 작품은 동양 불교 철학의 선사를 작품의 근간으로 삼고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와 인간의 내적 신앙을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전통적인 덕화 백자의 특징을 바탕으로 영국, 스위스, 중국대만과 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작품 활동과 전시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 박물관, 영국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69出生于福建德化。中国陶瓷艺术大师，高级工艺美术师，德化蕴玉瓷庄第四代传人。苏献忠的创作以东方佛教哲学禅思作为作品观念的根基，尝试通过作品去阐释和解读各种社会问题与人的内在信仰。他通过德化白瓷独特的视觉艺术属性在不同文化中自由游弋，让古老的材料与工艺散发出诗性的灵魂。

1969年福建省德化市生まれ。中国陶芸の大家、上級美術工芸家、徳化蕴玉瓷庄の4代目後継者。スーシアンチョンの作品は、東洋の仏教哲学と瞑想を作品の基礎としており、作品を通じてさまざまな社会問題や人々の内なる信仰を説明、解釈しようとしている。徳化白磁のユニークな視覚芸術属性を通じて、彼はさまざまな文化を自由に渡り歩き、古い素材と職人技で詩的な魂を発散している。



종이  
紙  
紙  
자기토, 벽돌  
瓷土、陶磚  
22×19×36(h)cm  
2021



# 오호우 吴昊宇 ウーハオユー

1978년생. 현재 칭화대학교 미술대학 도자기 예술디자인학과 부교수로 활동 중인 오호우는 백자를 통해 돌처럼 단단하거나 종이처럼 부드러운 물성을 탐구하는 작가이다. 2022, 2023년에 <조탁독음>, <영원을 만나다>라는 개인전을 열었고 202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독특한 디자인 - 아트 디자인전>에 참여했다. 제1회 덕화 '중국백' 중국 전통 도자 예술 비엔날레 심사위원회 위원, '제3회 중국 현대 도자 예술대전'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오호우의 작품은 아일랜드 더블린 박물관, 한국 경기도자미술관, 중국 축중미술관, 미국 갤러리올 등 국내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吴昊宇, 现任清华大学美术学院陶瓷艺术设计系副教授、联合国教科文组织国际陶艺学会IAC会员、中国美术家协会陶瓷艺术委员会副秘书长、中国室内装饰协会陈设艺术专业委员会副秘书长、中国美术家协会会员。担任“第十三届全国美展陶艺作品展”初评及复评评委、首届德化“中国白”中国传统陶瓷艺术双年展评审委员会委员、“第三届中国当代陶瓷艺术大展”评委等。作品被爱尔兰都柏林博物馆、韩国利川陶瓷博物馆、清华大学艺术博物馆、北京筑中美美术馆、美国GALLERY ALL画廊等国内外机构收藏。

現清華大學美術學院陶磁藝術設計學科副教授、ユネスコ國際陶芸學會 IAC 會員、中國美術家協會陶磁器藝術委員會副秘書長、中國インテリア協會陳設藝術專門委員會副秘書長、中國美術家協會會員。「第 13 回全國美術展覽會陶芸展」の初期評価・再評価審査員、第 1 回德化「チャイナホワイト」中國傳統陶芸ビエンナーレ審査委員、「第 3 回中國現代陶磁藝術大展」の審査員などを務める。作品は、アイルランドのダブリン美術館、韓国の利川陶磁器博物館、清華大學藝術博物館、北京筑中美術館、米国のギャラリー ALL など、国内外の機関に收藏されている。



신석기  
新石器  
자토  
瓷土  
55×28×48(h)cm  
2018



# 포지강 鲍志强 バオジーチャン

1946년 장쑤이성 축산에서 태어난 포지강은 현재 중국 도자기 예술의 대가로 불리고 있다. 1959년 이상 자사 공장에 입사하여 자사 장인들로부터 도각(陶刻)을 배우고 1962년 오운근 문하에서 제호(製技艺) 기술, 1965년 도자 명가 런간팅(任庭亭) 선생에게서 도각을 연구했다. 1975년 중앙 공예미술대학에서 졸업 후 60년 넘게 자사 예술 창작에 종사해 온 포지강은 중국 예술 연구원 자사 연구원 집행원장에 임하고 있다. 중국 동관석롱박물관, 중국 미술관 등 중국 내에서 개인전을 수차례 열었으며, 2018 캐나다 밴쿠버 폴리 아트갤러리에서 열린 <타우두풍 - 이홍퍼플 샌드아트 밴쿠버 특전>에 작품을 선보였다. 자사와 현대 문인들의 삶을 융합하는 도자기를 제작하는 포지강의 작품은 중국공예 박물관, 고궁박물관, 광동성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46年生于江苏宜兴蜀山。中国工艺美术大师，中国陶瓷艺术大师，正高级工艺美术师，中国艺术研究院紫砂研究院执行院长。1959年进入宜兴紫砂厂，师从紫砂艺人谈尧坤、诸葛勳、范泽林学习陶刻。1962年转师老艺人吴云根门下学习制壶技艺。1965年拜著名陶刻名家任淦庭先生为师，研习陶刻创作，1975年于中央工艺美术学院进修，至今从事紫砂艺术创作逾60年。作品集紫砂造型设计、制作、陶刻装饰，和诗、书、画的综合表现形式于一体，注重以文化主宰紫砂艺术设计的创作理念，将紫砂与现代文人生活进行融合与展现，在紫砂艺林中别树一帜。

1946年江苏省宜兴市蜀山生まれ。中国工艺美术の大家、中国陶磁芸術の大家、上級美術工芸家、中国芸術院紫砂研究所執行院長。1959年に宜兴紫砂工場に入り、紫砂アーティストの譚耀昆、諸葛勳、範沢林の指導を受けて陶器彫刻を学んだ。1962年、彼は壺作りの技術を学ぶために老画家呉雲根のもとに移った。1965年に陶芸彫刻家として有名な任淦庭先生に師事し陶芸彫刻を研修した。1975年に中央美術工芸学院で研修し、60年以上にわたって紫砂アートの制作に携わってきた。作品は紫砂造型のデザイン、制作、陶器の彫刻装飾、そして詩、書道、絵画の総合的な表現を統合したもので、文化が紫砂芸術デザインを主導する創作理念に重点を置いて紫砂と現代文人生活を融合して展示して紫砂芸林の中で一風変わっている。



시운류향호  
诗韵留香壺  
詩韻留香壺

자사  
紫砂  
12.6×7.6×15.2(h)cm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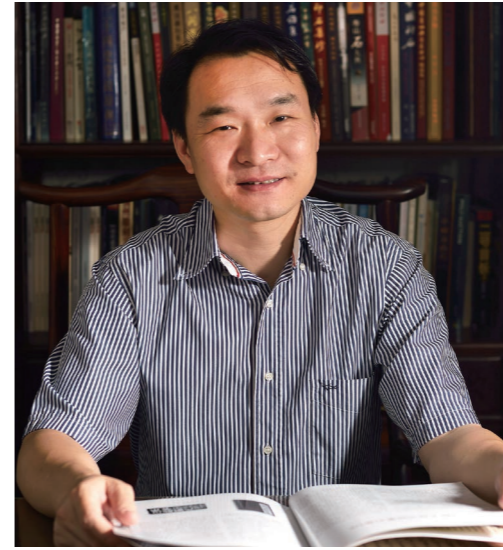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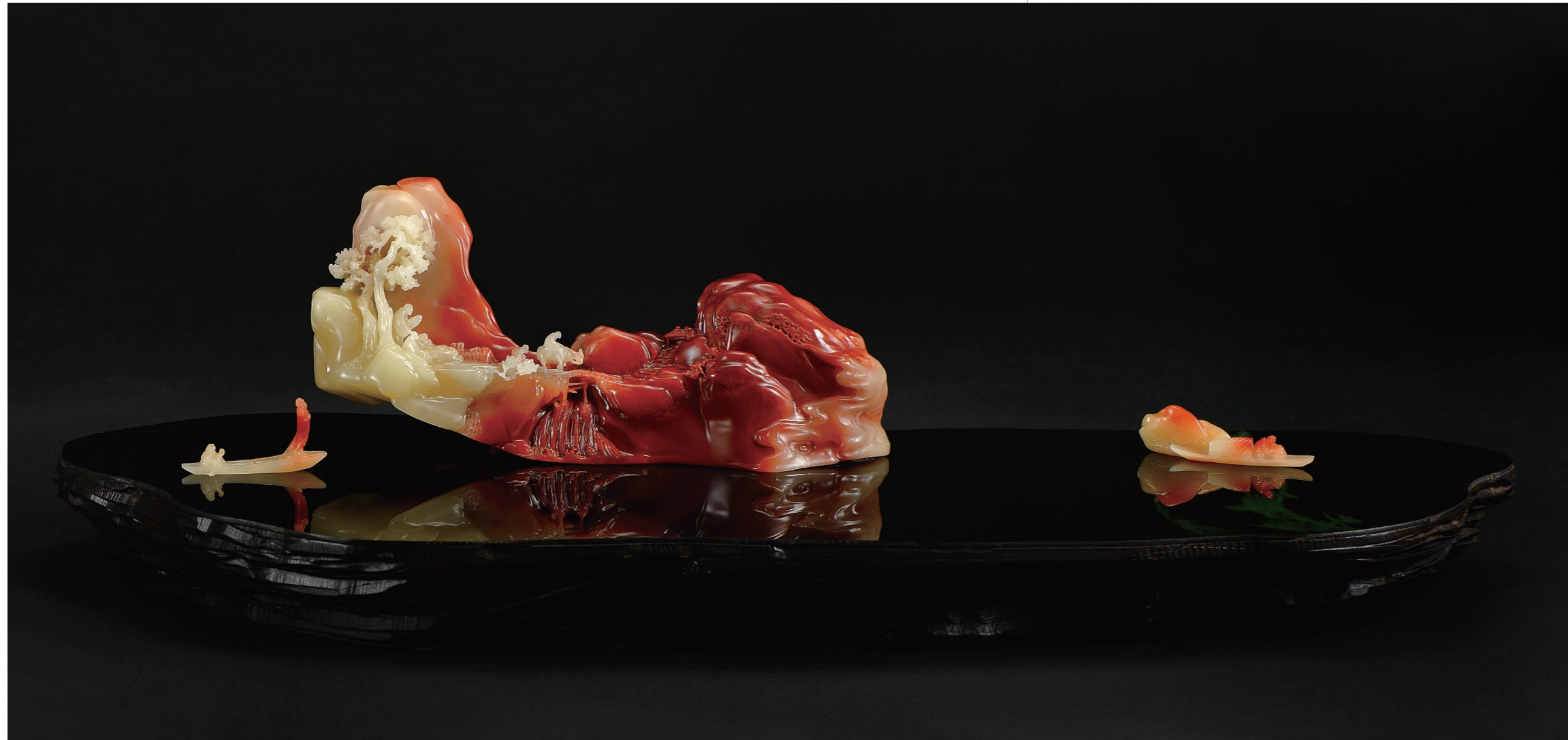
중국미술관소장  
中国美术馆藏  
中国美術館藏



정유림  
郑幼林  
ジョン・ヨウリン

원산근수  
遥山近水  
遥山近水  
수산석  
寿山石  
50×20×16(h)cm  
2019

중국미술관소장  
中国美术馆藏  
中国美術館藏



1969년생 푸젠성 푸저우에서 태어난 정유림은 중국 옥 조각 명장 왕주광에게 옥 조각을 배우고 푸젠 사범대학 미술 아카데미 졸업했으며 현재 푸저우대학 사면 공예 미술 학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중국 민간 문예가 협회 이사과 푸젠성 수산석 문화예술연구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수산석을 통해 동양의 산수경관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여러 차례 중요한 상을 수상했으며 홍콩, 중국대만, 베이징, 상하이 및 기타 지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기타 국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작품은 중국 미술관과 중국대만 불광산 불타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1969年出生, 福建福州人。中国工艺美术大师, 享受国务院政府特殊津贴专家。福州大学厦门工艺美术学院教授。现任中国民间文艺家协会理事、福建省寿山石文化艺术研究会会长。作品多次荣获重要奖项, 并多次应邀前往香港、中国台湾、北京、上海等地区, 以及日本、马来西亚、新加坡等国家举办个人作品展。 1969年生まれ、福建省福州市出身。中国工艺美术の大家であり、国務院から特別政府手当を受けている専門家。福州大学厦門美術工芸院教授。現在、中国民俗文学芸術協会の理事、福建省寿山石文化芸術研究協会の会長を務めている。彼の作品は数々の重要な賞を受賞しており、香港、中国台湾、北京、上海などのほか、日本、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などでも招待され個展を開催している。



# 왕건중 王建中 ワンジェンチュン

1955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왕건중은 중앙공예미술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칭화대학교 교수와 중국 공예 미술학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대적 유리조형 안에 중국 고전 철학의 사색을 담아내는 왕건중은 중국 현대유리공예와 유리공예 교육의 선도자이다. ‘베이징시 대학교 우수한 청년 중추 교사’, ‘중국 도예 및 디자인 교육 우수 공로상’, ‘중국 도예 및 디자인 발전 촉진 특별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고 저서로는 『국제 도자기 디자인』, 『세계 유리 예술사』, 『세계 현대유리예술사』, 『중국명요 명자기 - 자주요자기』, 『자사호 제작 기법』 등이 있다. 중국 여러 주요 기관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중국 국립대극장과 공예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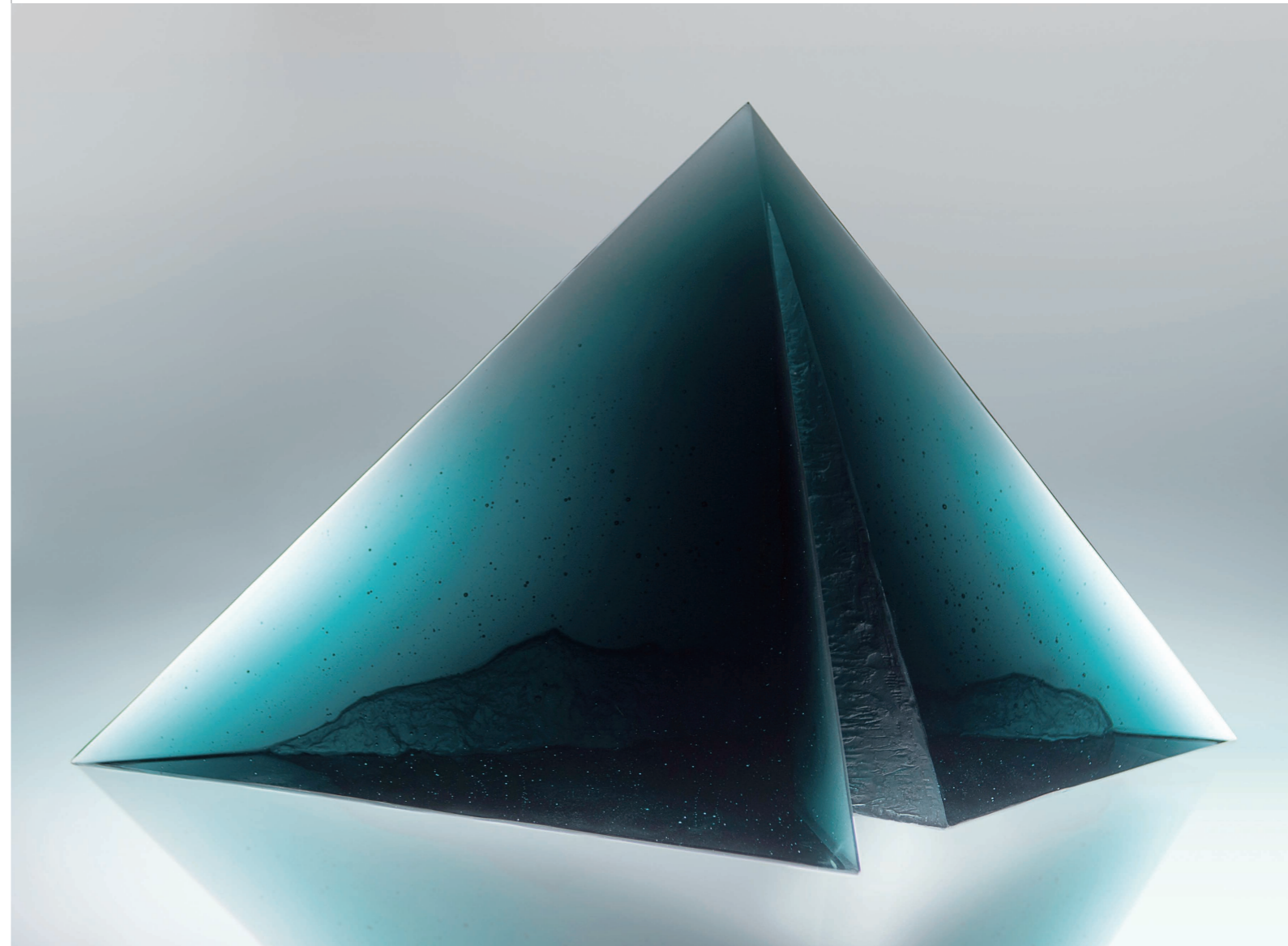
1955年生于北京，毕业于中央工艺美术学院。清华大学长聘教授、博士生导师。中国工艺美术学会副理事长、玻璃艺术委员会主任，中国美术家协会工艺美术委员会副主任，中国陶瓷工业协会副理事长、陶瓷艺术委员会执行会长，中国科学技术协会第八、第九届全国委员，中国工艺美术大师评选专家委员会委员，全国艺术科学规划项目鉴定专家，教育部学位中心评审专家。中国玻璃艺术、玻璃艺术教育以及玻璃艺术创作的首倡者和实践者，研究方向为玻璃、陶瓷艺术及工艺美术创新研究与创作。曾获“北京市高等院校优秀青年骨干教师”“中国陶瓷艺术与设计教育杰出贡献奖”、推进中国陶瓷艺术与设计发展特殊贡献奖”等荣誉。著有《国际陶瓷设计》《世界玻璃艺术史》《世界现代玻璃艺术史》《中国名窑名瓷—磁州窑瓷》《紫砂壶制作技法》等专著。



도달  
抵达  
到達  
유리  
玻璃  
ガラス  
68×30×39(h)cm  
2015

중국미술관소장  
中国美术馆藏  
中国美術館藏

1955年北京生まれ、中央工芸美術学院卒業。清華大学招聘教授、博士指導教官。中国工芸美術学会副理事長、ガラスアート委員会主任、中国美術家協会工芸美術委員会副主任、中国陶磁工業協会副理事長、中国陶磁芸術委員会執行会長、中国科学技术協会第8回および第9回全国委員、中国工芸美術大家、中国工芸美術大家選定専門家委員会委員、全国芸術科学企画プロジェクト鑑定専門家、教育部学位センター審査専門家。中国ガラス芸術、ガラス芸術教育、ガラス芸術創作の創始者であり実践者であり、ガラス、陶芸、美術品や工芸品の革新的な研究と創作を研究の方向性としている。「北京市高等院校の優秀な若手教師」、「中国陶磁芸術およびデザイン教育に対する顕著な貢献賞」、「中国陶芸およびデザインの発展促進に対する特別貢献賞」などの榮譽を受賞している。著書に「国際陶磁器デザイン」、「世界ガラス芸術史」、「世界現代ガラス芸術史」、「中国の名窯と名磁器—磁州窯磁器」、「紫砂壺制作技法」などがある。



# 황한송 黄汉松 ファンハンソン

황한송은 1981년 광둥성에서 태어나 2012년에 칭화대학교 디자인학과에서 유리예술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광저우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중국 공예미술학회 유리예술위원회 부비서장을 임하고 있다. 2016년, 2018년 중국 당대 공예 미술 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하여 이름을 알렸고 2023년 제7회 광둥성 고등미술작품 학원상 비엔날레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작품은 국가 예술 기금관리 센터에 소장되어 있다.

1981年出生于广东，2012年毕业于清华大学设计学专业，主修玻璃艺术，获硕士学位。现任教于广州美术学院，中国工艺美术学会玻璃艺委会副秘书长。

1981年に広東省で生まれ、2012年に清華大学デザイン学科ガラス芸術を専攻して卒業し、修士号を取得した。現在、広州美術学院で教鞭をとり、中国工芸美術学会ガラス芸術委員会副事務局長。



유리, 빛과 색 돈황을 비추다  
琉光璃彩映敦煌  
琉璃が敦煌を彩る  
유리  
玻璃  
ガラス  
42×12×32(h)cm  
2019



장충  
张翀  
ジャンチュ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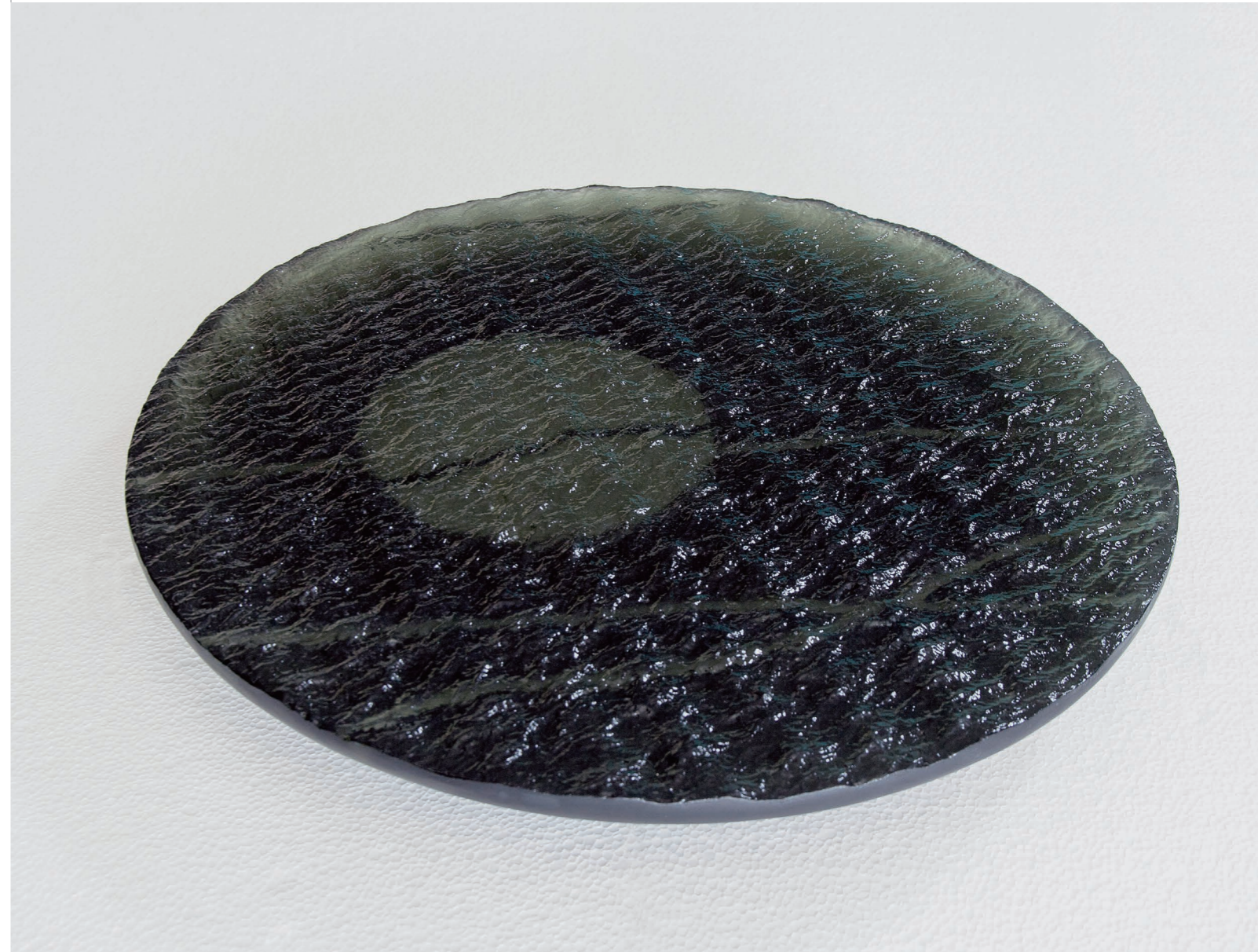
1987년 6월 지린에서 태어난 장충은 2018년 칭화대학교 미술대학 공예미술과를 졸업하고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베이징 공업대학 예술 디자인 대학 공예미술과 부교수, 석사과정 지도교수, 중국 공예미술학 유리예술위원회 비서장을 임하고 있다. 2019년 독일에서 <트레이스>라는 작업으로 명예학위 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독일 국제 공예 박람회 <탈런트 2019>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중국공예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87年6月出生於吉林，2018年畢業於清華大學美術學院工藝美術系，獲設計學博士學位，現為北京工業大學藝術設計學院工藝美術系副系主任，副教授，碩士研究生導師，中國工藝美術學玻璃藝術委員會秘書長。

1987年6月に吉林省に生まれ、2018年に清華大學美術學院工藝美術學科デザイン學博士号を取得して卒業し、現在は北京工業大學芸術デザイン學院工藝美術學科副主任、副教授、修士指導教官、中國工藝美術學ガラス藝術委員會事務局長。



적·달을 묻다  
迹·问月  
跡·月に問う  
유리  
玻璃  
ガラス  
50×50×8(h)cm  
2018



# 종연성 钟连盛 チョンリエンション

1962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종연성은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칠보 기술 계승자로 45여 년 동안 전통을 기반으로 칠보공예의 혁신에 종사해오고 있다. 2019년 베이징 국가 박물관에서 열린 <시대 신장전>, 2022년 중화세기단 미술관에서 열린 <수정·혁신 - 베이징 국제 당대 법랑 예술전>에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교하며 현대적인 칠보 작품으로 '2023 공미배(工美杯) 북경 공예미술 혁신 디자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종연성의 작품들은 스위스 유엔 제네바 본부와 중국 대운하 문화재 전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62年出生于北京。中国工艺美术大师、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景泰蓝制作技艺代表性传承人、享受国务院政府特殊津贴专家，从事景泰蓝艺术传承、创新四十五年。钟连盛治艺严谨，技艺全面，在继承传统的基础上不断探索、创新，在创作与研发中始终倡导简约、抽象、现代的设计理念，将昔日皇家气息浓厚的景泰蓝艺术融入当代人的生活。作品清新精致，风格秀美，典雅独特，具有鲜明的现代感和时代气息。

1962年北京生まれの男性。中国工芸美術の大家であり、国家無形文化財「景泰藍(銅製の七宝焼き)」制作技術の代表的継承者であり、國務院から政府の特別手当を受けている専門家であり、45年にわたり景泰藍制作の継承と革新に従事してきた。鍾連盛は厳格な芸術性と総合的な技術を持ち、伝統を継承を基礎に探求と革新を続け、創造と研究開発においては常にシンプル、抽象的、現代的なデザインコンセプトを提唱し、昔の皇室の息吹が濃厚な景泰藍芸術を当代の生活に溶け込ませる。作品は新鮮で精緻で、スタイルが美しく、エレガントでユニークで、独特の現代性と時代の雰囲気を持っている。



사막 속의 둔황  
汉漢飞天  
漢漢飛天  
자동, 금, 법랑유약  
紫銅、金、珐琅釉藥  
赤銅、黄金、珐瑯釉藥  
20×20×36(h)cm  
2019



# 왕효흔 王晓昕 ワンシャオシン

1981년 산시성 양취안시에서 태어난 왕효흔은 현재 칭화대학교 미술대학 공예미술과 부교수, 박사과정 학생 지도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중국 공예 미술협회 이사, 중국 공예 미술 협회 금속 예술 전문 위원회 부주임 위원 겸 사무총장을 임하고 있다. 주로 전통 공예의 현대적 전환과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디자인 실습에 중사하고 있으며 '티베트 평화 해방 70주년'에 대한 작품을 제작해 경축행사에서 중앙 대표단에 증정하였고, 중국 인민은행 '닝샤후이족 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 은화 발행 등 10개 이상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큐레이터로서 <중국 국제 현대 금속 예술 전시회>, <베이징 국제 현대 법랑 예술 전시회> 등 10개 이상의 국제 학술 전시회를 기획했고 작품은 중국 공예미술관과 국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81年生于山西省阳泉市,清华大学美术学院工艺美术系副教授,博士生导师。中国工艺美术协会理事,中国美术家协会会员,中国工艺美术协会金属艺术专业委员会副主任委员兼秘书长,中国工艺美术学会教育工作委员会秘书长,中国珠宝首饰行业协会首饰设计委员会副主任委员。现主要从事“传统工艺美术当代转化与创新”方向的教学、研究及设计实践工作。曾作为主创完成“西藏和平解放70周年”庆祝活动中央代表团赠礼、中国人民银行发行“庆祝宁夏回族自治区成立60周年”纪念银币等10余项国家项目的设计工作,主持完成4项国家级及省部级研究课题;作为策展人组织策划“中国国际当代金属艺术展”、“北京国际当代珐琅艺术展”等十多项国际学术展览;出版专著《金匠》和《现代金属雕塑》。



모이다  
萃聚  
集まる  
황동, 금  
黄铜、金  
黄銅、金  
47×47×25(h)cm  
2023

1981年に山西省陽泉市生まれ、清華大学美術学院工芸美術学科副教授、博士指導教官。中国工芸美術協会理事、中国美術家協会会員、中国工芸美術協会メタルアート専門委員会副委員長兼事務局長、中国工芸美術協会教育委員会事務局長、ジュエリーデザイン副理事長、中国宝石・翡翠宝石産業協会の委員。現在は主に「伝統工芸美術の現代転換と革新発展」を目指した教育、研究、デザイン実践に従事している。かつて「チベット平和解放70周年」慶祝行事を主導的に完成した中央代表団の贈り物、中国人民銀行が「寧夏回族自治区創立60周年を祝う」記念銀貨発行など、10余りの国家プロジェクトの設計作業を主管して、4つの国家級及び省部級研究課題を完成したことがある。:彼は主な作成者として「チベット平和解放70周年」祝賀中央代表団からの贈り物や人民銀行発行の記念銀貨など、中国「寧夏回族自治区建国60周年を祝う」4つの国家・省・閣僚の研究テーマの完了を主宰し、キュレーターとして「中国国際現代メタルアート展」、「北京国際現代珐琅アート展」など、10以上の国家プロジェクトのデザイン作業を完成させた。著書「金匠」および「現代金属彫塑」を出版。



# 왕극진 王克震 ワンクァション

1976년 장쑤성 난징에서 태어난 왕극진은 1995년 난징 예술대학 장식예술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장신구, 은제품 디자인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3년 중국 미술대학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무수한 망치질로 리드미컬한 은 공예 작품을 탄생시키는 왕극진은 현재 난징 예술대학 현대 수공예 센터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큐레이터로서 <타산 - 중국 현대 장신구전>, <삼중계 - 중국 현대 수공예가 학술 지명전> 등 현대공예 및 장신구 분야의 중요 전시들을 기획했고 작품은 영국 빅토리아 앤알 버트박물관, 중국공예미술관 등 주요 예술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1976年出生于江苏南京，南京艺术学院当代手工艺中心主任，副教授。1995年毕业于南京艺术学院装饰艺术设计专业，获学士学位；2004年毕业于英国伯明翰大学首饰、银器以及产品设计专业，获硕士学位；2023年获中国美术学院设计学博士学位。现为中国珠宝玉石行业协会设计师委员会副主任委员、中国工艺美术协会金属艺术委员会副秘书长、中国工艺美术学会理论专委会委员。作品曾被英国 V&A 博物馆、中国工艺美术博物馆等艺术机构收藏，作为策展人曾主持策划过“它山-中国当代首饰展”“三重阶-中国当代手工艺家学术提名展”等当代手工艺与首饰领域的重要展览。

1976年に江蘇省南京生まれの彼は、南京芸術学院現代手芸センター主任、副教授。1995年に南京芸術学院で装飾美術デザイン学を専攻し学士号を取得し、2004年にイギリスのバーミンガム大学でジュエリー、銀製品、製品デザインを専攻し修士号を取得した。2023年に中国美術学院でデザイン学の博士号を取得した。現在、中国宝石&ジュエリー産業協会の副委員長、中国工艺美术協会のメタルアート委員会の副事務局長、および中国工艺美术学会の理論委員会の委員を務めている。作品はかつて英国 V&A 博物館、中国工艺美术博物館などの美術機関に收藏されており、キュレーターとして「塔山 - 中国現代ジュエリー展」や「トリプルオーダー中国現代ジュエリー展」「三重階 - 中国現代手芸家学術ノミネート展」など、現代手芸と宝飾品分野における重要な展覧会。



**관기  
管器**  
순은, 스테인리스  
纯银、不锈钢  
純銀、ステンレス  
32×30×26(h)cm  
2020



# 은수운 殷秀云 インシウユン

1947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은수운은 1963년 베이징 공예미술학교 상아조각과 졸업 후 에 북경 공예미술공장의 조질 작업실에 들어가 50년 넘게 조질 공예 작업에 몰두했다. 은수운은 국가무형문화재 조질 공예 기술의 1호 계승자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기념 한정 작품인 '중국의 흥성'을 제작하였으며, 중앙 국제 센터의 대형 옷칠 병풍을 제작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은수운의 상아 조각 기법을 융합한 여러 대표작들은 중국 공예 미술 백화상과 국제예술박람회에서 금상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으며 2023 베이징 연경 팔정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작품은 중국공예미술관과 국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47年生于北京,中国工艺美术大师,中国非物质文化遗产雕漆技艺代表性传承人。1963年进入北京工艺美术学校象牙雕刻专业学习,毕业后进入北京工艺美术工厂雕漆工作室从事雕漆设计和制作,至今从事雕漆事业50多年。曾为中华人民共和国成立60周年制作献礼作品《鼎盛中华》雕漆大鼎,承担中央国礼中心大型雕漆屏风的制作任务。殷秀云的雕漆艺术融入了象牙雕刻技法,并开创人物主题的雕漆风格,她将雕漆与金漆、牙雕、玉雕、花丝、景泰蓝等工艺相结合,创作出《洛神赋屏风》、《丝绸之路瓶》、《仕女人物海棠瓶》、《琴棋书画瓶》、《十八罗汉圆盘》等代表作,多次获中国工艺美术百花奖、国际艺术博览会金奖。

1947年北京生まれ、中国工艺美术の大家、中国無形文化遺産彫漆技術の代表的継承者。1963年に北京工艺美术学校に象牙彫刻を専攻するために入学し、卒業後は北京工艺美术工廠の彫漆工房に入り、彫漆のデザインと制作に携わり、50年以上彫漆事業に従事した。中華人民共和国建国60周年記念作品『鼎盛中華』の漆彫大鼎を製作、中央国礼センターの大型漆彫屏風制作を請け負った。殷秀雲の漆彫刻芸術は、象牙彫刻の技術を取り入れ、人物をテーマとした漆彫刻のスタイルを生み出し、漆彫刻と金漆、象牙彫刻、翡翠彫刻、糸細工、景泰藍(七宝)などの工芸を組み合わせ、「洛神賦屏風」、「シルクロード花瓶」、「官女人物ベゴニア花瓶」、「琴棋書画瓶」、「十八羅漢円盤」などの代表作を創作して、何度も中国工艺美术百花賞、国際芸術博覧会金賞を受賞した。



단풍문봉합(楓葉紋捧盒)  
枫叶纹捧盒  
楓葉文捧盒  
옷칠, 자동  
大漆、紫銅  
大漆、赤銅  
30×30×16(h)cm  
2011



# 감이가 甘而可 ガンアーキア

감이가, 1955년 안후이 황산에서 태어나 1979년 툰시 칠기 공장에 입사하였으며 스승인 왕푸린, 위진하이 밑에서 사사하였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유산 칠기 기술 계승자인 감이가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천연 대칠 제작의 원칙을 준수하며 우아한 분위기의 고급 현대 칠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 후이저우 서피칠, 옷칠 버루 등 품종에 대한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의 작품은 중국 고궁박물관, 중국 국가 박물관, 대영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여러 권위 있는 기관에 소장되고 있다.

1955年出生于安徽黄山。中国工艺美术大师，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传承人，享受国务院特殊津贴专家。1979年进入屯溪漆器工艺厂，师从汪福林、俞金海等老艺人，一直致力于雕刻、漆工技艺的学习研究。自2001年始，对徽州犀皮漆、漆砂砚等濒临失传工艺品种进行恢复探索，并取得成功。甘而可扎根于徽派漆艺传统，恪守天然大漆制作古法原则，作品始终保持中正儒雅的气息，致力于探索以精、雅为风貌的精品漆器在新时期深化发展的最大可能性，为维护中国当代漆器的国际一流水平而坚守匠心。作品被故宫博物院、中国国家博物馆、大英博物馆、美国大都会艺术美术馆等多家权威机构收藏。

1955年安徽省黄山市生まれ。中国工芸美術の大家、国家無形文化遺産の継承者であり、国務院から特別手当を受けている専門家でもある。1979年に屯溪漆器工藝廠に入り、汪福林、俞金海というベテランアーティストに師事し、彫刻と漆工芸の研究と研究に専念してきた。2001年以来、失われつつある徽州犀皮漆、漆砂硯などの失われかけた工芸品種を復元・探査し、成功している。甘而可は、徽派漆工芸の伝統に根ざし、古代の天然漆の制作方法の原則を守り、作品に優雅な雰囲気を維持し、洗練された漆工芸の発展を深める最大の可能性を探求することに専念している。世界に誇る現代中国漆器のレベルを維持するために匠の独自性を貫いている。作品は、故宮博物院、中国国家博物館、大英博物館、米国の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など、多くの権威ある機関に収集されている。



홍금반서피칠규판형찬합  
紅金斑犀皮漆葵瓣形攢盒  
紅金斑犀皮漆葵瓣形攢盒  
천연 옷칠, 모시, 기와재, 금박, 광물질안료  
天然大漆、夏布、古瓦灰、金箔、矿物质顔料  
天然漆、麻布、古瓦灰、金箔、鉱物質顔料  
35.7×35.7×9(h)cm  
2020





종성  
钟声  
チョンシオン

종성은 1971년 랴오닝성 안산에서 태어나 1995년 중앙공예미술학원 장식 예술학과 칠예과를 졸업하고 2002년 한국으로 건너가 배재대학교 칠예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북경 공업대학 예술디자인학원 공예미술학과 교수이자 북경 공예미술산업 협회 전문가위원을 임하고 있다. 전통 옷칠공예와 현대 디자인 전환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옷칠화, 옷칠 문화재 복원 및 현대 공예미술의 창작에 힘쓰고 있다. 푸젠성 미술관과 후베이성 박물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71年出生于辽宁鞍山, 1995年毕业于原中央工艺美术学院装饰艺术系漆艺专业, 2002年毕业于韩国培材大学漆艺专业, 获硕士学位。北京工业大学艺术设计学院工艺美术系系主任, 教授, 硕士生导师, 中国美术家协会会员, 北京工艺美术行业协会专家委员。主要创作和研究方向为: 传统漆工艺与当代设计转换研究, 漆画、漆立体、漆文物修复和当代工艺美术创作

1971年に遼寧省鞍山市に生まれ、1995年に旧中央工芸美術学院裝飾美術科漆美術専攻を卒業、2002年に韓国の培材大学漆芸美術専攻で修士号取得。北京工業大学芸術デザイン学院工芸美術学部長、教授、修士指導教官、中国美術家協会会員、北京工芸美術工芸産業協会専門会員。主な創作・研究の方向性は、伝統漆工芸と現代デザインの転換に関する研究、漆絵、漆立体、漆文化財修復と現代美術工芸創作などである。



운·애  
云·霏  
云·霧  
천연 옷칠, 모시, 기와재, 당분, 나전  
天然大漆、苧麻、瓦灰、糖粉、螺鈿  
天然漆、麻布、瓦灰、糖粉、螺鈿  
75×20×100(h)cm  
2022



# 이홍파 李洪波 リーホンボ

1974년 지린성에서 태어난 이홍파는 1996년 지린 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2010년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실험예술과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현재 지린 사범대학교 교수, 지린 사범대학 중국 종이 예술 연구소 책임자, 중국 미술가협회 실험예술위원회 위원을 임하고 있다. 종이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치 있는 작업을 주로 하는 이홍파는 『종이 한 장』, 『조각 재구성』, 『Bloom』 등 전문 저서를 출판한 저자이기도 하다. 2021년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19년에는 국가 예술기금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자금지원 프로젝트 <전통을 기리다 - 현대 종이 예술 작품 순회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중국 미술관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74年生于吉林, 1996年毕业于吉林师范大学美术系, 2010年毕业于中央美术学院实验艺术系。吉林师范大学教授, 硕士研究生导师, 吉林师范大学中国纸艺术研究所负责人, 中国美术家协会实验艺术委员会委员。现长期工作、生活于北京和吉林。著有《一张纸》《雕塑重构》《Bloom》等专著。2019年度申请并执行国家艺术基金传播交流推广资助项目“致敬传统-当代纸艺术作品巡展”。

1974年吉林省生まれ、1996年吉林師範大学美術学科卒業、2010年中央美術学院実験芸術学科卒業。吉林師範大学教授、修士号取得。吉林師範大学中国紙芸研究所所長、中国美術家協会実験芸術委員会委員。現在、北京と吉林に長く住みながら働いている。著書に《紙一枚》《雕塑再構成》《Bloom》等がある。2019年度国立芸術基金コミュニケーション促進資金プロジェクト「伝統への敬礼 - 現代紙アート作品巡回展」で作品を披露。中国美術館とシンガポールアジア文明博物館に作品が収蔵されている。



평안 시리즈 - 화개부귀(花開富貴)  
平安系列 - 花开富贵  
平安シリーズ - 華開富貴  
종이  
紙  
紙  
40×40×75(h)cm  
2023



일본  
日本  
日本

|     |  |     |                            |
|-----|--|-----|----------------------------|
| 108 | 하야시 카쿠<br>林香君<br>林 香君                    | 124 | 아오키 코우도우<br>青木宏憧<br>青木 宏憧  |
| 110 | 카토우 레이키치<br>加藤令吉<br>加藤 令吉                | 126 | 무로세 카즈미<br>室瀬和美<br>室瀬 和美   |
| 112 | 14대 이마이즈미 이마에몬<br>十四代今泉今右卫门<br>十四代今泉今右衛門 |     |                            |
| 114 | 츠가네 히토무<br>津金日人梦<br>津金 日人夢               | 128 | 후지누마 노보루<br>藤沼升<br>藤沼 昇    |
| 116 | 야마모토 아카네<br>山本茜<br>山本 茜                  | 130 | 오쿠다 사유메<br>奥田小由女<br>奥田 小由女 |
| 118 | 미야타 료헤이<br>宮田亮平<br>宮田 亮平                 | 132 | 타카다 카즈모리<br>高田和司<br>高田 和司  |
| 120 | 하루야마 후미노리<br>春山文典<br>春山 文典               | 134 | 이하야 케이진<br>井隼庆人<br>井隼 慶人   |
| 122 | 오오스미 유키에<br>大角幸枝<br>大角 幸枝                | 136 | 우에하라 토시마루<br>上原利丸<br>上原 利丸 |
|     |  | 138 | 시로마 에이이치<br>城间荣市<br>城間 荣市  |

## 일본 전시 개요

이번 ‘한중일예술제 2023’ 현대공예전에 즈음하여 일본에서는 16명의 작가가 16 작품을 출품합니다. 일본 공예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공익사단법인 ‘일전’ 및 ‘일본공예회’의 도움을 받아 각 단체에 소속된 금공, 칠예, 염직, 인형, 목죽공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들로부터 선정된 작품을 제공 받았습니다.

공익사단법인 ‘일전’은 메이지 시대에 문부성이 시작한 미술 전람회인 ‘문전’을 전신으로 하는 미술 단체로 116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화·서양화·조각·공예미술·서예의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약 6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전 소속 공예미술 부문 회원 중 8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공예회’는 국가로부터 문화재보호법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인정받은 전통공예 작가나 기술자 등을 중심으로 한 단체입니다. 현재 도예, 염직, 칠예, 금공, 목죽공, 인형, 공예 등 7개 분야에서 정회원 1,200여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공예회 소속 정회원 중 8명의 작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단법인 일전’

‘일전’은, 그 전신인 문전(문부성 미술전람회)의 창설로부터 금년 116년째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미술 단체입니다. 일본화, 서양화, 조각, 공예미술, 서예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종합미술전으로서 매년 개최되어 전국의 많은 미술 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도시대의 긴 쇠국 이후, 일본은 산업 육성과 동시에 예술문화 레벨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부대신 마키노 노부아키는 오스트리아 공사 시절, 일본 미술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는 꿈을 품고 1906년 염원하던 ‘공설전’ 개최를 결정하면서 1907년 ‘문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 ‘문전’은 ‘제전’, ‘신문전’, ‘일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일본 미술계의 핵심으로서 116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화, 서양화, 조각의 세 부문이었지만 1927년 공예미술, 1948년 서예가 더해져 종합미술전이 되었습니다. 1958년부터 민간단체로서 사단법인 ‘일전’을 설립했습니다. 1968년에 개편이 이루어져 2012년부터는 공익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고 제1회 ‘일전’을 개최하고 올해, 제10회 ‘일전’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 최고 수준 작가들의 신작 3,000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열기 넘치는 행사장에서 일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공익사단법인 일본공예회’

‘일본공예회’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이른바 인간국보)를 중심으로 전통공예작가, 기술자 등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현재 공예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해 정회원 등 약 1,20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본공예회’가 문화청·도쿄도 교육위원회·NHK·아사히 신문사와 주최하는 ‘일본전통공예전’은 1954년부터 연 1회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전통공예전’은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일본의 뛰어난 전통공예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일본 공예의 기술과 아름다움이 집결하는 공모전입니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해 1965년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자 양성기술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수회는 ‘일본공예회’ 회원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전통공예전’ 지방전에서는 1999년부터 매년 ‘전통공예 어린이 감상코스’(문화청 보조 사업)에서 초·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작 체험, 출장 수업, 작품 해설회 등, 각 회장에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강사로 하는 전승사업과 기록보존 등 무형문화재(공예기술)의 보존·전승 및 공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에서는 이 모임은 달리 비교할 것이 없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 ‘일본 공예에 대해서’

일본은 예로부터 공예 대국이었습니다. 열정적 조형이 특징인 조몬 토기와 심플하고 이지적인 야요이 토기, 금속기 등 새로운 소재나 디자인적인 면에서 대륙문화를 수용하던 시대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미’의 문화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옷이나 그릇 같은 생활 속 아름다움을 도입해 나가는 공예적 발상으로 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에도 말기(19세기 중반)에는 개국에 의해서 서양 문화가 유입되자 서양적 개념인 ‘미술’이라는 개념에서 흘러나온 것에 공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근대 공예의 탄생입니다. 그 후에도 일본적인 것과 서양의 개념 사이에서 장인이 제작하는 것과 아티스트로서의 공예가가 제작하는 공예작품의 제작은 계속 되어왔습니다.

일본 공예는 장인도 아티스트도 함께 제작하는 것이며, 모두 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고도의 기술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일본 공예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日本展览概要

在“2023中日韩艺术节——现代工艺展”，日本将展出16名艺术家的16件作品。在代表日本工艺界的“公益社团法人日展”与“日本工艺会”的支持下，从这两家机构精选出金工、漆艺、染织、人形、木竹工等代表各领域的艺术家作品。

“公益社团法人日展”是一家日本美术团体，前身为在明治时代由文部省举办的美术展览会“文展”，至今已有116年的悠久历史。下设日本画、西洋画、雕塑、工艺美术、书法等五个门类，现约有600名会员。“日展”工艺美术门类会员中的8名艺术家参与本届展览。

“日本工艺会”是由根据《文化财保护法》被国家授予“重要无形文化财保持者”称号的传统工艺艺术家和技术人员等人组成的团体。下设陶艺、染织、漆艺、金工、木竹工、人形、工艺等七个门类，现约有1,200多名会员。“日本工艺会”正式会员中的8名艺术家参与本届展览。

### “公益社团法人日展”

“日展”是有116年悠久历史的日本美术团体，其前身为文展（文部省美术展览会）。由日本画、西洋画、雕塑、工艺美术、书法等5个门类组成。作为世界上独一无二的综合性美术大展，每年吸引众多美术迷前来观展。

追溯其历史，在江户时代漫长的闭关锁国政策结束之后，日本在培育产业的同时，也领略到提高艺术文化水平的必要性。时任文部大臣牧野伸显在担任奥地利公使时就抱着想提高日本美术水平的心愿，并于1906年决定举办“公设展”，1907年举办了“文展”。随后，“文展”依次改名为“帝展”、“新文展”、“日展”，在116年的历史长河中于日本美术界发挥了关键作用。

一开始只有日本画、西洋画、雕塑等三个门类，1927年和1948年分别新增工艺美术和书法后，成为综合性美术展。1958年，作为民间团体成立了社团法人“日展”。1968年进行改组，2012年成为公益社团法人。后于2014年7月通过体制改革，焕然一新举办第一届日展，今年迎来第十个年头。日本时下最高水平的艺术家新作3000件汇聚“日展”，在热充分展示日本之美。

### “公益社团法人 日本工艺会”

“日本工艺会”是以重要无形文化财保持者（所谓的人间国宝）为中心，由传统工艺艺术家和技术人员等组织的团体，现包括工艺领域重要无形文化财保持者在内，正式会员约有1200名。

从1954年开始，日本工艺会与日本文化厅、东京都教育委员会、NHK、朝日新闻社每年联合举办“日本传统工艺展”。“日本传统工艺展”是秉承《文化财保护法》的宗旨，以保护和培养日本优秀传统工艺为目的，荟萃日本工艺之技术与美的征集活动。

除此之外，为了保护和培育无形文化遗产，从1965年开始获得政府补助，召开重要无形文化财保持者暨传承者培养技术研修会。研修会以日本工艺会会员为对象，旨在保存和利用其技术而举行。

另外还有日本传统工艺展的地方展，从1999年开始每年开设“传统工艺儿童鉴赏课程”（文化厅补助项目），以中小学生或高中生为对象，在各会场举办制作体验、上门授课、作品讲解等各种活动。

日本工艺会还开展将重要无形文化财保持者作为讲师的传承事业，以及记录保存等有关保存、传承及公开非物质文化遗产（工艺技术）的事业。该会在这一项目的表现可谓独一无二。

### “关于日本工艺”

日本自古以来就是工艺大国。以热情造型为特征的绳文土器、以简单理智为特征的弥生土器、金属器等的新材料或设计方面，也经历过接受大陆文化的时代，并形成了自己独特的“美”的文化。那是以在隔扇和器皿等生活中融入美的工艺构思制作的。

随着江户时代末期（19世纪中叶）开国，西方文化传入日本后，不符合西方的“美术”概念的物品都被称为“工艺”。这就是日本近代工艺的诞生。此后，在日本工艺和西方的美术概念的差距中，工匠和艺术家们都在继续从事制作与创作工艺品。

日本工艺是由工匠和艺术家共同创造的，都是通过对素材的深刻理解和与之相伴的高超技术来表现的。这就是所谓的日本工艺的特点吧。

## 日本展示概要

今回の日中韓芸術祭 2023・現代工芸展にあたり、日本からは16名の作家による16作品を出展します。日本の工芸界を代表する団体である、公益社団法人日展及び公益社団法人日本工芸会のご協力を得て、各団体を代表する作家から、選りすぐりの作品をご提供いただきました。

公益社団法人日展は、もともと明治時代に文部省が始めた美術展覧会である「文展」をその前身とする美術団体で、116年の歴史があります。日本画・洋画・彫刻・工芸美術・書の5つの部門からなり、現在、約600名の会員が所属しています。今回の展覧会には、所属する工芸美術部門の会員の中から8名の作家が参加しています。一方、公益社団法人日本工芸会は、国から、文化財保護法で重要無形文化財保持者として認定された伝統工芸作家や技術者等を中心とした団体です。現在、陶芸、染織、漆芸、金工、木竹工、人形、諸工芸の7つの分野に正会員約1,200名が所属しています。今回の展覧会には、所属する正会員の中から8名の作家が参加しています。

### 公益社団法人日展について

**日展**は、その前身である文展(文部省美術展覧会)の創設から今年116年目を迎える伝統ある美術団体です。日本画、洋画、彫刻、工芸美術、書と5つの部門からなり、世界でも類をみない総合美術展として毎年開催され、全国の多くの美術ファンを集めています。

その歴史をさかのぼれば、江戸時代の長い鎖国の後、日本は産業の育成と同時に芸術文化のレベルアップの必要性を感じていました。文部大臣の牧野伸顕は、オーストリア公使時代より日本の美術の水準を高めたいという夢を抱いており、1906年に念願の公設展開催を決め、1907年に「文展」が開催されました。その後、「文展」は「帝展」「新文展」「日展」と名称を変えつつ日本の美術界の中核として、116年の歴史を刻んでいます。当初は日本画、洋画、彫刻の三部門でしたが、1927年に工芸美術、1948年に書が加わり総合美術展となりました。1958年より民間団体として社団法人日展を設立。68年に改組が行われ、2012年からは公益社団法人となりました。そして2014年7月より新体制となり、改組新第1回日展を開催し、今年は第10回日展となります。

現代を生きる、日本の最高レベルの作家の新作3,000点が一堂に会す、熱気あふれる会場から日本の美のいまを体感いただけます。

### 公益社団法人日本工芸会について

**日本工芸会**は、重要無形文化財保持者(いわゆる人間国宝)を中心に伝統工芸作家、技術者等で組織する団体で、現在、工芸分野重要無形文化財保持者を含め正会員約1,200名が所属しています。

同会が文化庁・東京都教育委員会・NHK・朝日新聞社と主催する「日本伝統工芸展」は、1954年から年一回毎年開催しています。「日本伝統工芸展」は、文化財保護法の趣旨にそって、日本の優れた伝統工芸の保護と育成を目的に、日本工芸の技と美が集結する公募展です。

このほかにも、無形文化財の保護育成を図るために、1965年より国の補助金を得て、重要無形文化財保持者による伝承者養成技術研修会を開催しています。研修会は、日本工芸会の会員を対象に、その技術の保存と活用を図るために行っています。

さらに日本伝統工芸展の地方展では、1999年より毎年、「伝統工芸こども鑑賞コース」(文化庁補助事業)にて、小・中学生や高校生などを対象に、制作体験、出張授業、作品解説会など、各会場で企画した様々なプログラムを開催しています。重要無形文化財保持者を講師とする伝承事業や記録保存等を行うなど無形文化財(工芸技術)の保存・伝承及び公開に関する事業を推し進め、その実績では、同会は他に比較するもののない唯一の組織です。

### 日本の工芸について

日本は古来より工芸大国でありました。情熱的な造形が特徴的な縄文土器やシンプルで理知的な弥生土器、金属器など新しい素材やデザインの面でも大陸文化を受容した時代を経て、独自の「美」の文化が形成されていきます。それは襖や器といった生活の中に美を取り入れていく工芸的な発想で制作されたものたちでした。

江戸末期(19世紀半ば)の開国によって、西洋文化が流入してくると、西洋的概念である「美術」という概念からこぼれおちたものに「工芸」という名がつけられました。日本の近代工芸の誕生です。その後も、日本的なるものと西洋の概念とのほざまで、職人の製作するものと、アーティストとしての工芸家が制作するものと、工芸作品の制作は続いてきました。

日本の工芸は、職人もアーティストも共に制作するものでありつつ、いずれも素材に対する深い理解とそれに伴う高度な技術によって表現されたものです。それこそが日本の工芸の特質と言えるでしょう。

# 하야시 카쿠 林香君 林 香君

하야시 카쿠는 1978년 도쿄 예술대학 미술학부 졸업했으며 현재 문성예술대학 명예교수이자 일전회원이다. 섬세하면서도 구조적인 도자 조형 작품을 선보이는 하야시 카쿠는 1990년 제22회 일전에서 입선하였고 2009년 제41회 일전에서는 작품 「화엄」으로 특선을 받았다. 2012년에는 제44회 일전 「-기도의 모양-제2악장」으로 특상을 거머쥐었다. 일본 각지와 프랑스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그녀의 작품은 미국과 일본 등 국내외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1978年、毕业于东京艺术大学美术学部。1990年、首次入选第22届日展。2009年，《华严'09》在第41届日展获得特选奖。2012年，《-祈拜形象-第二乐章》在第44届日展荣获特选奖。现任日展会员、文星艺术大学名誉教授。

1978年、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卒業。1990年、第22回日展初入選。2009年、第41回日展「華嚴'09」により特選受賞。2012年、第44回日展「-祈りのかたち-第二楽章」により特選受賞。現在、日展会員。文星芸術大学名誉教授。



평화를 향한 파동  
面向和平的波动  
平和への波動  
도토, 백금, 금박  
陶土、白金、金箔  
陶土、プラチナ、金箔  
70×23×39(h)cm  
2023



# 카토우 레이키치 加藤令吉 加藤 令吉

1953년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카토우 레이키치는 1976년 다마가와대학 문학부 예술학과 졸업했으며 현재 일본의 권위있는 전람회인 일전(日展) 회원이다. 오랜 기간 대를 이어 도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사를 바탕으로 도자 조형을 제작하고 있다. 1985년, 제17회 <일전>에서 작품 「성하」로 특선을 수상하였고 1997년에는 「유구」를 제작하여 특선을 수상하였다. 최근 2022년 제9회 일전에서는 작품 「위-추억의 초」로 도쿄도지사상을 받았다. 카토우 레이키치의 작품은 현재 세토시 미술관, 아이치현 도자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53年、出生于爱知县。1976年、毕业于玉川大学文学部艺术学系。1976年、首次入选第8届日展。1985年、《星河》在第17届日展获得特选奖。1997年、《悠久》在第29届日展获得特选奖。2006年、《响奏》在第38届日展荣获日展会员奖。2022年、《威-追忆的抄》在第9届日展荣获东京都知事奖。现任日展会员。

1953年、愛知県生まれ。1976年、玉川大学文学部芸術学科卒業。1976年、第8回日展初入選。1985年、第17回日展「星河」により特選受賞。1997年、第29回日展「悠久」により特選受賞。2006年、第38回日展「響奏」により日展会員賞受賞。2022年、第9回日展「威-追憶の抄」により東京都知事賞受賞。現在、日展会員。

作品収蔵先 日展会館、愛知県陶磁美術館、瀬戸市美術館、古川美術館、中国江西省陶瓷研究所、台北県立鶯歌陶瓷博物館、韓国利川市役所、外務省 ほか



위황채  
威煌彩  
威一煌彩  
도토, 백금  
陶土、白金  
陶土、プラチナ  
51×30×62(h)cm  
2023





# 14대 이마이즈미 이마에몬 十四代今泉今右衛門 十四代今泉今右衛門

14대 이마이즈미 이마에몬은 1962년 사가현에서 태어나 1985년 무사시노미술대학 공예 공업 디자인학과에서 금공(金工)을 졸업했으며, 1998년 일본 전통공예전 일본공예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2002년에는 14대 이마이즈미 이마에몬을 계승했다. 2004년 일본전통 공예전 도쿄도지사상을 수상, 2008년 MOA 오카다 모키치상 공예부문 우수상을 수상, 2009년에는 자수포장을 수상하였다. 2014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색회자기(色繪磁器)」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영국 대영박물관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박물관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야쿠시지 등 여러 곳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十四代今泉今右衛門1962年出生于日本佐贺县。1985年毕业于武藏野美术大学工艺工业设计系，专攻金属工艺。1998年，荣获日本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会长奖。2002年成为今泉今右卫门的第十四代传人。2004年荣获日本传统工艺奖的东京都知事奖。2008年荣获MOA冈田茂吉工艺部门的优秀奖。2009年荣获紫绶勋章。2014年被认定为重要无形文化遗产“色绘瓷器”的持有者。他的作品被英国大英博物馆和新西兰奥克兰博物馆，东京国立近代美术馆，药师寺等多处收藏。

1962年、佐賀県生まれ。1985年、武蔵野美術大学工芸工業デザイン学科(金工専攻)卒業。1998年、日本伝統工芸展日本工芸会会長賞受賞。2002年、十四代今泉今右衛門を襲名。2004年、日本伝統工芸展 東京都知事賞受賞。2008年、MOA 岡田茂吉賞工芸部門優秀賞受賞。2009年、紫綬褒章 受章。2014年、重要無形文化財「色繪磁器」の保持者に認定。作品收藏先大英博物館、オークランド博物館、東京国立近代美術館、薬師寺 ほか



색회설화 박목 스미하지키 사계화문개부병  
雪花薄墨四季花纹盖瓶  
色繪雪花薄墨はじき四季花文蓋付瓶  
자토  
瓷器  
31.5×31.5×55.7(h)cm  
2022



# 츠가네 히토무 津金日人夢 津金 日人夢

1973년 구마모토에서 태어난 츄가네 히토무는 1993년 아리타 요업대학교 물레과를 수료했다. 2010년 서부전통공예전에서 일본공예회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 서부전통공예전에서 오키나와 타임즈사 상을 수상, 2014년 서부전통공예전 QAB 류큐 아사히 방송상을 수상했다. 2015년 서부전통공예전 KAB 쿠마모토 아사히 방송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전통공예도예부회전에서 일본공예회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서부전통공예전 KAB 구마모토 아사히 방송상을 수상, 그 후 2021년에는 서부전통공예전 KKB 가고시마 방송상을 수상했다. 츄가네 히토무의 작품은 일본 공내청에 소장되어 있다.

津金日人夢1973年出生于日本熊本县。1993年毕业于有田陶瓷大学的陶瓷专业。2010年荣获西部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奖。2012年荣获西部传统工艺展的冲绳时报社奖。2014年荣获西部传统工艺展的QAB琉球朝日放送奖。2017年在传统工艺陶瓷工艺部门展上获得日本工艺协会奖。2019年在西部传统工艺展上获得 KAB 熊本朝日放送奖，之后又在2021年西部传统工艺展上获得 KKB 鹿儿岛放送奖。他的作品被日本宫内厅收藏。

1973年、熊本県生まれ。1993年、有田窯業大学校口ク口科修了。2010年、西部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賞受賞。2012年、西部伝統工芸展 沖縄タイムズ社賞受賞。2014年、西部伝統工芸展 QAB琉球朝日放送賞受賞。2015年、西部伝統工芸展 KAB熊本朝日放送賞受賞。2017年、伝統工芸陶芸部会展 日本工芸会賞受賞。2019年、西部伝統工芸展 KAB熊本朝日放送賞受賞。2021年、西部伝統工芸展 KKB鹿児島放送賞受賞。作品収蔵先 宮内庁



청자편호 「수천방물」  
靑瓷扁壺 — 水天彷彿  
靑瓷平偏壺「水天彷彿」  
도토  
陶土  
47×44.5×24(h)cm  
2023



# 야마모토 아카네 山本茜 山本 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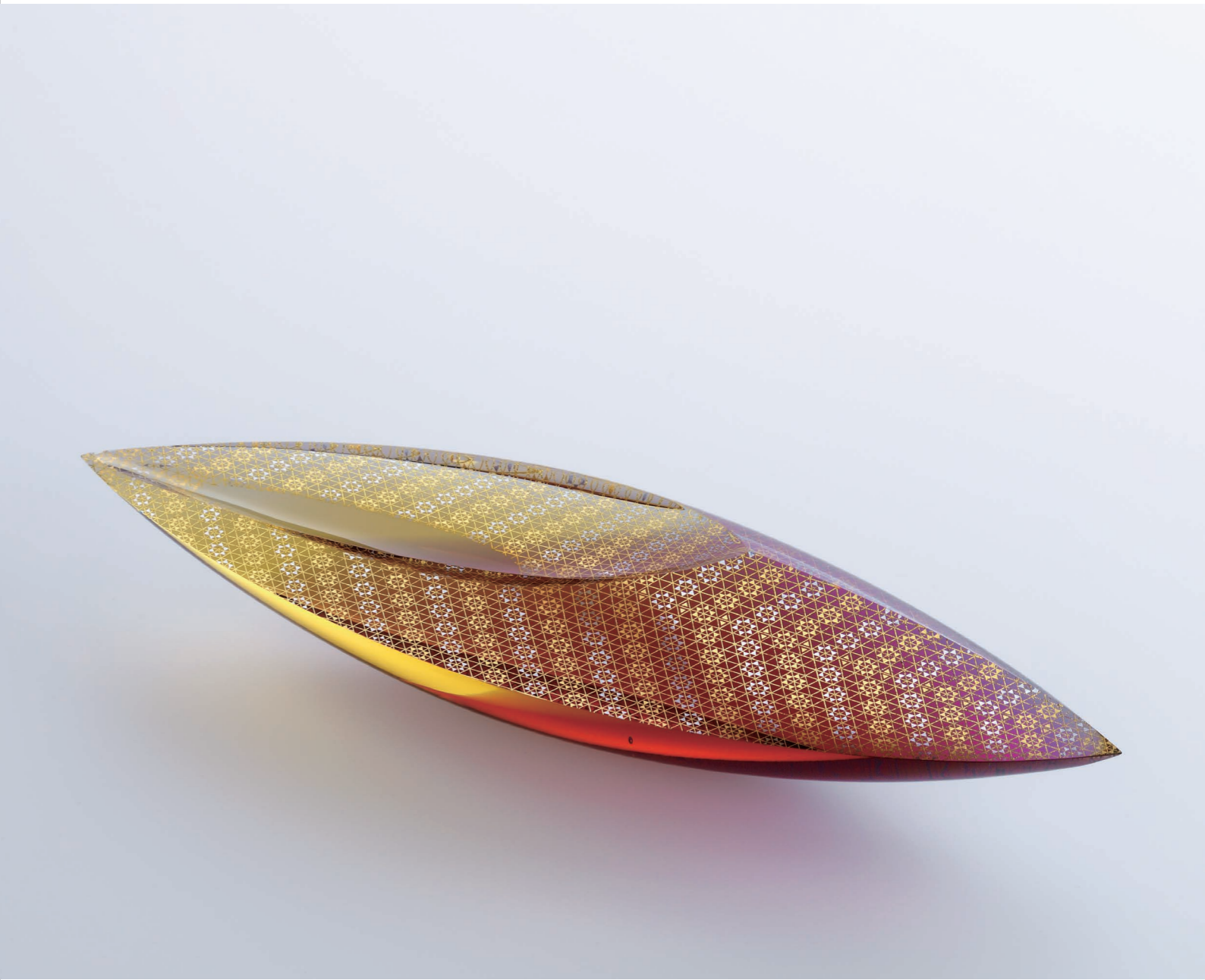
1977년 이시카와현에서 태어난 야마모토 아카네는 2001년 교토시립예술대학 미술학부 미술과에서 일본화(모사·수묵화)를 전공하고 2011년 도야마유리조형연구소 조형과를 졸업하였다. 2013년 국제유리전에서 가나자와 2013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 제61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 NHK 회장상을 수상, 2015년 제35회 전통문화폴라상 장려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제34회 교토부문화상 장려상을 수상, 2020년엔 제33회 교토미술문화상을 수상, 2021년에는 제1회 [고전의 날] 문화기금상을 받았다. 작품은 일본공내청, 대영박물관, 도야마시 유리미술관, 사노시립 요시자와기념미술관, 가나자와시립 나카무라기념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山本茜1977年出生于日本石川县，2001年毕业于京都市立艺术大学日本画系（临摹-水墨画），2011年毕业于富山玻璃艺术学院造型艺术系。2013年荣获国际玻璃展的金泽2013奖励奖。2014年荣获第61届日本传统工艺品展的NHK会长奖。2015年荣获传统文化宝丽奖的奖励奖。2016年荣获第34届京都府文化奖的奖励奖。之后又获得过2020年的第33届京都艺术文化奖和 2021年的古典之日文化基金奖。他的作品被日本宫内厅、大英博物馆、富山市玻璃美术馆、佐野市立吉泽美术馆和金泽市立中村纪念美术馆等多处收藏。

1977年、石川県生まれ。2001年、京都市立芸術大学美術学部美術科日本画（模写・水墨画）専攻卒業。2011年 富山ガラス造形研究所造形科卒業。2013年、国際ガラス展・金沢 2013 奨励賞受賞。2014年、第 61 回日本伝統工芸展 NHK 会長賞受賞。2015年第 35 回伝統文化ポーラ賞 奨励賞受賞。2016年、第 34 回京都府文化賞奨励賞受賞。2020年、第 33 回京都美術文化賞受賞。2021年、第 1 回「古典の日文化基金賞」受賞。作品收藏先 宮内庁、大英博物館、富山市ガラス美術館、佐野市立吉澤記念美術館、金沢市立中村記念美術館 ほか



일엽주(가을)  
一叶舟 (秋)  
一葉舟 (秋)  
유리, 금박, 백금박  
玻璃、金箔、白金箔  
ガラス、金箔、プラチナ箔  
28×9×6.1(h)cm  
2023



# 미야타 료헤이 宮田亮平 宮田 亮平

1945년 니가타현에서 태어난 미야타 료헤이는 1970년 도쿄 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예과를 졸업하고 1972년 동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공예(단금)전공을 수료했다. 현재 도쿄예술대학 명예교수이자 일본 예술원회원, 일전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돌고래를 모티브로 한 「슈플링겐」시리즈로 유명한 미야타 료헤이는 1970년부터 일전에서 입선과 특선, 내각총리장관상, 일본 예술원상을 수상했다. 2005년 도쿄 예술대학 학장을 하고 2016년 문화청 장관에 임명됐을 만큼 일본의 공예에 큰 영향을 주는 작가이다.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출품된 그의 작품은 도쿄도 미술관, 도쿄역<은방울>, 일본 약사사, 국립공예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45年出生于新潟县。1970年毕业于东京艺术大学美术学部工艺系。1972年结业于同所大学研究生院美术研究系工艺(锻金)专业。1970年首次入选第2届日展。1981年《从凝胶过渡『8』》在第13届日展获得特选奖。1997年《弹弓》在第29届日展获得特选奖。2005年就任东京艺术大学校长。2009年《Springen『悠』》在第41届日展荣获内阁总理大臣奖。2012年《Springen『翔』》在第43届日展荣获日本艺术院奖。2016年就任文化厅长官。现任日展理事长、日本艺术院会员、东京艺术大学名誉教授兼顾问。他的作品被东京都美术馆、东京车站《银铃》、药师寺、国立工艺馆等地收藏。 1945年、新潟県生まれ。1970年、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工芸科卒業。1972年、同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工芸(鍛金)専攻修了。1970年、第2回日展初入選。1981年、第13回日展「ゲルからの移行『8』」により特選受賞。1997年、第29回日展「ぱーるんぐ」により特選受賞。2005年、東京芸術大学学長就任。2009年、第41回日展「シュプリングン『悠』」により内閣総理大臣賞受賞。2016年、文化庁長官就任。現在、日展理事長、日本芸術院会員、東京芸術大学名誉教授・顧問。2022年、日展理事長就任。2023年、日本芸術院会員就任。作品收藏先 東京都美術館、東京駅「銀の鈴」、薬師寺、国立工芸館ほか。



슈플링겐  
飞翔  
シュプリングン  
알루미늄, 금박, 은박, 색박  
铝、金箔、银箔、色箔  
アルミニウム、金箔、銀箔、色箔  
66×14×58(h)cm  
2023



# 하루야마 후미노리 春山文典 春山 文典

1945년 나가노현에서 태어난 하루야마 후미노리는 금속공예가 하시다 슈고로(蓮田修吾郎)에게 기술을 배우고 1971년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를 수료했다. 알루미늄을 사용해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는 2006년 요코하마 미술 단기 대학(현·요코하마 미술 대학) 학장을 맡았었고 현재 요코하마 미술대학 명예교수이자 일본 예술원 회원이다. 제9회 일전에서 입선, 제11회, 16회 일전에서는 「사각기둥 인 섹션」과 「무한표」를 출품해 특선을 수상했다. 작품 「바람의 문」으로는 제32회 일전에서 문부대신상을 받았다. 2016년 새로 개편된 제2회 일전에서는 출품작 ‘하늘의 강’으로 일본 예술원상을 거머쥐었다. 그의 작품은 공공기관, 오사카부립산업기술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45年、出生于长野县。师从莲田修吾郎。1971年、毕业于东京艺术大学研究生院美术研究系。1977年、首次入选第9届日展。1979年、《四角柱in section》在第11届日展获得特选奖。1984年、《无限标》在第16届日展获得特选奖。2000年、《风之门》在第32届日展荣获文部大臣奖。2006年、就任横滨美术短期大学(今横滨美术大学)校长。2016年、《天空之河》在改组后的新第2届日展荣获日本艺术院奖。现任日展理事、日本艺术院会员、横滨美术大学名誉教授。

1945年、長野県生まれ。蓮田修吾郎に師事。1971年、東京芸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修了。1977年、第9回日展初入選。1979年、第11回日展「四角柱イン・セクション」により特選受賞。1984年、第16回日展「無限標」により特選受賞。2000年、第32回日展「風の門」により文部大臣賞受賞。2006年、横浜美術短期大学(現・横浜美術大学)学長。2016年、改組新第2回日展出品作「宙の河」により日本芸術院賞受賞。現在、日展理事、日本芸術院会員、横浜美術大学名誉教授。作品収蔵先 日本芸術院、伊勢神宮美術館、おぶせミュージアムほか。また、モニュメント設置多数



큐빅 허공·꽃  
宝石天空·花  
キュービック 宙・華  
알루미늄  
铝  
アルミニウム  
40×39×41(h)cm  
2018  
오부세뮤지엄소장  
Obuse 博物館藏  
おぶせミュージアム所蔵



# 오오스미 유키에 大角幸枝 大角 幸枝

1945년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난 오오스미 유키에는 1969년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예술학과 졸업하였으며, 2015년 중요무형문화재 「단금」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1986년 제33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 일본공예회 장려상을 수상, 1987년 제34회 일본전통공예전 일본공예회 총재상을 수상, 2009년 제56회 일본전통공예전 일본공예회 보유자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자수포장을 수상하였고, 2015년 제17회 오카다 모키치상 공예부문 MOA 미술관상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육일소수장을 수상하였다. 오오스미 유키에의 작품은 일본 문화청, 도쿄국립근대미술관, MOA 미술관, 영국 빅토리아앤알버트박물관 미국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등에 소장되어 있다.

大角幸枝1945年出生于日本静岡県。1969年毕业于东京艺术大学美术学部艺术科。1986年荣获第33届日本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奖励奖。1987年荣获第34届日本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总裁奖。2009年荣获日本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保持者奖。2010年荣获紫绶褒章。同年又荣获第17届冈田茂吉赏工艺部门的MOA美术馆奖。2015年被认定为重要无形文化遗产“锻金”的持有者。2017年荣获旭日小绶章。他的作品被日本文化厅、东京国立近代美术馆、MOA美术馆、英国维多利亚与阿尔伯特博物馆、美国纽约大都会美术馆等多处收藏。

1945年、静岡県生まれ。1969年、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芸術学科卒業。1986年、第33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奨励賞受賞。1987年、第34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総裁賞受賞。2009年、第56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保持者賞受賞。2010年、紫綬褒章受章。2010年、第17回岡田茂吉賞 工芸部門 MOA美術館賞受賞。2015年、重要無形文化財「鍛金」保持者に認定。2017年、旭日小綬章受章。作品収蔵先 文化庁、東京国立近代美術館、MOA美術館、ヴィクトリア & アルバート博物館、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 ほか



은타출하기 「석조」  
银打出花器—夕照  
銀打出花器「夕照」  
금, 은, 납  
金、银、铅  
金、銀、鉛  
31×28.7×21.5(h)cm  
2021



아오키 코우도우  
青木宏憧  
青木 宏憧

1976년 도쿄에서 태어난 아오키 코우도우는 스승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마스무라 기이치로와 미타무라 유즈미에게 칠공예를 배웠다. 2003년 도쿄 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예과를 졸업한 뒤 2005년 동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칠예를 수료한 아오키 코우도우는 현재 도쿄예술대학 준교수이자 일전 회원이다. 생명체를 모티브로한 건칠작업을 주로 선보이는 작가는 2012년에 일전에서 입선했으며, 2014년, 2017년 개편한 일전에서 작품 「모리하코-호봉-」와 「수함-해월」로 연이어 특선을 수상했다. 도쿄예술대학교 미술관 등 여러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76年、出生于东京都。师从増村紀一郎、三田村有純。2003年、毕业于东京艺术大学美术学部工艺系。2005年、结业于同所大学研究生院美术研究系漆艺专业。2012年、首次入选第44届日展。2014年、《守箱-胡蜂-》在改组后的新第1届日展获得特选奖。2017年、《守箱·海月》在改组后的新第4届日展荣获特选奖。现任日展会员、东京艺术大学副教授。

1976年、東京都生まれ。増村紀一郎、三田村有純に師事。2003年、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工芸科卒業。2005年、同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漆芸専攻修了。2012年、第44回日展初入選。2014年、改組新第1回日展「守箱-胡蜂-」により特選受賞。2017年、改組新第4回日展「守箱・海月」により特選受賞。現在、日展会員。東京芸術大学准教授。作品収蔵先 東京芸術大学大学美術館、ミネアポリス美術館(アメリカ)、石川県輪島漆芸美術館、MINKA 現代美術館(アルゼンチン) ほか



칠흑경 투구벌레  
漆黑鏡-甲虫  
漆黑鏡 かぶとむし  
옷칠, 삼베, 철, 목재, 나전  
大漆、麻布、鉄、木材、螺鈿  
漆、麻布、鉄、木材、螺鈿  
60.5×24.3×71(h)cm  
2023



# 무로세 카즈미 室瀬和美 室瀬 和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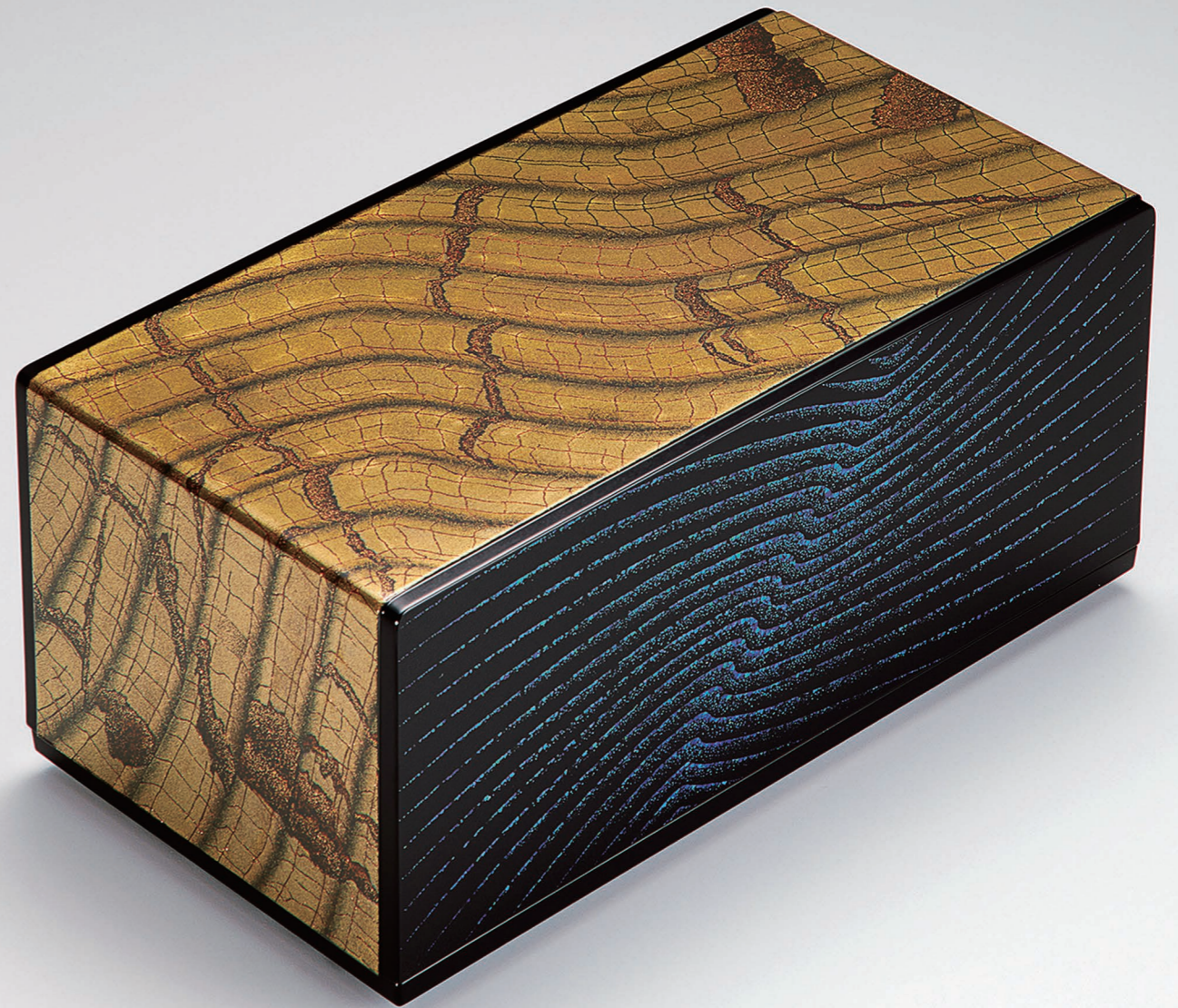
1950년 도쿄에서 태어난 무로세 카즈미는 1976년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에서 칠예전공을 수료했다. 1985년, 제32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 일본공예회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 제47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는 도쿄도지사상을 받았다 2002년 제49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 일본공예회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 일본문화예술진흥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마키에」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같은 해, 자수포장을 수상하였다. 2021년에는 옥일소수장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일본문화청, 도쿄예술대학, 일본 국립공예관, 대영박물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영국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室瀬和美1950年出生于日本东京。1976年在东京艺术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专攻漆艺并完成学业。1985年荣获第31届日本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奖励奖。2000年荣获第47届日本传统工艺展的东京都知事奖。2002年荣获第49届日本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奖励奖。2006年荣获日本文化艺术振兴奖。2008年被授予重要无形文化遗产“蒔绘”保持者的称号。同年又被授予紫绶褒章。并于2021年被授予旭日小绶章。他的作品被日本文化厅、东京艺术大学、国立工艺馆、大英博物馆、美国大都会美术馆、英国维多利亚和阿尔伯特博物馆等众多场所收藏。

1950年、東京都生まれ1976年、東京芸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漆芸専攻修了。1985年、第32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奨励賞受賞。2000年、第47回日本伝統工芸展 東京都知事賞受賞。2002年、第49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奨励賞受賞。2006年、日本文化芸術振興賞受賞。2008年、重要無形文化財「蒔絵」の保持者に認定。2008年、紫綬褒章受章。2021年、旭日小綬章受章。作品収蔵先文化庁、東京芸術大学、国立工芸館、大英博物館、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ヴィクトリア&アルバート博物館 ほか



마키에 나전장수함 「지동」  
蒔絵螺鈿長手箱—地動  
蒔絵螺鈿長手箱「地動」  
편백나무, 금가루, 나전  
扁柏木、金粉、螺鈿  
檜材、金鍍粉、螺鈿  
14.8×28×12.8(h)cm  
2022





# 후지누마 노보루 藤沼升 藤沼昇

후지누마 노보루는 1945년 도치기현에서 태어났다. 1986년 제33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 일본공예회 회장상을 수상하였고 1992년 제39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는 도쿄도지사상을 받았다. 2004년에는 자수포장을 수상하였고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 「대나무공예」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2015년 옥일소수장을 받았다. 후지누마 노보루의 작품은 미국 시카고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대영박물관, 일본 MOA 미술관,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藤沼升1945年出生于日本栃木县。1986年荣获第33届日本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会长奖。1992年荣获第39届日本传统工艺展的东京都知事奖。2004年荣获紫绶勋章。2012年被授予国家重要无形文化遗产“竹工艺品”的持有者。2015年荣获旭日小绶章。他的作品在美国芝加哥美术馆、大英博物馆、美国纽约大都会美术馆、日本MOA美术馆、东京国立近代美术馆等多地被收藏。

1945年、栃木県生まれ。1986年、第33回日本伝統工芸展日本工芸会会長賞受賞。1992年、第39回日本伝統工芸展 東京都知事賞受賞。2004年、紫綬褒章受章。2012年、重要無形文化財「竹工芸」の保持者に認定。2015年、旭日小綬章受章。作品収蔵先シカゴ美術館、大英博物館、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MOA美術館、東京国立近代美術館 ほか



근곡죽화람 「춘조」  
根曲竹花籃—春潮  
根曲竹花籃「春潮」  
대나무  
竹  
55×55×40(h)cm  
2017

MOA미술관소장  
MOA美術館藏  
MOA美術館藏



# 오쿠다 사유메 奥田小由女 奥田 小由女

1936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오쿠다 사유메는 현재 일본 현대공예미술가협회 이사장이자 일본예술원 회원, 일전 고문을 맡고 있다. 정교한 인형제작으로 2008년 문화 공로자로 인정받은 오쿠다 사유메는 2006년 화가이자 남편인 오쿠다 모토마츠와 함께 미술관을 건립했다. 1967년 제10회 일전에서 입선을 한 뒤 1972년, 1974년 일전에서는 작품 「어느 페이지」와 「바람」으로 특선을 연이어 수상했다. 1988년과 1990년 일전에서는 「바다의 시」, 「염심」을 출품하여 문부대신상과 일본 예술원상을 받아 실력을 입증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인형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1936年、出生于大阪府。1967年、首次入选第10届日展。1972年、《某页》在第4届日展获得特选奖。1974年、《风》在第6届日展获得特选奖。1988年、《海之诗》在第20届日展荣获文部大臣奖。1990年、《炎心》在第21届日展荣获日本艺术院奖。2006年、奥田元宋·小由女美术馆开馆。2008年、获得“文化功劳者”称号。2013年、就任日展事务局长。2014年、就任日展理事长。现任日展顾问、日本艺术院会员、现代工艺美术家协会理事长。

1936年、大阪府生まれ。1967年、第10回日展初入選。1972年、第4回日展「或るページ」により特選受賞。1974年、第6回日展「風」により特選受賞。1988年、第20回日展「海の詩」により文部大臣賞受賞。1990年、第21回日展出品作「炎心」により日本芸術院賞受賞。2006年、奥田元宋・小由女美術館開館。2008年、文化功劳者顕彰。2014年、日展理事長。2020年、文化勲章受章。現在、日展顧問、日本芸術院会員、現代工芸美術家協会理事長。作品収蔵先 奥田元宋・小由女美術館 ほか



평화를 향한 기도  
祈求和平  
平和への祈り  
호분, 안료  
胡粉、顔料  
54×27×78(h)cm  
2022



# 타카다 카즈모리 高田和司 高田 和司

1975년 기후현에서 태어난 타카다 카즈모리는 1994년 기후현립 요시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019년 제 60회 이시카와 전통공예전에서 호쿠니은행장상을 받았고 같은 해 제 66회 일본전통공예전에 초(初)입선하였다. 2020년 제30회 전통공예인형전에서 미쓰코시 이세탄상을 수상, 2021년 제68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 다카마쓰노미야 기념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는 제63회 이시카와 전통공예전 북국은행장상, 제31회 전통공예인형전 MOA 미술관상, 이시카와현 문화장려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은 여러 개인 소장가들에 의해 소장되어 있다.

高田和司 1975 年出生于日本岐阜县。1994 年从岐阜县立吉祥高中毕业。2019 年荣获第 60 届石川传统艺术工艺展北国银行行长奖，同年还初次入选第 66 届日本传统工艺展。2020 年荣获第 30 届石川传统艺术人偶展三越伊势丹奖。2021 年荣获第 68 届日本传统工艺展的高松宫纪念奖。2023 年同时荣获了第 63 届石川传统艺术工艺展北国银行行长奖，第 31 届传统艺术人偶展的 MOA 美术馆奖，石川县文化鼓励奖的三项荣誉。作品被多位个人收藏家收藏。

1975 年、岐阜県生まれ。1994 年、岐阜県立吉城高等学校卒業。2019 年、第 60 回石川の伝統工芸展 北国銀行頭取賞受賞。2019 年、第 66 回日本伝統工芸展 初入選。2020 年、第 30 回伝統工芸人形展 三越伊勢丹賞受賞。2021 年、第 68 回日本伝統工芸展 高松宮記念賞受賞。2023 年、第 63 回石川の伝統工芸展 北国銀行頭取賞受賞。2023 年、第 31 回伝統工芸人形展 MOA 美術館賞受賞。2023 年、令和 4 年度石川県文化奨励賞受賞。作品収蔵先 個人蔵



만달레이의 새벽  
曼德勒的黎明  
マンダレーの夜明け  
오동나무, 일본종이  
梧桐树、和紙  
桐、和紙  
13×11.5×36(h)cm  
2023



# 이하야 케이진 井隼 庆人 井隼 慶人

1941년 교토에서 태어난 이하야 케이진은 스승이자 섬유예술가인 코아이 토모노스케(小合友之助)와 사노 다케오(佐野武夫), 미우라 게이오(三浦景生)에게 기술을 배웠다. 1967년, 교토시립미술대학(현 교토시립예술대학) 공예과 염직전공을 수료했으며 현재 교토시립예술대학 명예교수이자 일전 이사를 맡고 있다. 선명한 색감과 독특한 도안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이하야 케이진은 1979년 제11회 일전에 입선 하기 시작하여 1987년과 1993년 작품 「산기(山気)」와 「정운(静韻)」으로 특선을 수상했다. 2016년, 2019년 개편한 일전에서는 「봄이 간다», 「적일석하」 작품을 출품하며 일전 회원상과 문부과학장관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교토시미술관, 오사카대학, MIHO뮤지엄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41年、出生于京都府。师从小合友之助、佐野猛夫、三浦景生。1967年、毕业于京都市立美术大学(今京都市立艺术大学)工艺系染织专业。1979年、首次入选第11届日展。1987年，《山气》在第19届日展获得特选奖。1993年，《静韵》在第25届日展获得特选奖。2016年，《春逝》在改组后的新第3届日展荣获日展会员奖。2019年，《积日惜夏》在改组后的新第6届日展荣获文部科学大臣奖。现任日展理事、京都市立艺术大学名誉教授。

1941年、京都府生まれ。小合友之助、佐野猛夫、三浦景生に師事。1967年、京都市立美術大学(現・京都市立芸術大学)工芸科染織専攻科修了。1979年、第11回日展初入選。1987年、第19回日展「山気」により特選受賞。1993年、第25回日展「静韻」により特選受賞。2016年、改組 新第3回日展「春のゆく」により日展会員賞受賞。2019年、改組 新第6回日展「積日惜夏」により文部科学大臣賞受賞。現在、日展理事、京都市立芸術大学名誉教授。作品收藏先 京都府立文化芸術会館、京都国立近代美術館ほか



파  
葱  
면포  
棉布  
綿布  
120×168cm  
2021



# 우에하라 토시마루 上原利丸 上原 利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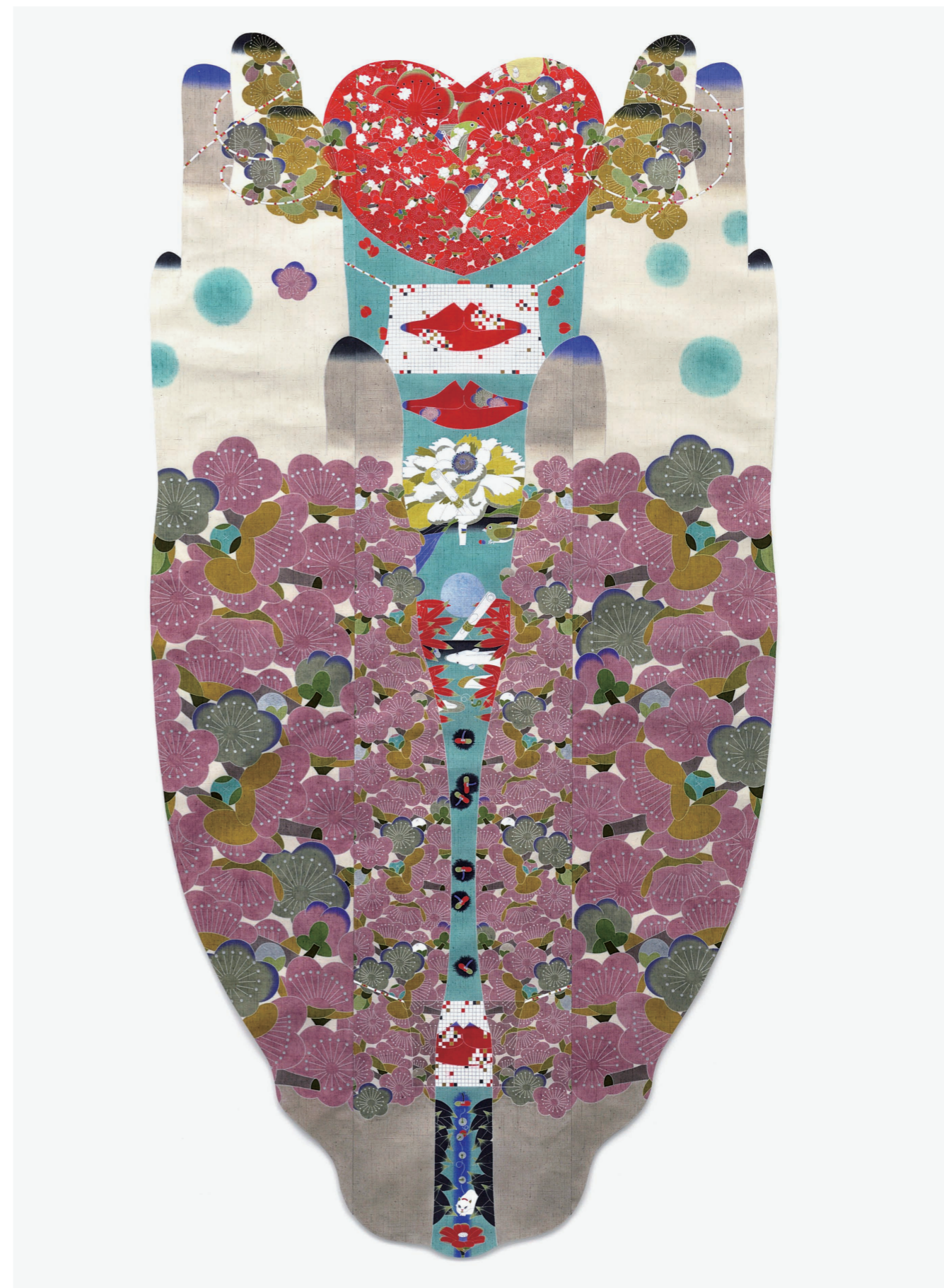
1955년 가고시마에서 태어난 우에하라 토시마루는 1979년 도쿄 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예과를 졸업하고 1981년 동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공예전공 석사학위 취득 분야를 수료했다. 색채의 대비와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조절한 염직공예를 제작하는 우에하라 토시마루는 현재 도쿄예술대학 명예교수이자 문성예술대학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일전 회원이기도 한 작가는 1980년 제12회 일전에 처음 입선하였고 2007년과 2013년 일전에서 「새로운 기분에 물들다」와 「광음(光陰) - 새로운 잔에 물들다」로 특선을 수상하였고 우에노기념관과 가고시마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55年、出生于鹿儿岛县。1979年、毕业于东京艺术大学美术学部工艺系。1981年、毕业于同所大学研究生院美术研究系工艺专业染织研究课程。1980年、首次入选第12届日展。2007年、《染上新心境》在第39届日展获得特选奖。2013年、《光阴-染上新杯》在第45届日展荣获特选奖。现任日展会员、东京艺术大学名誉教授、文星艺术大学特聘教授。

1955年、鹿児島県生まれ。1979年、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工芸科卒業。1981年、同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工芸専攻染織研究分野修了。1980年、第12回日展初入選。2007年、第39回日展「新しき気持ちに染まる」により特選受賞。2013年、第45回日展「光陰-新しき杯に染まる」により特選受賞。現在、日展会員。東京芸術大学名誉教授。文星芸術大学特任教授。作品収蔵先 東京芸術大学大学美術館、鹿児島市立美術館、品川区役所、東京家政大学、上野記念館、宇都宮文星女子高校 ほか



회소식으로  
为喜讯  
吉報へ  
비단  
絹  
絹(紬)  
105×200cm  
2020



# 시로마 에이이치 城間菜市 城間 菜市

시로마 에이이치는 1977년 오키나와에서 태어났다. 2012년 제47회 서부전통공예전에서 후쿠오카 시장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 제49회 서부전통공예전에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2015년 제62회 일본전통공예전에서 일본공예회 신인상을 수상, 2021년 제55회 서부공예전에서는 오키나와 타임스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 제22회 MOA 미술관 오카다 모키치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2023년에는 제57회 서부전통공예전 서부지부장상을 수상했다. 시로마 에이이치의 작품은 시로마 빈가타공방과 여러 개인소장가들에게 소장되어 있다. 城間菜市1977年出生于日本冲绳县。2012年荣获西部传统工艺展的福冈市长奖。2014年荣获第49届西部传统工艺展的奖励奖。2015年荣获第62届日本传统工艺展的日本工艺会新人奖。荣获2021年第 55届西部工艺展冲绳时报奖、2022年第22届 MOA美术馆冈田茂吉奖的大奖。2023年荣获第57届西部传统艺术工艺品展西部分会会长奖。城间英一的作品被城间红型工作室和多位私人收藏家收藏。1977年、冲绳県生まれ。2012年、第47回西部伝統工芸展 福岡市長賞受賞。2014年、第49回西部伝統工芸展 奨励賞受賞。2015年、第62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新人賞受賞。2021年、第55回西部伝統工芸展 沖縄タイムス社賞受賞。2022年、第22回 MOA美術館岡田茂吉賞 大賞受賞。2023年、第57回西部伝統工芸展 西部支部長賞受賞。作品収蔵先 城間びんが工房、個人蔵



류큐빈가타기모노 「해변의 빛」  
琉球紅型衣服 《海滨之光》  
琉球紅型着物 「浜の光」  
비단  
絹  
絹  
148×176cm  
2017



이력  
履歷  
履歷





|  |  |
|--|--|
|  |  |
|  |  |

|   |
|---|
| <b>손대현</b> 孫大炫 1950                                 |
| <span></span>                                       |
| <b>주요경력</b>   |
| 1999 서울시 무형문화재 1호 옷칠장 선정                            |
| 1991 대한민국명장회 제1호 나전칠기 명장 선정                         |
| 1968 나전칠기명장 故민종태 선생에게 사사                            |
| <b>주요전시</b>   |
| 2023 반짝반짝 빛나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한국                      |
| 2022 손대현과 제자들-옷칠, 생활에 스미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서울, 한국     |
| 2022 아홉개의 의자, 프랑스문화원, 부산, 한국                        |
| 2021 손대현 건칠전-가치를 담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서울, 한국           |
| 2018 기량의 예술-평창동계올림픽기념 한국공예전, 올림픽파크 라이브사이트,강릉, 한국    |
| 2018 나전과 옷칠-그 천년의 빛으로 평화를 담다,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실, 서울, 한국 |
| 2016 손대현 개인전, 나전칠기박물관, 서울, 한국                       |
| 2015 코리아 나무! 한국현대공예전, 국립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
| 2014 한국의 공예-전통과 현대의 율림, 쿼터가드갤러리, 델리, 인도             |
| <b>주요소장처</b>  |
| 교황청, 로마, 이탈리아                                       |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한국                                     |
|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한국                                     |

|  |  |
|--|--|
|  |  |
|  |  |

## 정해조 鄭解朝 1945

|  |
|--|
| <b>교육배경</b>                                      |
| 1981 대구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 졸업                   |
| 197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목칠) 졸업                       |
| <b>주요경력</b>                                      |
| 현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
| 2016 한국공예가협회 고문                                  |
| 1989 일본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공예연구소 연구원                    |
| <b>주요전시</b>                                      |
| 2022 공예 지금, 리움미술관, 서울, 한국                        |
| 2022 불보다 뜨겁게 바람보다 서늘하게,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
| 2021 아시아를 칠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한국                   |
| 2021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개관특별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한국      |
| 2021 DNA: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한국     |
| 2018 기량의 예술-평창동계올림픽기념 한국공예전, 올림픽파크 라이브사이트,강릉, 한국 |
| 2017 트레이저-현대공예페어, 바젤 전시장, 바젤, 스위스                |
| 2016 코리아 나무! 한국공예디자인전, 바이에른국립박물관, 뮌헨, 독일         |
| 2016 때깔, 우리 삶에 스민 색깔,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한국            |
| 2015 코리아 나무! 한국현대공예전, 국립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
| 2014 한국의 공예-전통과 현대의 율림, 쿼터가드갤러리, 델리, 인도          |
| <b>주요소장처</b>                                     |
| 2021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뉴욕, 미국                           |
| 2019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한국                             |
| 2015 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
| 2013 대영박물관, 런던, 영국                               |
| 2013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 런던, 영국                         |

|  |
|--|
| <b>권원덕</b> 權元愷 1979                                  |
| <span></span>  |
| <b>교육배경</b>  |
| 2017 홍익대학교 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 석사 졸업                         |
| 2007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故조석진 선생에게 사사                    |
| <b>주요전시</b>  |
| 2022 트레이스, 갤러리지우현, 서울, 한국                            |
| 2022 예울 20주년-치유와 다독임의 공예, 예울 북촌가, 서울, 한국             |
| 2022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
| 2021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개관특별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한국          |
| 2021 권원덕 개관전-인연, 나무로부터, 농방, 완주, 한국                   |
| 2019 생활미학: 한-필 수교 70주년 기념 한국공예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마닐라, 필리핀 |
| 2018 한국 공예의 범고창신,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 밀라노, 이탈리아       |
| 2016 목가구, 나무의 이치를 담다, 영인산산림박물관, 아산, 한국               |
| 2015 코리아 나무! 한국현대공예전, 국립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
| <b>주요소장처</b>   |
| 2019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김해, 한국                               |
| 2015 부산국가기록원, 부산, 한국                                 |
| 2013 어진박물관, 전주,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권원덕</b> 權元愷 1979                                  |
| <span></span>  |
| <b>교육배경</b>  |
| 2017 홍익대학교 대학원 목조형가구학과 석사 졸업                         |
| 2007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故조석진 선생에게 사사                    |
| <b>주요전시</b>  |
| 2022 트레이스, 갤러리지우현, 서울, 한국                            |
| 2022 예울 20주년-치유와 다독임의 공예, 예울 북촌가, 서울, 한국             |
| 2022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
| 2021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개관특별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한국          |
| 2021 권원덕 개관전-인연, 나무로부터, 농방, 완주, 한국                   |
| 2019 생활미학: 한-필 수교 70주년 기념 한국공예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마닐라, 필리핀 |
| 2018 한국 공예의 범고창신,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 밀라노, 이탈리아       |
| 2016 목가구, 나무의 이치를 담다, 영인산산림박물관, 아산, 한국               |
| 2015 코리아 나무! 한국현대공예전, 국립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
| <b>주요소장처</b>   |
| 2019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김해, 한국                               |
| 2015 부산국가기록원, 부산, 한국                                 |
| 2013 어진박물관, 전주, 한국                                   |

|  |  |
|--|--|
|  |  |
|  |  |

|                             |
|-----------------------------|
| <b>고보경</b> 高甫晁 1989         |
| <span></span>               |
| <b>교육배경</b>                 |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문화산업 디자인전공 석사 졸업 |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문화산업 디자인전공 박사 수료 |

|  |
|--|
| <b>주요경력</b>  |
| 현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광주, 한국                                   |
| <b>주요전시</b>  |
| 2023 댓츠 코리아-한지, 국립마르차나도서관 산소비노전시관, 베네치아, 이탈리아          |
| 2022 지구 생촌 가이드: 포스트 휴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
| 2022 프랑스공예아트비엔날레-헤벨라시옹,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
| 2022 사직단 전사청(典祀廳) 권역 복원전시-종묘12987 역(驛) 재현, 사직단, 서울, 한국 |
| 2021 낫설고, 낫익고, 스페이스 B-E갤러리, 서울, 한국                     |
| 2020 공기O器, KCDF 갤러리, 서울, 한국                            |
| 2019 한국무형문화재주간 ‘잇고, 짓고, 품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바르샤바, 폴란드     |
| 2017 고보경 개인전-부드러운 조각,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 한국                |
| <b>주요소장처</b>   |
| 청주공예비엔날레, 문화제초장, 청주, 한국                                |

|  |  |
|--|--|
|  |  |
|  |  |

|                                      |
|--------------------------------------|
| <b>조하나</b> 趙HANA, 1980               |
| <span></span>                        |
| <b>교육배경</b>                          |
| 2008 충남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섬유공예전공 석사 졸업      |
| 2003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미술학과 공예전공 졸업       |
| <b>주요경력</b>                          |
| 하나규방대표                               |
| 주름장신구(미진사, 2015) 저자                  |
| <b>주요전시</b>                          |
| 2023 조하나 개인전-마음산책, 삼세영 갤러리, 서울, 한국   |
| 2022 예울 20주년-치유와 다독임, 예울북촌가, 서울      |
| 2022 싱가포르 글로벌 아트페어, 샌드엑스포컨벤션센터, 싱가포르 |
| 2021 숨침 콜라보전, 지소갤러리, 대전, 한국          |
|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
| 2019 소파 시카고, 네이버피어, 시카고, 미국          |
| 2018 조하나 개인전-시간을 접다, 지소갤러리, 서울, 한국   |
| <b>주요소장처</b>                         |
| 2020 빅토리아앤앨버트뮤지엄, 런던, 영국             |
| 2012 한국공예관, 청주, 한국                   |

|  |  |
|--|--|
|  |  |
|  |  |

|   |
|---|
| <b>이슬기</b> 李瑟己 1972                                     |
| <span></span>   |
| <b>교육배경</b>   |
| 2000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 파리, 프랑스                               |
| 1999 시카고 예술 대학, 시카고, 미국 (교관학생 프로그램)                     |
| <b>주요전시</b>   |
| 2023 유주얼 오브젝트 바이 이슬기, 위 두 닷 워크 얼론, 파리, 프랑스              |
| 2023 매일, 예술,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
| 2022 미니멀리즘-맥시멀리즘-메커니즈즈즘,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
| 2022 이슬기 개인전-슬로우 워터, 멘데스 우드 DM, 브뤼셀, 벨기에                |
| 2020 올해의 작가상 20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 2019 이슬기 개인전-Sooner’s Two Days Better 라크리에 아트센터, 렌, 프랑스 |
| 2018 이슬기 개인전-다마스,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
| 2017 달의 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
| 2015 코리아 나무! 한국현대공예전, 국립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
| 2014 터전을 불태우라, 제10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한국                      |
| <b>주요소장처</b>  |
| 파리국립조형예술 및 그래픽예술 재단, 파리, 프랑스                            |
| 프랑스 지역자치단체 현대미술컬렉션(FRAC), 파리, 프랑스                       |
| KADIST, 샌프란시스코, 미국                                      |
| 빅토리아국립미술관, 멜버른, 호주                                      |
| 리움미술관, 서울, 한국   |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  |  |
|--|--|
|  |  |
|  |  |

|                                    |
|------------------------------------|
| <b>박경숙</b> 朴京淑 1955                |
| <span></span>                      |
| <b>교육배경</b>                        |
| 2010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석사 졸업 |
| 2004 일본 오사카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과 박사 수료   |
| 1983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석사 졸업           |
| 1980 홍익대학교 공예과 학사 졸업               |

|  |
|--|
| <b>주요전시</b>                                    |
|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본 전시: 공생의 도구, 문화제초장, 청주, 한국      |
| 2018 뉴 오리엔탈리아, 잉거도자미술관, 신베이시, 중국대만             |
| 2016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메이드 인 코리아 순회전, 서울/부산/광주, 한국 |
| 2015 코리아 나무! 한국현대공예전, 국립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
| 2014 한국 현대도예 특별전, 더블린성, 더블린, 아일랜드              |
|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네트워크전, 갤러리 PFO, 부산, 한국         |
| 2013 박경숙 개인전, 꿈(KWUM)박물관, 피스카스, 핀란드            |
| 2012 박경숙 개인전-부산국제아트페어(BFAA), 벵스코, 부산           |
| 2008 박경숙 개인전-아트포럼 JARFO, 교토, 일본                |
| <b>주요소장처</b>                                   |
| 체스터비티 도서관, 더블린, 아일랜드                           |
| 꿈(KWUM)박물관, 피스카스, 핀란드                          |
| 경덕진도자학원, 경덕진 중국                                |
| 큐슈산업대학, 후쿠오카, 일본                               |

|  |  |
|--|--|
|  |  |
|  |  |

|  |
|--|
| <b>백명</b> 1965   |
| <span></span>  |
| <b>교육배경</b>  |
| 1994 중앙공예미술학원 졸업                                       |
| <b>주요경력</b>  |
| 현 칭화대학교 미술대학 도자기예술학부 교수                                |
| <b>주요전시</b>  |
| 2023 성기물의 귀환-백명의 예술여행, 일미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20 마음의 손길이 닿다-백명 작품전, 아시아미술관, 니스, 프랑스                |
| 2019 대지의 화음 개인전, 케라미스도자기박물관, 랄루비에르, 벨기에                |
| 2019 순념의 향-백명 작품전, 계몽헌 갤러리, 홍콩, 중국                     |
| 2018 광명의 비 개인전, 프랑수아갤러리, 파리, 프랑스                       |
| 2018 명-백명 개인전, 사라공 미술관, 프로방스, 프랑스                      |
| 2017 백명 개인전, 라코스테 갤러리, 미국, 보스턴                         |
| 2017 백·청 백명 개인전, MAAT 박물관, 포르투갈                        |
| 2017 ‘다양-백명의 나라’ 개인전, 민생현대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14 중불수교 50주년 중점사업-백명의 회화와 도자기전, 파리 아시아예술박물관, 파리, 프랑스 |
| <b>주요소장처</b>   |
| 2022 공예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21 중국국가화원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21 케라미스도자기 박물관, 라 루비에흐, 벨기에                          |
| 2019 대영박물관, 런던, 영국                                     |
| 2019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17 MAAT 박물관, 리스본, 포르투갈                               |
| 2014 파리아시아예술박물관, 파리, 프랑스                               |

|  |  |
|--|--|
|  |  |
|  |  |

|                             |
|-----------------------------|
| <b>원광</b> 1964              |
| <span></span>               |
| <b>교육배경</b>                 |
| 2009 중국 예술연구원 디자인 예술학 박사 졸업 |
| 1988 중앙공예미술학원 졸업            |

|  |
|--|
| <b>주요경력</b>  |
| 현 산둥예술대학 디자인대학 교수  |
| <b>주요전시</b>  |
| 2021 제2회 전국공예미술작품전, 중국국가박물관, 베이징, 중국                             |
| 2019 제13회 전국미술작품전,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18 시대의 온도-산둥예술학원 개교 60주년 미술작품전,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17 아시아 당대도예전, 중국미술학원, 항저우, 중국                                  |
| 2016 제2회 중국도자예술대전,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15 중국 사의예술대전, 중국국가화원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14 정류수심 제2회-원광 박사 도예 30년 작품전, 지난, 중국                           |
| 2011 정수의 물이 깊다-원광 도자기예술작품전, 베이징 공왕부, 베이징, 중국                     |
| <b>주요수상</b>  |
| 2014 제1회 공왕부·시대 초상예술선 탁월공로상                                      |
| 2013 중국 경공업 연합회, 중국 도자기 공업 협회에서 수여하는 ‘중국 도자기 예술 및 디자인 교육 우수 공로상’ |
| <b>주요소장처</b>   |
| 2022 중국국가박물관, 베이징, 중국  |
| 2019 산동미술관, 지난, 중국   |
| 2017 산둥성박물관, 지난, 중국  |
| 2014 중국 국가화원미술관, 베이징, 중국   |
| 2011 문화부 공왕부, 중국   |











이력 履历 履歷

|   |
|---|
| <b>白明</b>   |
| <span></span>   |
| <b>教育背景</b>   |
| 1994 毕业于中央工艺美术学院  |
| <b>主要经历</b>   |
| 现 清华大学美术学院陶瓷艺术系 教授  |
| <b>主要展览</b>   |
| 2023 成器物归—白明的艺术之旅, 壹美美术馆, 北京, 中国                                      |
| 2020 心手相应—白明作品展, 尼斯亚洲艺术博物馆, 尼斯, 法国                                    |
| 2019 大地和鸣个展, 凯拉米斯陶瓷博物馆, 拉卢维耶尔, 比利时                                    |
| 2019 瞬息之恒—白明作品展, 季丰轩画廊, 香港, 中国  |
| 2018 光明之碑个展, 弗朗索瓦此画廊, 巴黎, 法国  |
| 2018 明：LUMIÈRE”个展, 萨拉贡美术馆, 普罗旺斯, 法国                                   |
| 2017 醒昂—白明的国度个展, 民生现代美术馆, 北京, 中国                                      |
| 2017 白明·波士顿个展 LACOSTE画廊, 波士顿, 美国                                      |
| 2017 白·蓝 白明-里斯本个展, MAAT博物馆, 葡萄牙                                       |
| 2014 中法建交50周年重点项目—白明绘画与陶瓷展” 巴黎亚洲艺术博物馆, 巴黎, 法国                         |
| <b>主要收藏机构</b>   |
| 2022 中国工艺美术馆, 北京, 中国  |
| 2021 中国国家画院, 北京, 中国   |
| 2021 比利时凯拉米斯陶瓷博物馆(Keramis Museum), 比利时                                |
| 2019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9 大英博物馆(the British Museum), 伦敦, 英国                                |
| 2017 葡萄牙MAAT博物馆(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Technology), 里斯本, 葡萄牙 |
| 2014 巴黎亚洲艺术博物馆(Musee Cernuschi), 巴黎, 法国                               |

### 远宏

|   |
|---|
| <b>教育背景</b>                                   |
| 2009 毕业于中国艺术研究院 获博士学位                         |
| 1988 毕业于中央工艺美术学院                              |
| <b>主要经历</b>                                   |
| 现 山东艺术学院设计学院教授                                |
| <b>主要展览</b>                                   |
| 2021 第二届全国工艺美术作品展, 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9 第十三届全国美术作品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8 时代的温度-山东艺术学院建校60周年美术作品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7 亚洲当代陶艺展, 中国美术学院, 杭州, 中国                  |
| 2016 第二届中国陶瓷艺术大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5 中国写意艺术大展, 中国国家画院, 北京, 中国                 |
| 2014 静水流深第二回—远宏博士陶艺三十年作品展, 济南, 中国             |
| 2011 静水流深—远宏瓷艺作品展, 北京恭王府, 北京, 中国              |
| <b>主要获奖</b>                                   |
| 2014 获得“首届恭王府·时代肖像艺术展卓越贡献奖”                   |
| 2013 获得由中国轻工联合会、中国陶瓷工业协会颁发的“中国陶瓷艺术与设计教育杰出贡献奖” |
| <b>主要收藏机构</b>                                 |
| 2022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9 山东美术馆, 济南, 中国                            |
| 2017 山东省博物馆, 济南, 中国                           |
| 2014 中国国家画院, 北京, 中国                           |
| 2011 文化部恭王府, 北京、中国                            |

### 苏献忠

|   |
|---|
| <b>主要展览</b>                             |
| 2019 德化白瓷：对话进行时, V&A博物馆, 伦敦, 英国         |
| 2018 一路走来, 中国白瓷展, 荷兰                    |
| 2018 艺术日内瓦现代艺术展, 瑞士                     |
| 2017 最炫中国白一带一路与德化当代陶瓷学术邀请展, 岭南美术馆, 中国台湾 |
| 2015 境生象外—印象白瓷·国际巡回展, 中国台湾              |
| 2014 大器天成·中国当代陶瓷艺术展, 中国台湾               |
| 2014 苏献忠个人作品展, 内格勒博物馆, 内格勒, 荷兰          |
| 2013 德化—当下的可能艺术展, 厦门, 中国                |
| 2012 亚洲东亚现代陶艺展, 中国台湾                    |
| <b>主要获奖</b>                             |
| 2017 中法文化论坛中华陶瓷文明弘扬与传播贡献奖               |
| 2016 斯里兰卡最高奖项 吉祥奖                       |
| 2014 得第四届大地奖陶瓷作品评比金奖                    |
| 2010 第九届全国陶瓷艺术创新评比 金奖                   |
| <b>主要收藏机构</b>                           |
| 2021 新加坡亚州文明博物馆, 新加坡                    |
| 2018 维多利亚与艾伯特博物馆, 伦敦, 英国                |
| 2017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7 亚利桑那州立大学美术馆, 亚利桑那, 美国              |
| 2014 内格勒博物馆, 内格勒, 荷兰                    |
| 2012 江源大学校, 韩国                          |

### 吴昊宇

|   |
|---|
| <b>教育背景</b>                                     |
| 2007 毕业于广西艺术大学设计学院 获硕士学位                        |
| <b>主要经历</b>                                     |
| 现 清华大学美术学院陶瓷艺术设计系副教授                            |
| <b>主要展览</b>                                     |
| 2023 雕琢读音-吴昊宇艺术作品展, 上海, 中国                      |
| 2022 埤埴为器”，中日陶瓷艺术特赏, 上海, 中国                     |
| 2022 邂逅永恒 吴昊宇雕塑艺术个展, 上海, 中国                     |
| 2022 独特的设计 艺术设计展, 巴黎, 法国                        |
| 2021 第十二届美浓国际陶艺大奖赛, 日本                          |
| 2019 中国白国际陶瓷艺术大奖赛, 歌剧院, 尼斯, 法国                  |
| 2019 COLLECT 2019国际手工艺展, 英国                     |
| 2018 迈阿密巴塞尔艺术展, 美国                              |
| 2017 国际陶艺学会(IAC)中国会员展暨四方水土·青岛第二届国际陶瓷艺术展, 青岛, 中国 |
| 2016 自然之道”，威尼斯双年展共享·再生平行展, 威尼斯                  |
| 2015 新石器”，吴昊宇当代陶艺展, 北京798, 上海, 中国               |
| 2014 穿越时空—中国·爱尔兰15人陶艺作品展 都柏林, 中国                |
| <b>主要获奖</b>                                     |
| 2022 “陈设中国·晶麒麟奖”陈设艺术品金奖, 北京, 中国                 |
| 2019 中国白国际陶瓷艺术大奖赛银奖, 尼斯, 法国                     |
| 2017 摩登上海时尚家居展, 获金点传承奖, 上海, 中国                  |
| 2014 景德镇国际陶瓷博览会首届全国青年陶瓷艺术大赛金奖, 景德镇, 中国          |
| <b>主要收藏机构</b>                                   |
| 文化部恭王府, 北京, 中国                                  |

2023 日·韩工芸展—和而不同

### 鲍志强

|  |
|--|
| <b>教育背景</b>                                      |
| 1975 进修于中央工艺美术学院                                 |
| <b>主要展览</b>                                      |
| 2021 壶上清风—鲍志强师生紫砂陶刻艺术展, 东莞石龙博物馆, 东莞, 中国          |
| 2019 春华秋实—鲍志强从艺六十周年紫砂作品展, 江苏宜兴, 中国               |
| 2018 陶都风—宜兴紫砂艺术温哥华特展, 温哥华, 加拿大                   |
| 2017 壶蕴芳华—鲍志强师生紫砂艺术联展, 深圳关山月美术馆, 广州, 中国          |
| 2016 涵墨紫韵—鲍志强紫砂艺术作品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5 纪念顾景舟诞辰100周年紫砂作品展, 香港饶宗颐文化馆, 香港, 中国         |
| 2011 宜兴紫砂名人经典作品邀请展, 江苏美术馆, 南京, 中国                |
| 2009 陶都风宜兴陶瓷艺术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b>主要获奖</b>                                      |
| 2010 《盛世和谐》获“中韩陶瓷文化交流·陶艺共感—韩国陶瓷和中国宜兴紫砂壶北京展”特别荣誉奖 |
| 2010 《龙香提梁壶》获第五届中国民间工艺品博览会金奖                     |
| 2008 《紫玉飘香茶具》获中国传统工艺美术精品大展(北京2008)金奖             |
| 2005 《五代茶韵留香》获中国紫砂艺术大展评比一等奖                      |
| 2002 《金声玉振》获第三届中国工艺美术大师作品博览会金奖                   |
| <b>主要收藏机构</b>                                    |
| 2017 中国工艺美术大师博物馆, 南昌, 中国                         |
| 2016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07 故宫博物院, 北京, 中国                               |
| 2006 中南海紫光阁, 中国                                  |
| 2003 广东省博物馆, 广州, 中国                              |

### 郑幼林

|  |
|--|
| <b>教育背景</b>                                  |
| 师从中国玉雕名匠王祖光                                  |
| 毕业于福建师范大学师范学院                                |
| <b>主要展览</b>                                  |
| 2022 奋进新时代·主题成就展, 中央展区, 北京, 中国               |
| 2019 举办的寿山石韵—艺术大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7 禅趣石韵—郑幼林寿山石雕刻艺术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6 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0 上海世博会福建馆展示, 上海, 中国                      |
| 2009 中国寿山石雕精品展暨捐赠仪式, 在故宫博物院举办, 故宫博物院, 北京, 中国 |
| 1999 郑幼林寿山石雕精品展, 吉隆坡, 马来西亚                   |
| 1995 郑幼林童真艺术展, 新加坡                           |
| <b>主要获奖</b>                                  |
| 2018 《移舟换景》全国手工艺产业博览会暨非物质文化遗产传统技艺展“国匠杯”金项奖   |
| 2017 《其乐融融》福建省第八届百花文艺奖荣誉奖                    |
| 2015 《映月荷花别样红》中国工艺美术学会“百花奖”金奖                |
| <b>主要收藏机构</b>                                |
| 2020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5 台湾佛光山佛陀纪念馆, 中国台湾                        |
| 2009 故宫博物院, 北京, 中国                           |

### 王建中

|                                       |
|---------------------------------------|
| <b>教育背景</b>                           |
| 1982 毕业于中央工艺美术学院陶瓷美术系                 |
| <b>主要经历</b>                           |
| 现 清华大学特聘教授                            |
| <b>主要展览</b>                           |
| 2022 璃语东西, 国际当代玻璃艺术, 中华世纪坛美术馆, 北京, 中国 |
| 2019 新考工记—中法手工之美,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8 炉火正红—王建中玻璃艺术作品展, 国家大剧院, 北京, 中国   |
| 2016 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6 炉火正红—王建中艺术作品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5 元·初—王建中玻璃艺术展, 上海玻璃博物馆, 中国上海      |
| 2013 正在改变的传统—当代工艺作品展 奥加美术馆, 北京, 中国    |
| 2007 清州国际工艺展, 清州, 韩国                  |
| 2001 王建中玻璃艺术展, 北京, 中国                 |
| <b>主要获奖</b>                           |
| 2015 《丙申瑞猴》中国第二届生肖大赛金奖                |
| 2011 《叠泉》首届中国玻璃艺术名家作品展”金奖             |
| 2007 《天安门礼品设计》第5届韩国清州国际手工艺大赛优秀奖       |
| 2001 《冷咖啡具》韩国世界陶瓷博览会优秀奖               |
| <b>主要收藏机构</b>                         |
| 2018 国家大剧院, 北京, 中国                    |
| 2018 中国工艺美术馆, 北京, 中国                  |
| 2016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01 京畿陶瓷美术馆, 利川, 韩国                  |
| 2001 上海玻璃博物馆, 上海, 中国                  |

### 黄汉松

|                                     |
|-------------------------------------|
| <b>教育背景</b>                         |
| 2012 毕业于清华大学美术学院工艺美术系               |
| <b>主要展览</b>                         |
| 2023 获七届广东省高校美术作品学院奖双年展一等奖, 广州, 中国  |
| 2019 获第十三届全国美展, 北京, 中国              |
| 2018 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8 中国当代玻璃艺术三年展, 河南, 中国            |
| 2017 首届全国美术教育教师作品展, 重庆, 中国          |
| 2016 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4 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b>主要获奖</b>                         |
| 2018 《琉光璃彩映敦煌》国家艺术基金青年项目成果滚动资助巡展    |
| 2018 《圆·缘》入选首届中国工艺美术大展              |
| 2015 《海洋纪事》获首届广东省高校美术作品学院奖双年展教师组一等奖 |
| 2012 《生生不息》中国国际文化产业博览交易会获得文化创意金奖    |
| <b>主要收藏机构</b>                       |
| 2018 国家艺术基金管理中心, 中国                 |

## 张翀

| <span><span><span></span></span></span> 教育背景          |
|---|
| 2018 毕业于清华大学美术学院工艺美术系 获博士学位                           |
| 主要经历  |
| 现 北京工业大学艺术设计学院工艺美术系副系副教授                              |
| 主要展览  |
| 2022 美国康宁玻璃博物馆年鉴《New Glass Review 41》，康宁玻璃博物馆, 纽约, 美国 |
| 2022 2022璃语东西—国际当代玻璃艺术展, 广州美术学院, 广州, 中国               |
| 2021 第三届中国当代陶瓷艺术大展, 高新区美术馆, 南昌, 中国                    |
| 2020 第十三届全国美展, 北京, 中国                                 |
| 2019 Talente 2019, 慕尼黑, 德国                            |
| 2019 JUTTA CUNY-FRANZ MEMORIAL AWARD 2019, 德国         |
| 主要获奖  |
| 2019 获得德国“Honorary Diploma”奖                          |
| 主要收藏机构  |
| 2018 中国工艺美术馆, 北京, 中国                                  |

## 钟连盛

| <span><span><span></span></span></span> 主要展览    |
|---|
| 2022 守正·创新—北京国际当代珐琅艺术展, 中华世纪坛艺术馆, 北京, 中国        |
| 2021 熔古·铸今—中国国际当代金属艺术展, 上海世界手工艺产业博览园, 上海, 中国    |
| 2019 时代新章—国家博物馆工艺美术作品邀请展, 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9 三重阶—中国当代手工艺学术提名展, 中国美术学院民艺博物馆, 杭州, 中国      |
| 2018 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3 日中艺术与手工艺作品展, 宫城, 日本                        |
| 2009 中国工艺美术大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08 中国传统工艺美术精品大展, 民族文化宫, 北京, 中国                |
| 主要获奖  |
| 2023 北京工艺美术创新设计大赛金奖                             |
| 2021 《战疫鼎》(合作)、《百年辉煌》(合作)获“工美杯”北京工艺美术创新设计大赛特别金奖 |
| 2020 《盛世宝鼎》获首届中国工艺美术博览会首届“百鹤杯”工艺美术设计创新大赛百鹤奖     |
| 2010 《华韵四季尊》第四届北京工美展特别金奖                        |
| 主要收藏机构  |
| 2023 中国大运河非物质文化遗产展示馆, 沧州, 中国                    |
| 2022 中华世纪坛艺术馆, 北京, 中国                           |
| 2021 中国工艺美术馆, 北京, 中国                            |
| 2019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8 恭王府博物馆, 北京, 中国                             |
| 2017 联合国日内瓦总部, 瑞士                               |

## 王翊昕

| <span><span><span></span></span></span> 教育背景 |
|--|
| 2007 毕业于清华大学美术学院雕塑系 获硕士学位                    |
| 2004 毕业于清华大学美术学院工艺美术系                        |
| 主要经历   |
| 现 清华大学美术学院工艺美术系副教授                           |
| 主要展览   |
| 2022 守正·创新—北京国际当代珐琅艺术展, 中华世纪坛艺术馆, 北京, 中国     |
| 2021 知者创物—第二届全国工艺美术作品展,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21 熔古·铸今—中国国际当代金属艺术展, 世界手工艺产业博览园 上海, 中国    |
| 2021 实种实褒 实颖实栗—清华大学美术学院校庆特别展, 清华大学, 北京, 中国   |
| 2019 第十三届全国美术作品展览-进京作品展, 北京, 中国              |
| 2018 首届全国工艺美术大展, 北京, 中国                      |
| 2018 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4 第十二届全国美术作品展览, 北京, 中国                    |
| 主要展览   |
| 2022 中国工艺美术协会“百花杯”评审活动 银奖                    |
| 2021 “工美杯”北京工艺美术创新设计大赛 特别金奖(合作)              |
| 2020 “创意工美”—2020第二届中国工艺美术创新作品大赛 金奖           |
| 2019 第十五届“光华龙腾奖”(2019)中国设计业十大杰出青年            |
| 主要收藏机构                                       |
| 2023 中国工艺美术馆, 北京, 中国                         |
| 2022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王克震

| <span><span><span></span></span></span> 教育背景 |
|--|
| 2023 毕业于中国美术学院 获博士学位                         |
| 2004 毕业于英国伯明翰大学首饰、银器以及产品设计专业                 |
| 1995 毕业于南京艺术学院装饰艺术设计专业                       |
| 主要经历   |
| 现 南京艺术学院当代手工艺中心副教授                           |
| 主要展览   |
| 2023 Collect当代手工艺展, 萨默塞特宫, 伦敦, 英国            |
| 2023 V&A博物馆当代金属艺术展, V&A博物馆, 伦敦, 英国           |
| 2022 大美苏作—江苏省当代工艺美术展,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21 熔古·铸今—中国国际当代金属艺术展, 上海世界手工艺产业博览园, 上海, 中国 |
| 2020 物问东西·金观世界—国际当代金属艺术展, 中华世纪坛艺术馆, 北京, 中国   |
| 2018 21克—杭州当代国际首饰与金属艺术展, 中国美术学院民艺馆, 杭州, 中国   |
| 2016 它山—中国当代首饰展, 国家手工艺与设计中心, 斯莱福德, 英国        |
| 2015 Preziosa当代首饰展, LAO 珠宝学校, 佛罗伦, 意大利       |
| 2015 炼金铸身—杭州当代国际首饰与金属艺术展, 中国美术学院美术馆, 杭州, 中国  |
| 主要获奖   |
| 2013 入选第十二届全国美术作品展                           |
| 2013 国际当代金属艺术双年展银奖                           |
| 2005 中国首届当代手工艺学院展学院奖                         |
| 2005 英国金属工艺行业协会2005年度英国银匠行业协会年度银奖            |

## 殷秀云

| <span><span><span></span></span></span> 教育背景             |
|--|
| 1963 毕业于北京工艺美术学校   |
| 主要展览   |
| 2023 锦绣彤云—燕京八绝宫廷艺术精品特展暨中国工艺美术大师殷秀云雕漆作品展, 燕京八绝博物馆, 北京, 中国 |
| 2018 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7 中国文化艺术展, 伦敦, 英国                                     |
| 2016 第一届加拿大国际文化节, 萬錦市政府, 多伦多, 加拿大                        |
| 2014 中法工艺大师巅峰对话艺术展”，克洛·吕斯城堡, 克洛·吕斯, 法国                   |
| 2009 第十届中国工艺美术大师作品暨国际艺术精品博览会, 和平国际会展中心, 杭州, 中国           |
| 2008 中国传统工艺美术精品大展, 北京, 中国                                |
| 主要获奖   |
| 2017 《剔白海棠瓶》北京工美杯金奖                                      |
| 2016 《古琴挂屏四件套》第十一届中国北京国际文化创意产业博览会金奖                      |
| 2013 《锦绣永寿捧盒》北京工美杯 特别金奖                                  |
| 2009 《鼎盛中华大鼎》第十届中国工艺美术大师作品暨国际艺术精品博览会 特等奖                 |
| 2008 《十八罗汉圆盘》中国传统工艺美术精品展金奖                               |
| 主要收藏机构   |
| 2021 中国工艺美术馆, 北京, 中国                                     |
| 2019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8 北京市政府, 北京, 中国                                       |

## 甘而可

| <span><span><span></span></span></span> 主要展览   |
|--|
| 2022 世界制造业大会工艺美术精品展, 滨湖国际会展中心, 合肥, 中国          |
| 2021 百年百艺·薪火相传中国传统工艺邀请展, 上海宝山国际民间艺术博览馆, 上海, 中国 |
| 2020 美好生活—第五届中国当代工艺美术双年展, 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9 新考工记—中法手工之美特展, 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8 中日和平友好条约缔结40周年, 让文物活起来—故宫文创展, 东京, 日本      |
| 2018 2018福州国际漆艺双年展, 朱紫坊历史文化街区, 福州, 中国          |
| 2017 中日韩漆艺对话-中日韩国际漆器研讨会, 宁波, 中国                |
| 2017 独具匠心 中华精神—中国工艺美术大师40年回顾展, 北京等五地, 中国       |
| 2015 指尖上的中国-米兰世博会KIP馆, 利米兰, 意大利                |
| 主要获奖   |
| 2016 第六届安徽工艺美术博览会荣获“微工匠”金奖                     |
| 2011 第五届北京工艺美术展北京“工美杯”荣获金奖                     |
| 2011 首届中国非物质文化遗产技艺大展荣获金奖                       |
| 2010 天工艺苑·百花杯 中国工艺艺术精品奖金奖                      |
| 2009 安徽省工艺美术60周年精品大展荣获最高学术奖金奖                  |
| 主要收藏机构   |
| 2023 湖北美术馆, 武汉, 中国                             |
| 2022 安徽美术馆, 合肥, 中国                             |
| 2021 中国工艺美术馆, 北京,中国                            |
| 2021 美国大都会艺术博物馆, 纽约, 美国                        |
| 2019 中国国家博物馆, 北京, 中国                           |
| 2017 大英博物馆, 伦敦, 英国                             |
| 2015 法国巴黎吉美博物馆, 巴黎, 法国                         |
| 2011 故宫博物院, 北京, 中国                             |

## 钟声

| <span><span><span></span></span></span> 教育背景     |
|--|
| 2002 毕业于韩国培材大学漆艺专业, 获硕士学位                        |
| 1995 毕业于中央工艺美术学院装饰艺术系漆艺专业                        |
| 主要经历   |
| 现 北京工业大学艺术设计学院工艺美术系教授                            |
| 主要展览   |
| 2021 漆彩东方 第四届上海漆画展, 上海中心大厦, 上海, 中国               |
| 2019 《城市系列之一》入选第十三届全国美术作品展, 厦门市美术馆               |
| 2019 湖北国际漆艺三年展, 湖北美术馆, 武汉, 中国                    |
| 2017 《再造物与空间大漆工艺》入选2017年度中国设计权力榜 DESIGN POWER100 |
| 2015 钟声造物—漆艺家钟声作品展, 前方艺术空间, 北京, 中国               |
| 2014 第十二届全国美术作品展, 中国美术家协会, 北京, 中国                |
| 2012 第三届全国漆画展, 中国美术家协会, 北京, 中国                   |
| 2009 第十一届全国美术作品展, 中国美术家协会, 北京, 中国                |
| 主要收藏机构   |
| 2015 福建省美术馆 厦门, 中国                               |
| 2015 福建拓福美术馆 厦门, 中国                              |
| 2014 湖北省博物馆, 武汉, 中国                              |
| 2012 厦门市美术馆, 厦门, 中国                              |
| 2007 广州艺术博物馆, 广州, 中国                             |

## 李洪波

| <span><span><span></span></span></span> 教育背景 |
|--|
| 2010 毕业于中央美术学院实验艺术系 获硕士学位                    |
| 1996 毕业于吉林师范大学美术系                            |
| 主要展览   |
| 2021 感同身受—李洪波个展, 奕来画廊, 纽约, 美国                |
| 2019 绽放—李洪波个展, 伊斯兰艺术节, Maraya艺术中心, 阿联酋       |
| 2018 中国制造—李洪波个人项目, 银川当代美术馆, 银川, 中国           |
| 2017 标准, 昂古莱姆纸博物馆, 昂古莱姆, 法国                  |
| 2016 教科书, 凯尚画廊(奕来画廊), 纽约, 美国                 |
| 2015 彩虹, 萨凡纳艺术与设计学院美术馆, 美国                   |
| 2013 纸·境, 路德维希堡艺术协会, 路德维希堡, 德国               |
| 2012 洁白的纸, 多米尼克画廊, 悉尼, 澳大利亚                  |
| 2011 世界—李洪波新作展, 铸造美术馆, 北京, 中国                |
| 主要获奖   |
| 2018 与翁连溪共同主编的《中国佛教版画全集》获第四届中国政府出版奖提名奖       |
| 2017 获得Sovereign 艺术基金会亚洲艺术大奖                 |
| 主要收藏机构                                       |
| 2021 山东美术馆, 济南, 中国                           |
| 2017 中国美术馆, 北京, 中国                           |
| 2017 法国昂古莱姆市, 法国                             |
| 2016 澳大利亚梅特兰地区美术馆                            |
| 2014 新加坡亚洲文明博物馆, 新加坡                         |













## チヨンシオン

| 教育背景   |
|--|
| 2002 韓国培材大学漆芸科 修士号取得                                   |
| 1995 中央工芸美術学院 裝飾芸術学科 漆芸科卒業                             |
| 主要経歴   |
| 現 北京工業大学芸術デザイン学院工芸美術科教授                                |
| 主要展示   |
| 2021 漆彩東方 第四回上海漆画展、上海センタービル、上海、中国                      |
| 2019 《都市シリーズその1》第十三回全国美術作品展入選、廈門市美術館                   |
| 2019 湖北国際漆芸トリエンナーレ、湖北美術館、武漢、中国                         |
| 2017 《再生物と空間大漆工芸》2017年度中国デザインパワーチャートDESIGN POWER100に入選 |
| 2015 鐘声造物―漆芸家鐘声作品展、前方芸術空間、北京、中国                        |
| 2014 第十二回全国美術作品展、中国美術家協会、北京、中国                         |
| 2012 第三回全国漆画展、中国美術家協会、北京、中国                            |
| 2009 第十一回全国美術作品展、中国美術家協会、北京、中国                         |
| 主要收藏先  |
| 2015 福建省美術館廈門、中国                                       |
| 2015 福建拓福美術館廈門、中国                                      |
| 2014 北省博物館、武漢、中国                                       |
| 2012 廈門市美術館、廈門、中国                                      |
| 2007 広州芸術博物館收藏、広州、中国                                   |

## リーホンボ

| 教育背景  |
|---|
| 2010 中央美術学院実験芸術科 修士号取得                              |
| 1996 吉林師範大学美術科卒業                                    |
| 主要展示  |
| 2021 感同身受―李洪波個展、Eli Klein gallery、ニューヨーク、米国         |
| 2019 プルーム―李洪波個展、イスラム芸術フェスティバル、Maraya芸術センター、アラブ首長国連邦 |
| 2018 中国制造―李洪波ソロプロジェクト、銀川現代美術館、銀川、中国                 |
| 2017 標準、アングレーム紙博物館、アングレーム、フランス                      |
| 2016 教科書、Eli Klein gallery、ニューヨーク、米国                |
| 2015 虹、サバンナ芸術デザイン大学美術館、米国                           |
| 2013 紙・境、ルートヴィヒスブルク芸術協会、ルートヴィヒスブルク、ドイツ              |
| 2012 潔白な紙、ドミニクギャラリー、シドニー、豪州                         |
| 2011 世界―李洪波新作展、鑄造美術館、北京、中国                          |
| 主要受賞  |
| 2018 翁连溪と共編した《中国仏教版画全集》第四回中国政府出版賞ノミネート賞受賞           |
| 2017 Sovereignアート財団、アジア芸術大賞受賞                       |
| 主要收藏先   |
| 2021 山東美術館、済南、中国                                    |
| 2017 中国美術館、北京、中国                                    |
| 2017 フランス・アングレーム市、フランス                              |
| 2016 メートランド・リージョナル・アート・ギャラリー、豪州                     |
| 2014 シンガポールアジア文明博物館、シンガポール                          |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林 香君

| 教育背景                    |
|-------------------------|
| 1978 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卒業       |
| 主要経歴                    |
| 現 文星芸術大学名誉教授            |
| 主要受賞                    |
| 2017 日本現代工芸美術展 NHK会長賞   |
| 2012 第44回日展 特選受賞        |
| 2009 第41回日展 特選受賞        |
| 2009 第42回日本現代工芸美術展 本会員賞 |
| 1997 日本現代工芸美術展 大賞受賞     |
| 1993 朝日陶芸展・グランプリー       |
| 1990 ‘90国際陶芸展・文化院長賞     |
| 1978 東京芸術大学・安宅賞         |
| 主要收藏先                   |
| LACMA美術館、LA、米国          |
| ポートランド美術館、ポートランド、米国     |
| ミネアポリス美術館、ミネアポリス、米国     |
| シンシナティ美術館、シンシナティ、米国     |
| 壬生町庁舎、壬生町、日本            |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加藤 令吉

| 教育背景                |
|---------------------|
| 1976 玉川大学文学部芸術学科卒業  |
| 主要受賞                |
| 2022 第9回日展 東京都知事賞受賞 |
| 2006 第38回日展 日展会員賞受賞 |
| 1997 第29回日展 特選受賞    |
| 1985 第17回日展 特選受賞    |
| 1976 第8回日展 初入選      |
| 主要收藏先               |
| 日展会館、東京、日本          |
| 愛知県陶磁美術館、名古屋、日本     |
| 瀬戸市美術館、瀬戸、日本        |
| 古川美術館、名古屋、日本        |
| 中国江西省陶瓷研究所、江西、中国    |
| 立鶯歌陶瓷博物館、新北、中国台湾    |
| 韓国利川市役所、利川、韓国       |
| 外務省、東京、日本           |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リョウキョウ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教育背景                            |
|---------------------------------|
| 1985 武蔵野美術大学工芸工業デザイン学科(金工専攻) 卒業 |
| 主要経歴                            |
| 2014 重要無形文化財「色絵磁器」の保持者に認定       |
| 2002 十四代 今泉今右衛門を襲名              |
| 主要受賞                            |
| 2009 紫綬褒章受章                     |
| 2008 MOA岡田茂吉賞 工芸部門優秀賞受賞         |
| 2004 日本伝統工芸展 東京都知事賞受賞           |
| 1998 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会長賞受賞         |
| 主要收藏先                           |
| 文化庁、東京、日本                       |
| 東京国立近代美術館工芸館、東京、日本              |
| 大英博物館、ロンドン、英国                   |
| オークランド博物館、ニュージーランド              |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津金 日人夢

| 教育背景                             |
|----------------------------------|
| 1993 有田窯業大学校ロクロ科修了               |
| 主要受賞                             |
| 2021 西部伝統工芸展 KKB鹿児島放送賞受賞         |
| 2019 西部伝統工芸展 KAB熊本朝日放送賞受賞        |
| 2017 伝統工芸陶芸部会展 日本工芸会賞受賞          |
| 2015 西部伝統工芸展 KAB熊本朝日放送賞/五十回記念賞受賞 |
| 2014 西部伝統工芸展 QAB琉球朝日放送賞受賞        |
| 2012 西部伝統工芸展 沖繩タイムズ社賞受賞          |
| 2010 西部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賞受賞            |
| 主要收藏先                            |
| 宮内庁、東京、日本                        |

## 津金 日人夢

| 教育背景                                 |
|--------------------------------------|
| 2011 富山ガラス造形研究所造形科卒業                 |
| 2001 京都市立芸術大学美術学部美術科 日本画(模写・水墨画)専攻卒業 |
| 主要受賞                                 |
| 2021 第1回「古典の日文化基金賞」受賞                |
| 2020 第33回京都美術文化賞受賞                   |
| 2016 第34回京都府文化賞 奨励賞受賞                |
| 2015 第35回伝統文化ポーラ賞 奨励賞受賞              |
| 2014 第61回日本伝統工芸展 NHK会長賞受賞            |
| 2013 国際ガラス展・金沢2013奨励賞受賞              |
| 主要收藏先                                |
| 宮内庁、東京、日本                            |
| 大英博物館、ロンドン、英国                        |
| 富山市ガラス美術館、富山、日本                      |
| 佐野市立吉澤記念美術館、佐野、日本                    |
| 金沢市立中村記念美術館、金沢、日本                    |

## 津金 日人夢

## 津金 日人夢

## 津金 日人夢

## 津金 日人夢

## 津金 日人夢

## 津金 日人夢

## 津金 日人夢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宮田 亮平

| 教育背景                          |
|-------------------------------|
| 1972 東京芸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工芸(鍛金)専攻修了 |
| 1970 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工芸科卒業          |
| 主要経歴                          |
| 現 東京芸術大学名誉教授                  |
| 2023 日本芸術院会員就任                |
| 2022 日展理事長就任                  |
| 2016 文化庁長官就任                  |
| 2005 東京芸術大学学長就任               |
| 主要受賞                          |
| 2012 日本芸術院賞受賞                 |
| 2009 第41回日展 内閣総理大臣賞受賞         |
| 1997 第29回日展 特選受賞              |
| 1981 第13回日展 特選受賞              |
| 主要收藏先                         |
| 東京都美術館、東京、日本                  |
| 東京駅「銀の鈴」、東京、日本                |
| 薬師寺、奈良、日本                     |
| 国立工芸館、金沢、日本                   |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十四代今泉今右衛門

|               |
|---------------|
| 이력 履历 履歴      |
| <span></span> |
| <span></span> |

## 大角 幸枝

|                               |
|-------------------------------|
| <b>教育背景</b>                   |
| 1969 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芸術学科卒業         |
| <b>主要経歴</b>                   |
| 現 東京家政大学名誉教授、金沢美術工芸大学客員名誉教授   |
| 2015 重要無形文化財「鍛金」保持者に認定        |
| <b>主要受賞</b>                   |
| 2017 旭日小綬章受章                  |
| 2010 第17回岡田茂吉賞 工芸部門 MOA美術館賞受賞 |
| 2010 紫綬褒章受賞                   |
| 2009 第56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保持者賞受賞  |
| 1987 第34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総裁賞受賞   |
| 1986 第33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奨励賞受賞   |
| <b>主要収蔵先</b>                  |
| 文化庁、東京、日本                     |
| 東京国立近代美術館、東京、日本               |
| ヴィクトリア&アルバート博物館、ロンドン、英国       |
| 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ニューヨーク、米国          |
| スミソニアン博物館、ワシントン、米国            |

## 青木 宏憧

|                           |
|---------------------------|
| <b>教育背景</b>               |
| 2005 東京芸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漆芸専攻修了 |
| 2003 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工芸科卒業      |
| <b>主要経歴</b>               |
| 現 東京芸術大学准教授               |
| <b>主要受賞</b>               |
| 2017 改組 新 第4回日展 特選受賞      |
| 2014 改組 新 第1回日展 特選受賞      |
| 2012 第44回日展初入選            |
| <b>主要収蔵先</b>              |
| 東京芸術大学大学美術館、東京、日本         |
| ミネアポリス美術館、ミネアポリス、米国       |
| 石川県輪島漆芸美術館、輪島、日本          |
| MINKA現代美術館、アルゼンチン         |

## 室瀬 和美

|                             |
|-----------------------------|
| <b>教育背景</b>                 |
| 1976 東京芸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漆芸専攻修了   |
| <b>主要経歴</b>                 |
| 2008 重要無形文化財「蒔絵」保持者に認定      |
| <b>主要受賞</b>                 |
| 2021 旭日小綬章受章                |
| 2008 紫綬褒章受章                 |
| 2006 日本文化芸術振興賞受賞            |
| 2002 第49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奨励賞受賞 |
| 2000 第47回日本伝統工芸展 東京都知事賞受賞   |
| 1985 第32回日本伝統工芸展 日本工芸会奨励賞受賞 |
| <b>主要収蔵先</b>                |
| 文化庁、東京、日本                   |
| 東京芸術大学、東京、日本                |
| 国立工芸館、金沢、日本                 |
| 大英博物館、ロンドン、英国               |
| 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ニューヨーク、米国        |
| ヴィクトリア&アルバート博物館、ロンドン、英国     |

## 藤沼 昇

|                            |
|----------------------------|
| <b>主要経歴</b>                |
| 2012 重要無形文化財「竹工芸」保持者に認定    |
| <b>主要受賞</b>                |
| 2015 旭日小綬章受章               |
| 2004 紫綬褒章受章                |
| 1992 第39回日本伝統工芸展東京都知事賞受賞   |
| 1986 第33回日本伝統工芸展日本工芸会会長賞受賞 |
| <b>主要収蔵先</b>               |
| シカゴ美術館、シカゴ、米国              |
| 大英博物館、ロンドン、英国              |
| 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ニューヨーク、米国       |
| MOA美術館、熱海、日本               |
| 東京国立近代美術館工芸館、東京、日本         |

|                    |
|--------------------|
| 2023 中・日・韓工芸展一和而不同 |
| <span></span>      |
| <span></span>      |

## 奥田 小由女

|                           |
|---------------------------|
| <b>主要経歴</b>               |
| 2006 奥田元宋・小由女美術館開館        |
| 1998 日本芸術院会員就任            |
| <b>主要受賞</b>               |
| 2020 文化勲章受章               |
| 2008 文化功労者顕彰              |
| 1990 第21回日展 日本芸術院賞受賞      |
| 1988 第20回日展 文部大臣賞受賞       |
| 1972 第4回日展 特選受賞('74年 再受賞) |
| 1967 第10回日展 初入選           |
| <b>主要所蔵先</b>              |
| 奥田元宋・小由女美術館               |

## 高田 和司

|                                |
|--------------------------------|
| <b>教育背景</b>                    |
| 1994 岐阜県立吉城高等学校卒業              |
| <b>主要受賞</b>                    |
| 2023 第31回伝統工芸人形展 MOA美術館賞受賞     |
| 2023 令和4年度石川県文化奨励賞受賞           |
| 2023 第63回石川の伝統工芸展 北國銀行頭取賞受賞    |
| 2021 第68回日本伝統工芸展 高松宮記念賞受賞      |
| 2020 第30回伝統工芸人形展 三越伊勢丹賞受賞      |
| 2019 令和元第60回石川の伝統工芸展 北國銀行頭取賞受賞 |
| 2019 第66回日本伝統工芸展 初入選           |
| <b>主要収蔵先</b>                   |
| 個人蔵                            |

## 井隼 慶人

|                                      |
|--------------------------------------|
| <b>教育背景</b>                          |
| 1967 京都市立美術大学(現・京都市立芸術大学) 工芸科染織専攻科修了 |
| <b>主要経歴</b>                          |
| 現 京都市立芸術大学名誉教授                       |
| <b>主要受賞</b>                          |
| 2019 改組 新 第6回日展 文部科学大臣賞受賞            |
| 2016 改組 新 第3回日展 日展会員賞受賞              |
| 1993 第25回日展 特選受賞                     |
| 1987 第19回日展 特選受賞                     |
| 1979 第11回日展 初入選                      |
| <b>主要所蔵先</b>                         |
| 京都府立文化芸術会館、京都、日本                     |
| 京都国立近代美術館、京都、日本                      |

## 上原 利丸

|                                 |
|---------------------------------|
| <b>教育背景</b>                     |
| 1981 東京芸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工芸専攻染織研究分野修了 |
| 1979 東京芸術大学美術学部工芸科卒業            |
| <b>主要経歴</b>                     |
| 現 東京芸術大学名誉教授。文星芸術大学特任教授。        |
| <b>主要受賞</b>                     |
| 2013 第45回日展 特選受賞                |
| 2007 第39回日展 特選受賞                |
| 1980 第12回日展 初入選                 |
| <b>主要収蔵先</b>                    |
| 東京芸術大学大学美術館、東京、日本               |
| 鹿児島市立美術館、鹿児島、日本                 |
| 品川区役所、東京、日本                     |
| 東京家政大学、東京、日本                    |
| 上野記念館、東京、日本                     |
| 宇都宮文星女子高校、宇都宮、日本                |

## 城間 栄市

|                             |
|-----------------------------|
| <b>主要経歴</b>                 |
| 現 城間びんがた工房 16代 城間びんがた工房 代表  |
| 沖展(沖縄タイムス社主催公募展)染色部門審査員     |
| 沖縄県立芸術大学 非常勤講師              |
| 日本工芸会新人賞 正会員推挙              |
| 沖展正会員                       |
| <b>主要受賞</b>                 |
| 2023 第57回西部伝統工芸展 西部支部長賞受賞   |
| 2022 第22回MOA美術館岡田茂吉賞 大賞受賞   |
| 2021 第55回西部伝統工芸展 沖縄タイムス社賞受賞 |
| 2014第49回西部伝統工芸展 奨励賞受賞       |
| 2012 第47回西部伝統工芸展 福岡市長賞受賞    |
| <b>主要収蔵先</b>                |
| 城間びんがた工房                    |
| 個人蔵                         |

2023 한·중·일 예술제

# 2023 한·중·일 공예전 화이부동

**기간** 2023. 8. 30. — 2023. 9. 10.  
**장소**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1, 2

**주최** 해외문화홍보원  
**주관** 해외문화홍보원  
**후원** 전주시

**기획** 전시감독 임미선  
**진행** 큐레이터 이승미(한국)  
양징(중국)

**총괄** 사무관 라호선  
주무관 류지연

**운영** (주)유니원컴퍼니:  
정중화/이호민/박동현

**협력** 중국미술관  
일본문화청  
공익사단법인 일전  
공익사단법인 일본공예회

**연출** 디자인지오  
**운송** 파나로드

**책임편집** 임미선  
**편집** 이승미  
**글** 임미선, 이승미(한국)  
양징, 왕위(중국)  
일본문화청(일본)

**번역** 통역법인 소통  
**사진** 남기용, 김리아갤러리,  
갤러리현대 외

**디자인** 지상이기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발행일** 2023년 8월 30일  
**발행인** 김장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해외문화홍보원

© 2023 해외문화홍보원

2023中·日·韩艺术节

# 2023中·日·韩工艺展 和而不同

**时间** 2023. 8. 30. — 2023. 9. 10.  
**地点** 全北艺术会馆Gisurak第一、二展室

**主办** 海外文化弘报院  
**承办** 海外文化弘报院  
**支持** 全州市

**策划** 展览监督 林美善  
**执行** 策展人 李承美(韩国)  
杨婧(中国)

**统筹** 事务官 罗皓仙  
主务官 柳智妍

**运营** ©UNIONE COMPANY:  
郑宗和/李镐敏/朴董玟

**协助** 中国美术馆  
日本文化厅  
公益社団法人 日展  
公益社団法人 日本工艺会

**导演** Design ZIO  
**运输** Panaroad

**责任编辑** 林美善  
**编辑** 李承美  
**撰文** 林美善、李承美(韩国)  
杨婧、王伟(中国)  
日本文化厅(日本)

**翻译** 翻译法人疏通  
**摄影** 南奇龙、KIMREEAA画廊、  
Galleryhyundai 外

**设计** 纸上利技  
**印刷** 现代原色文化社

**出版日** 2023年 8月 30日  
**出版人** 金章镐  
**出版单位** 韩国世宗特别自治市Galmae路408号  
政府世宗厅舍14-1栋  
海外文化弘报院

© 2023海外文化弘报院

2023日·中·韓芸術祭

# 2023日·中·韓工艺展 和而不同

**期間** 2023. 8. 30. — 2023. 9. 10.  
**場所** 全北芸術會館 ギスラック 1, 2

**主催** 海外文化弘報院  
**主管** 海外文化弘報院  
**後援** 全州市

**企画** 展示監督 林美善  
**進行** キュレーター 李承美(韓国)  
楊婧(中国)

**総括** 事務官 羅皓仙  
主務官 柳智妍

**運営** ©UNIONE COMPANY:  
鄭宗和/李鎬敏/朴董玟

**協力** 日本文化庁  
中国美術館  
公益社団法人 日展  
公益社団法人 日本工芸会

**演出** デザインジオ  
**運送** パナロード

**責任編集** 林美善  
**編集** 李承美  
**書** 林美善、李承美(韓国)  
楊婧、王伟(中国)  
日本文化庁(日本)

**翻訳** 通訳法人疎通  
**写真** 南奇龍、キム・リアギャラリー、  
ギャラリーヒョンデ 外

**デザイン** 紙上利技  
**印刷** 現代原色文化社

**発行日** 2023年 8月 30日  
**発行人** 金章镐  
**発行元** 韓国世宗特別自治市、ガルメ路、408  
政府世宗厅舍14-1棟  
海外文化弘報院

© 2023海外文化弘報院





2023

한중일  
공예전